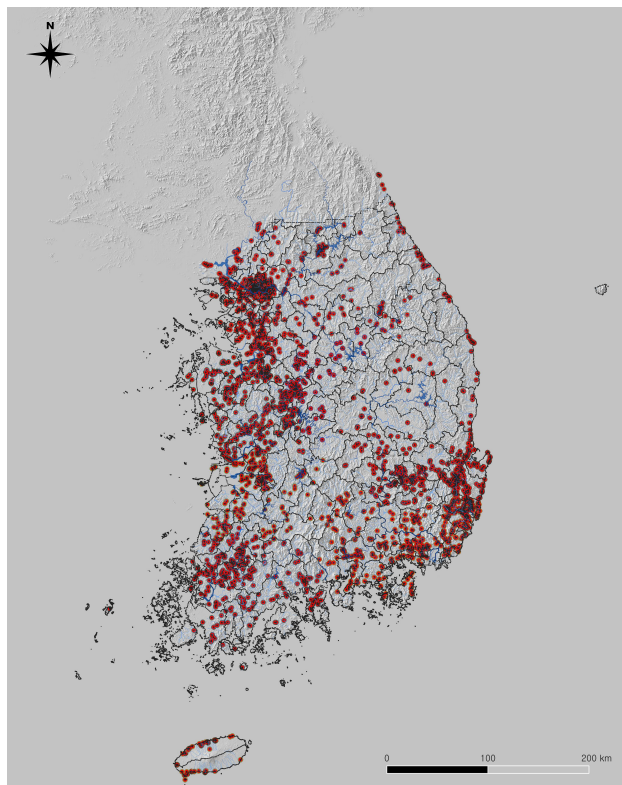


한국청동기학회 2025년도 정기학술대회

#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



일시\_ 2025. 10. 17.(금) 10:00~18:00

장소\_ 충남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주최\_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Society for Korean Bronze Culture

## 목 차

005 행사 일정

007 기조강연\_ 한국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 연구의 과거와 미래 연구방향 / 김권구(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019 제1발표\_ 지형과 유적 입지 특성 / 허의행(수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041 제2발표\_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생계 자원 이용의 이해 / 박주영(충북대학교 강사)

062 제3발표\_ 취락의 입지와 유통 체계: 남강유역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과 유통 / 황재훈(충남대학교 고고학과)

081 제4발표\_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경관 구조 -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 / 강동석(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105 제5발표\_ 취락 입지와 사회구조(네트워크) -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 / 윤재빈(울산문화유산연구원)

129 토론문1\_ '지형과 유적 입지 특성'에 관한 토론문 / 김종찬(제주대학교박물관)

132 토론문2\_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생계자원 이용의 이해」에 대한 토론문 / 김현준(신경주대학교)

134 토론문3\_ '취락의 입지와 유통 체계: 남강유역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토론문 / 고민정(경남연구원)

139 토론문4\_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경관 구조'에 대한 토론문 / 천선행(조선대학교)

142 토론문5\_ 「취락 입지와 사회 구조(네트워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한국청동기학회 2025년도 정기학술대회 행사일정

#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

10월 17일(금요일) 충남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시간	구분	내 용	
사회: 구준모(중부고고학연구소)			
10:00 ~ 10:10	개회사	박영구(한국청동기학회 회장)	
10:10 ~ 10:50	기조강연	한국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 연구의 과거와 미래 연구방향	김권구(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0:50 ~ 11:20	제1발표	지형과 유적 입지 특성	발표자: 허의행(수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토론자: 김종찬(제주대학교박물관)
11:30 ~ 13:00	점 심		
13:00 ~ 13:30	제2발표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생계 자원 이용의 이해	발표자 : 박주영(충북대학교 강사) 토론자 : 김현준(신경주대학교)
13:30 ~ 14:00	제3발표	취락의 입지와 유통 체계: 남강유 역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과 유통	발표자 : 황재훈(충남대학교 고고학과) 토론자 : 고민정(경남연구원 경남학센터)
14:00 ~ 14:15	휴 식		
14:15 ~ 14:45	제4발표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경관 구조 -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	발표자 : 강동석(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토론자 : 천선행(조선대학교)
14:45 ~ 15:15	제5발표	취락 입지와 사회구조(네트워크) -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윤재빈(울산문화유산연구원) 토론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5:15 ~ 15:30	휴 식		
15:30 ~ 17:30	종합토론	좌장 : 이기성(한국전통문화대학교)	
17:30 ~ 18:00	정 기 총 회		

# 한국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 연구의 과거와 미래 연구방향

김권구(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 I. 머리말

국어사전에서 입지란 ‘기후·지질 등 동식물이 생육하는 장소의 환경’ 혹은 ‘인간이 경제 활동을 허가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민중서림편집국2001:1906)라고 뜻을 풀이를 하고 있으며 입지는 단순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가진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상징적, 시기별 교통로와의 관계상, 유적 기능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적의 입지는 사전적 정의처럼 인간이 경제활동을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입지가 다르게 결정된다. 특히 유적이 위치한 지형적 특성과 비고(比高)를 고려한 시기별 공간사용방식을 반영한 요소로서 주목받아왔다. 따라서 유적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업과 관련하여 언급되거나 연구되어왔고 발굴보고서에는 유적의 자연적, 지리적, 역사적 환경에서 언급되어 왔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고고학계에서의 유적입지에 대한 연구흐름을 선사시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고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취락입지의 주요연구사

서구에서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고고학과의 E.S. Higgs를 필두로 한 고경제학(palaeo-economy)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처음 선사시대 생업연구를 위한 영역적 접근(a territorial approach)의 하나로 처음 유적의 입지를 중심으로 유적의 반경 5km 내에 경작이 가능한 토양의 비율 등을 가지고 유적자원활용분석(site exploitation analysis)을 통하여 유적에서의 생업유형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Higgs 외1972:27~36) 그리고 이후 Vita-Finzi에 의해 연구

가 진행되었고(Vita-Finzi1978:77, 137) 자원가용권분석법(site catchment analysis)으로 전개되었다(Flannery1976a:91~95).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인간의 합리적 행동기준으로서 에너지 효율의 법칙을 내세워 생업과 입지 선정에 있어서 사용된 에너지보다 얻는 수확으로 에너지가 크게 모든 인간이 행동한다는 20세기-21세기 서구연구자들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유적으로부터 반경 5km 범위의 일률적 면적을 상정하고 경작 가능한 토양의 비율분석을 하다가 5km 반경을 세분하여 유적으로부터 1km 반경의 경작 가능한 토양의 비중에는 100% 비율을 주고 2km에서 1km 반경의 구역은 80%의 비율을 부여하며 3km에서 2km 반경의 구역은 60%의 비율을 주고 4km에서 3km 반경의 구역에는 40%의 비율을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5km에서 4km 반경의 구역에는 20%의 비율을 부여하는 방식도 적용되었다(Rossmann1976:95~103). 그리고 지형과 강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한 시간 혹은 두 시간의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구역을 자원가용권분석법(site catchment analysis)도 검토되었다(Vita-Finzi1978:27, 137, 콜린 렌프류 외 · 이희준 옮김2006:264~265). 또 이것은 연역적으로 자원가용권분석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식량은 대부분 유적의 5km 반경에서 나오는 옥수수, 호박, 소금, 사슴, 멧돼지, 소나무, 아보카도 등 야생식물과 작은 사냥감 동물들을 가지고 생업에 의존하면서 유적에서 출토된 390km 떨어진 산지에서 온 흑요석제 유물, 27km 혹은 33km 떨어진 곳에서 온 자철광, 200km 떨어진 곳에서 온 조가비 등의 멕시코 와카카 산 호새 모고 때 유적에서 출토된 인공유물과 자연유물의 분석을 통하여 귀납적 자원가용권분석법이 제시되어 적용되기도 하였다(Flannery1976b:103~117, 콜린 렌프류 외 · 이희준 옮김2006:265, 이기길 1991993:172).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에 근거를 둔 유적입지분석과 생업 연구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하였고 가시권분석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에 근거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합리성과 행동원리는 지역성과 시대성을 무시한 도식적 시각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선사시대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기준과 행동양상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신고고학자와 과정주의고고학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유적의 입지에서 보이는 패턴 혹은 양상은 그 자체로 해석해야지 반드시 현대연구자의 합리성을 토대로 해석해서는 않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유적입지와 생업의 연구에서 현대인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의 행동 기준과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형식론적 입장(formalist position)과 선사시대사람들의 당시 지역적 문화적 맥락과 전통 속에서 그들의 문화적 법칙을 토대로 그들의 행동원리를 파악하여 그를 기준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실재론자의 입자(substantialist position)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인류학자의 현대연구자시각(etic perspective)과 원주민의 입장과 문화적 시각(emic perspective)와 대칭되며 고고학이론상 신고고학이나 과정주의고고학의 입장이 전자의 시각

(processual approaches)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자는 탈과정주의고고학의 입장(postprocesual approaches)의 입장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서구인의 합리성의 근거한 유적입지의 연구는 생업과 관련되어 70년대 이후 서구에서 유행되었고(Bailey1983:59~63, Torrence1983:11~22, Clark1983:96~110, Davidson1983:79~95, Jochim1976) 자원가용권분석법을 토대로 각 입지의 인구부양능력(carrying capacity)을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Zubrow1975). 사실 특정 취락의 입지와 환경의 지형적, 토양적 성격 등을 분석하여 부양 가능한 인구를 추정하려는 시도는 현대연구자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설정될 가정적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취락입지가 갖는 인구부양능력은 생업기술, 먹거리의 범위 확충(Kelly1995)과 요리기법, 먹거리의 저장방법, 그리고 종교적·문화적 금기사항<sup>1)</sup>을 포함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20세기 서구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연구는 많은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형식적 접근방법(formalist approach) 경향에 반대하여 생업중심의 입지연구 등 고고학연구를 탈피하고자 하는 사회고고학적 연구도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들어 증대되었고((Redman 외1978, Duke 외1995) 탈과정주의고고학에서는 고고학 연구에서 생업중심연구를 넘어 상징과 의미의 고고학연구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간 바 있다. 그런데 두 견해는 서로 모순되는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서로 다른 각도와 레벨에서 질문을 하는 연구시각으로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지에 대한 연구는 입지의 사전적 정의가 암시하듯이 생업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초기농경유적의 입지환경을 검토하면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을 중심으로 유적의 입지를 저지성 유형, 구릉성 유형, 고지성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농경을 중심으로 한 생업구조가 되면서 나타나는 농경유적의 입지변화 그리고 구릉성유적과 고지성유적의 출현 양상 그리고 성격에 대하여 유적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정정원1991:36~39). 그리고 일본연구자도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농경취락의 입지와 생업유형을 관련시켜 산간부의 하천 중·상류지역의 하천 주변의 곡류부와 합류부의 하안단구에서는 어로·수렵·채집이 적합하여 작은 취락과 지식묘가 분포하지만 상대적으로 좁아서 농경지를 확대하기 어렵고 농경사회로의 발전에 한계가 준

1) 먹거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 가는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선택이다. 예를 들어 흰 두교들은 아사상태에서도 소고기를 먹지 않으며 회교도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들 동물을 먹거리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지역적·시대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선택이기도 하다. 식물의 범위에서도 먹거리의 스펙트럼(범위)도 그러하다. 도토리는 먹기 어려운 것이지만 물에 담가서 탄닌 성분을 빼내서 묵으로 먹을 수 있어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먹거리 범위에 포함될 것이며 복요리는 복어알의 독성을 빼낸 후 먹어야 되는 것으로 요리법의 개발없이 먹거리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패총의 조개류가 기준에 대응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구황식품인가 아니면 맛을 내기 위한 기호식품인가의 시각에 따라 패총의 의미가 달라지며 자원가용권분석법에서의 유적입지가 갖는 생업환경과 해당 입지의 인구부양능력추정에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재하며 벼농사에의 의존도가 낮게 본 바 있다. 그리고 하천 종류부터 하류의 평야지대의 하안 단구와 강사이의 섬 그리고 작은 평야지대나 곡저평야에 면한 낮은 구릉에 입지하는 취락은 밭농사 및 벼농사를 위한 경작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농경사회발전의 중심지가 되었고 지식묘 이외에도 지역적·정치적 통합을 보여주는 청동기부장묘가 많다고 주장하고 반면 산정 상부에 입지하는 유적은 특수한 어떤 사정을 반영한 특수한 사례로 보았다. 그리고 해안지대에서는 농경을 전혀 하지 않는 어로민의 유적이 입지하지만 남해안의 경우 해상교역을 담당하는 하면서 내륙부의 농경취락과 연결된 경우도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後藤 直1994:285~302)<sup>2)</sup>.

신석기시대의 유적입지를 고려한 생업연구를 적용하면서 내륙-강가 자원을 활용하여 먹고 사는 암사동유적 사람들의 생업, 고래 등 먼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먹고사는 외해성 생업유형인 동삼동유적 사람들의 생업, 바다자원과 육지자원의 혼합하여 먹고 사는 오산리유적 사람들의 생업으로 나뉘어진 바 있다(이기길1993).

김현준은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를 구릉성유형, 저지성유형, 고지성유형, 해안성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생업의 특징을 연구하였다(김현준1996). 하천변의 저지성유형은 농경, 어로, 수렵이 골고루 행해졌고 구릉성유형은 농경이 주된 생업수단이었으며 고지성유형은 방어적 측면이거나 임시거주처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는 해안성유형에서 소평야의 구릉과 섬으로 구릉에 입지하는 취락의 경우 농경, 어로, 수렵을 병행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섬의 경우에는 어로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북한강유역을 포함한 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유형을 생업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있다(김현준2007, 2017).

안재호는 유적의 입지를 평지형, 산지형, 구릉형으로 분류하고 석부의 출토량을 근거로 농경의 형태를 추적하였다. 진주 대평리유적 등 평지형 취락에서 출토되는 타제석부를 굴지구조로 보고 평지형 취락은 밭농사가 중심이었고 천안 백석동유적 등 산지형 취락에서는 벌목용 합인 석부가 다수 출토되어 화전경작이 생업의 중심이었으며 부여 송국리유적과 같은 구릉형취락에서는 편인석부가 출토되어 목재농구의 제작을 위한 도구로 보고 구릉형취락에서는 생업의 수전경작이 중심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안재호2000:41~66, 2006:168~177).

최현섭은 한반도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선사취락의 입지에 따라 하천형, 구릉형, 해안형으로 구분하고 하천형은 자연제방, 하안단구, 선상지로 세분하고 입지로 선정된 주요 요소로 하천형은 물의 확보, 어로와 포획을 통한 경제성 요소와 방수문제 등으로 꼽고 하안단구는 홍수에 대한 안전성과 교통에서의 유리한 점 등의 요소가 선사시대 사람들이 입지로 선정한 요소로 보고 선상지는 용수 확보가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았다. 구릉형은 정상부와 능선과 사면으로 세분하고 중요입지요소를 물의 확보와 충적지와 관계가 중요 입지선정요소였다고 그는 파악

2) 고토 다사시(後藤 直)는 이 논문에서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한반도에서의 농경취락의 입지 변천을 다루고 있으며 해상교역을 담당하면서 내륙부의 농경취락과 연결된 경우는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양상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다. 해안형은 사주, 연안도서, 해안구릉 등으로 세분하고 해안형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입지 선정판단기준은 바다와의 관계이며 해안사구는 하천변 자연제방의 입지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최현섭1998).

울산지역의 경우 취락이 대부분 구릉에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릉을 구릉농성형과 구릉사면형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전작이 생업의 중심을 이루었고 후자는 수도작과 전작이 결합된 형태의 농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전자가 후자보다 채집, 어로, 수렵활동에 유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김도현 외2004:11~35). 지역적 양상으로서 대구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의 입지를 구릉지와 충적지로 분류하여 취락의 구조와 분포정형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하진호2008).

이수홍은 청동기시대 입지의 연구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 유적의 입지구분을 평지와 경사지로 크게 구분하고 평지는 충적지가 대표적이며 자연제방, 범람원, 배후습지와 하안단구가 포함되고 이들은 퇴적지형이며 이에 반하여 경사지는 구릉과 산지가 대부분이라고 구분하며 유적의 청동기시대 시기별 입지 변화를 추적하며 거점취락의 입지특징을 다룬 바 있다(이수홍2014:17~33).

이홍종과 손준호(2012:36~69)는 항공사진을 이용한 고지형분석법을 개발하여 당시의 고지형을 고려한 입지분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유적을 찾고 조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고지형에 대한 심화연구가 지속되어 취락유적과 논경작지 등 다양한 유구를 파악하고 그 입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홍종과 손준호는 한반도 남부지역 충적지 취락의 점유양상이 기후변동과 연동되는 것을 밝히면서 온난기에는 해수면상승에 따라 하천이 범람하게 되고 한랭기에는 범람의 걱정이 감소되어 선상지와 단구, 자연제방의 농경지 등으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환경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후(기온, 강수량, 바람 등), 지형분석(고도와 경사도, 경사면의 방향, 어로와 용수취득과 관련된 하천과의 관계), 지질 및 토양, 작물재배적지, 가시권 및 가시권역분석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주목을 끌었는데(허의행2013, 2014) 이 연구는 입지연구에 고려될 요소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에너지효율적 행동원리라는 합리성을 토대로 입지연구를 해온 자원가용권분석법 등 다양한 방법에 더하여 가시권분석도 다양하게 시도되고(강동석2021:130~163, 2023:34~66) 경관분석도 시도되어 유적입지에 대한 연구를 더 심화시키고 있음에 틀림없으나 가시권분석도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입지선정의 판단기준을 역시 현대인의 시각에서 어떤 면에서 도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에 대한 연구는 저지성, 구릉성, 고지성으로 분류된 이래 해안성이 추가되고 다양한 지형을 반영한 세부적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응하는 환경을 활용한 생업

유형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면서 다양하게 지속되고 있다(김권구2003, 김도현 외2004:11~35, 안재호2006, 김현준2007:59~82, 이형원2009, 2017, 허의행2013, 이종철2015, 박영구2015, 공민규 2013, 2014, 김권중2020). 패총의 입지를 고지 및 협지 유형(A형), 독립구릉 유형(B형), 산지에서 이어지는 구릉지 유형(C형), 해안가 유형(D형)으로 나눈 것은 이러한 다양한 입지선정의 요인을 유형별로 제시한 제기한 최근의 연구도 발표되었다(유병일2025:1~35). 또 고지성 환구 유적의 입지나 충적지입지유적 그리고 경작유구의 입지환경 등 유적의 유형별 고찰도 이루어진 바 있어서 유적입지 연구를 심화시킨 바 있다(김도현2010, 유병록 외2011:73~118, 김권구 2012:51~76, 이홍중 외2012:36~69, 허의행2013, 2021:4~30). 그리고 고지형의 분석을 통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입지선정기준을 더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시권분석을 통한 입지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고 있다.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를 주제로 한 이번 2025년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에 취락의 입지와 지형환경, 취락의 입지와 생업경제, 취락의 입지와 유통체계, 취락의 입지와 경관고고학적 해석, 취락의 입지와 사회구조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제 입지의 연구가 단순한 지형적 입지분류와 생업연구를 넘어 다양한 종류의 연과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 III. 청동기시대 취락입지의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

취락입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향 모색의 과제로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주요 과제를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청동기시대 취락입지의 새로운 연구방향의 모색은 서양고고학과 한국고고학에서의 기존 시각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취락입지를 선택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환경과 입지를 평가하는 일, 취락체계의 연계성 속에서 입지를 연구하는 일, 청동기시대 취락과 주변취락 그리고 유구와의 동시기성과 취락 안에서의 유구간의 동시기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 유적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한 입지상의 특성을 고려하는 일, 입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고지형의 복원강화, 다양한 입지선정변수의 지역성과 시기성을 연구 강화, 가시성연구의 장단점 보완시도 등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시각에 의한 연구시도 강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시각에 의한 연구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취락의 입지를 선정한 것은 청동기시대 사람들임으로 취락의 입지와 성격에서 나타나는 취락의 구조와 규모, 취락기능, 규

모, 다른 유적과의 연계성과 세계관, 출토유물의 양상 등에서 나타나는 정형성을 찾아 현대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인식적 틀 속에서 취락입지를 연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시각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단순히 현대연구자의 합리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또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현대서구인의 합리성을 제일성(齊一性 uniformitarianism)의 기준으로 삼고 청동기시대 사람들에게 지역과 시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일률적이고 도식적이며 전혀 타당하지 않다. 서구인의 합리성에 근거한 연구가 신고고학자와 과정주의고고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역적·문화적 법칙을 대신 찾아내어 각각의 맥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가 탈과정주의자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지금의 자원가용분석법(site catchment analysis)과 가시권분석은 기본적으로 신고고학자나 과정주의고고학자에 의해 주로 사용된 연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관분석은 탈과정주의자들에 의해 선호되어 채택되었던 연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학파의 시각은 어떤 면에서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입지에 대해 서로 다른 차원에 질문을 던져서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으로서의 입지선정과 문화양상이면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구축한 지속적으로 변화되던 동태성을 갖고 중층적 의미를 갖는 상징체계의 일부라는 점에서 서로 상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입지연구시각의 다각화와 폭넓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시각의 다각화와 광역화 그리고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형분류, 가시권분석 혹은 조망권분석, 고지형분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분석방법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 취락입지와 연계성 강화 및 관련 세계관의 고려 필요

취락을 포함한 유구와 입지 그리고 다른 유구와의 관계성은 모두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우주관 혹은 세계관과도 연계되어 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사는 장소와 묘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사실 일종의 인문지리학으로서 선사시대 이래 점차 형성된 나름대로의 인문·지리학적 지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입지도 지식묘의 입지 등 무덤의 공간, 생업의 공간, 의례공간, 저장공간, 거주공간 등 다양한 유구와의 관계성 속에 이루어졌고 당시 사람들의 자연지식과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 바다와 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만난다는 오세아니아 사람들의 인식방식(국립중앙박물관2025:15)은 단지 오세아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남서부의 아메리카 인디언의 인식방식에도 서로 다르지만 각기의 문화적 방식으로 구성되어 나타나고 있어서 민족지자료로 각 시대별 지역별 서로 다른 종족들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세계관이나 자연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자연관을 가지고 최대홍수시 잠기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등을 포함한 자연적 지식도 가지면서 취락의 입지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우리가 발굴했던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주와 세계의 조직화 방식은 시기별·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고 이것이 생업체계와 취락체계 그리고 취락입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취락입지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취락의 경관구성과 그 변화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취락의 입지와 관련하여 취락의 내부('on site')의 시각에서 취락의 구성요소, 취락의 시간적 변화로서 양적 변화(동시기 존재 주거지 수의 파악 등 취락의 규모)와 질적 변화(중심 취락과 하위취락, 생업활동지 등), 전문기능과 중점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구성과 구조(거주, 생업, 생산, 획득, 분배, 소비, 폐기 등)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락 외부('off site')에서의 시각에서 주변환경과의 관계, 생업활동, 자원분포, 주변 환경의 개발, 주변 캠프사이트, 경관과 교통 등의 가시권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락 간의 관계(inter site)에서 바라본 시각에서 중심취락과 하위취락 등의 취락규모와 구조 그리고 관계, 활동거점의 연결망, 인적교류망, 물적교류망 등 취락 사이의 상호작용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각적인 시각에서 복합적으로 취락과 취락의 입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생업을 넘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진해 웅천유적, 김해 회현리패총, 김해 봉황대유적, 양산 다방리유적, 창원 가음정동 및 성산패총 등 가야의 패총을 중심으로 환호, 주거지역, 구, 무덤지역, 패총구역 등으로 세분하며 패총관련 취락의 입지와 공간구성 및 배치양상을 검토하고 또 가야의 패총은 단독으로 생겨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취락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취락의 입지와 패총의 입지를 종합하여 검토하기도 하였고 패총의 성격을 작업공간과 의례행위의 장소로서의 성격도 있음을 지적한 연구도 이루어진바 있다(유병일2025:1~35). 이러한 시도는 취락의 입지와 주변의 유구를 종합적으로 연계시켜 바라보려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 3. 취락 내외 유구와의 동시기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 심화

취락입지의 연구에 있어서도 연계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유구 사이의 동시기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를 위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동시기성 기준의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논의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동시기성 확보 없는 취락과 주변취락의 관계 등의 논의는 공허한 가정적 논의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 4. 기술수단과 교통수단의 변화의 고려

취락의 입지와 관련해서 기술수단과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라 입지환경이 변화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구한말까지 이어지던 낙동강하류 소금유통과 관련하여 낙동강 나룻배 물류체계가 중심적 역할을 했는데 1905년 경부선 철도개통 후 무너졌으며 충남 강경시장의 성장과 쇠퇴는 해안 물류체계가 내륙하천물류체계와 연계되는 것과 배후시장의 성쇠와 관련한 교통로와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또 연안 항해 항로를 둘러싼 교류 상의 갈등이 극도유적의 입지선정과 성장 그리고 폐기에 영향을 준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교통수단과 선박기술 등의 운송수단의 변화가 취락의 입지선정과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의 취락입지와 중심취락의 성장 등에서도 생업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생업을 넘어 상징과 의미체계 일부로서 취락입지의 이해노력강화

입지의 연구는 그동안 지형의 유형을 저지성, 구릉성, 고지성 등으로 구분한 후 그 지형을 더 세분하여 취락유형과 환호취락 등 중심취락의 등장 등을 다루고 있고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취락의 입지와 교통로, 유통, 경관고고학적 해석, 사회구조, 네트워크 등 사회고고학적 요소도 이미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주로 취락의 입지와 생업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연구해왔는데 앞으로 오늘 발표된 사례처럼 고경제학파나 신고고학 또는 과정주의고고학의 생업중심의 연구를 넘어 입지의 상징과 의미체계의 다양성과 중층성을 고려한 취락입지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입지의 상징과 의미가 생업기술 등의 기술변화와 생업체계변동 및 그와 연계된 사회변동에 따라 재해석되어 변화되는 동태적 과정을 이해하고 취락의 성장과 쇠퇴에 따른 복합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합천 영창리유적이거나 경주 화천리유적, 안성 반제리유적 등 고지성 환구유적과 같은 유적의 입지와 그 상징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고지성 환구유구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입지와 상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또 수전유구와 같은 경작지의 입지변동양상도 생업기술발달과 더불어 그들의 의미와 상징체계의 틀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 6. 환경의 변화와 취락입지변동양상의 심화연구 및 고환경연구의 활성화

청동기시대 취락입지가 온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범람위협이 적은 한랭기 때 낮은 저지대로 확장된다는 연구(이홍종 외2012:36-69)는 기후변동에 따른 해수면변동의 파급효과에 관련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유프라테스강 수로의 변화에 따라 취락의 분포양상도 변화된 바 있어서 고환경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며 고환경연구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 7. 통시적 연구와 광역적 연구의 강화

입지연구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변화되는 입지양상의 변화와 지역적 다양성을

동태적인 과정을 시간적 범위 속에서 통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특정한 시기의 양상만을 가지고 특성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통시적인 틀에서 지역적 입지양상의 전통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입지연구에서 소지역별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소지역별 입지와 생업 그리고 사회의 양상이 동일시기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광역적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해안지역, 울산지역, 한강지역, 호서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지역별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는데 좀 더 공간적 범위를 넓혀서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고 변화과정을 추적하며 특정방식으로서의 변화요인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학제적 협력연구의 강화

취락의 입지연구도 역시 다각화 광역화 그리고 연구범위확대가 필요함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이 더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고지형분석, 가시권분석, 고기후분석, 고식생분석, 해수면변동연구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리학, 지질학, 식물학, 동물학, 고환경학 등 다양한 관련분야와의 학제적 협력과 공동연구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들 분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만 청동기시대의 입지가 그 자리로 정해진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고학자 혼자서 풀기 어려운 경우 인접 학문과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 인접국가 연구자들과의 상호교류활성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 IV. 맺는말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연구는 입지형태의 세분과 더불어 세부지형별 생업유형의 전개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다가 취락입지와 관련된 생업연구를 넘어서 취락의 입지와 교통로, 유통, 경관고고학적 해석, 사회구조, 네트워크 등 사회고고학적 요소도 고려하며 연구영역을 넓히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입지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취락입지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지형분류와 생업, 자원가용권분석, 가시권분석, 고환경분석 등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진 바 있다.

앞으로의 취락입지에 대한 연구방향으로서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시각에 의한 연구시도 강화, 취락입지와 연계성 강화 및 관련 세계관의 고려 필요, 취락의 내외부 유구간의 동시기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심화, 기술수단과 교통수단의 변화의 고려, 생업을 넘어 상징과 의미체계 일부로서 취락입지의 이해노력강화, 환경의 변화와 취락입지변동양상의 심화연구 및 고환경연구의 활성화, 학제적 협력연구의 강화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상의 과제이

며 성공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데에는 고고학자의 열린 마음과 먼저 다른 인접 관련학문에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동석, 2021, 「보성강·탐진강 유역 지식묘사회의 변동 양상-지석묘의 분포, 구조,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29:130~163.

\_\_\_\_\_, 2023,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경관-진주 대평리·평기동·초장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32:34~66.

공민규, 2013, 『청동기시대 전기 금강유역 취락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4, 『청동기시대 전기 호서지역 취락 연구 II』,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4, 서경문화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25, 『마나 모아나-신성한 바다의 예술, 오세아니아(Mana Moana-Arts of the Great Ocean, OCEANIA)』.

김권구, 2003,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생업과 사회』,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에 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6:51~76.

김관중, 2020,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도현·이재희, 2004,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에 대한 검토-생업과 관련하여-」, 『영남고고학』 35:11~35.

김도현, 2010, 『영남 지역의 원시·고대 농경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김현준, 1996,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조건을 통해서 본 생업 연구-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7,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에 대한 검토-생업과 관련하여-」, 『강원고고학보』 10호:59~82.

\_\_\_\_\_, 2017, 『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중서림편집국, 2001, 『에센스 국어사전』 (제5판 전명 개정판 이희승 감수), 사전전문 민중서림.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재호, 2000,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41~66.

\_\_\_\_\_, 2006, 『한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병록·이보경, 2011, 「충적지유적의 입지분석과 활용」, 『아외고고학』 10:73~118.

유병일, 2025, 「가야시대 조개무지의 입지와 기능 및 용도」, 『조개무지. 층층이 쌓인 가야의 기억』 (제30회 가야사학술회의 자료집),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1~35.

이기길, 1993,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과 살림-압사동·동삼동·오산리유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이수홍, 2014, 「제1장 취락의 입지」,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취락』, 김권구·공민규 편, 서경문화사:17~33.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체제와 발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형원, 2009, 『한국 청동기시대의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홍중·손준호, 2012, 「충적지 취락의 지형환경」, 『영남고고학』 63:36~69.

정징원, 1991, 「初期農耕遺蹟の立地環境」, 『日韓交渉の考古學-彌生時代篇』, 六興出版:36~39.

최현선, 1998, 『한반도 중·서부지역 선사취락의 입지유형』, 경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콜린 렌프류·폴반 지음/ 이희준 옮김, 2006, 『현대 고고학의 이해』, (주)사회평론, 서울.

허의행, 20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4, 『청동기시대 전기 호서지역 취락 연구 I』,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3, 서경문화사, 서울.

\_\_\_\_\_, 2021, 「청동기시대 논 경작지의 입지 환경과 관계 체계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8:4~30.

하진호, 2008,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後藤直, 1994, 「朝鮮半島原始時代農耕聚落の立地」, 『第四紀研究(The Quaternary Research)』 33(5):285~302.

Bailey J., 1983, 'Part Two: Spatial organization of the subsistence economy-Editorial', in (Ed.) Bailey G., *Hunter-Gatherer Economy in Prehistory-A Europe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59~63.

Clark G.A., 1983, 'Boreal phase settlement/subsistence models for Cantabrian Spain' in (Ed.) Bailey G., *Hunter-Gatherer Economy in Prehistory-A Europe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96~110.

Davidson I., 1983, 'Site variability and prehistoric economy in Levante' in (Ed.) Bailey G., *Hunter-Gatherer Economy in Prehistory-A Europe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79~95.

Duke P. and Wilson M.C.(eds.), 1995, *Beyond Subsistence-Plains Archaeology and the Postprocessual Critique*,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Tuscaloosa and London.

Flannery K.V. (ed.), 1976a, 'Chapter 4 The village and its catchment area' in Flannery K. V. (ed.)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Academic Press, Inc., New York:91-95.

\_\_\_\_\_, 1976b, 'Empirical determination of site catchments in Oaxaca and Tehuacán', Flannery K. V. (ed.)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Academic Press Inc., Inc., New York:103-117.

Higgs E.S. and Vita-Finzi, 1972, 'prehistoric economies: A territorial approach' In (Ed.)Higgs E.S., *Papers in Economic Prehistory-Studies by Members and Associates of the British Academy Major Research Project in the Early History of Agriculture*,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27~36.

Jochim M.A., 1976, *Hunter-Gatherer Subsistence and Settlement- A Predictive Model*, Academic Press, Inc., New York.

Kelly R.L., 1995, *The Foraging Spectrum-Diversity in Hunter-Gatherer Lifeway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and London.

Redman C.L., Langhome, Jr. W.T., Berman M.J., Versagi N.M., Curtin E.V., Wanser J.C.(eds.), 1978, *Social Archaeology-Beyond Subsistence and Dating*, Academic Press, Inc., New York.

Rossmann D.L., 1976, 'A site catchment analysis of San Lorenzo, Veracruz' in Flannery K. V. (ed.) *The Early Mesoamerican Village*, Academic Press, Inc., New York:95-103.

Torrence R., 1983, 'Time budgeting and hunter-gatherer technology', in (Ed.) Bailey G., *Hunter-Gatherer Economy in Prehistory-A European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11~22.

Vita-Finzi C., 1978, *Archaeological Sites in their Setting*,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Zubrow E.B.W., 1975, *Prehistoric Carrying Capacity: A Model*, Cummings Publishing Company, Inc., Menio Park, California.

## 제1 발표

# 지형과 유적 입지 특성

허의행(수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I. 머리말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단순한 자리 선택이 아니라, 당시 집단의 생계경제와 사회 조직, 환경에 대한 적응 전략을 반영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지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지형 형태를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이를 연구 주제로 확장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본 발표자는 국가유산청 GIS 인트라넷<sup>1)</sup>과 한국고고학 전문사전(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등에 수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 5,530개소를 추출하여, 전국 17개 시·도별로 나누어 지역별 유적의 지형적 입지 특성을 분석하였다<sup>2)</sup>.

분석 지표는 유적이 자리한 고도, 경사도, 향(방향), 상대고도, 접근성, 고도분포곡선 등의 지리 정보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GIS를 활용한 지형 분석과 통계적 군집분석, 공간분포 분석 등을 보조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취락과 무덤, 생산·의례 유적이 선호한 지형을 분류하고, 유적 성격별 지형적 입지 선호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는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갖고 진행하였다. 첫째, 전국 단위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를 집계하여 거시적 지형 입지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각 시·도별로 유적의 고도·경사·하천 접근성 등의 지리정보를 비교하여 지역마다 나타나는 입지 선호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구릉·사면·충적지·해안 등 지형 유형별로 생활유적·무덤유적·생산유적·의례유적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미흡했던 지형 입지 연구의 대표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청동기시대의 지형환경을 이용한 입지 특성의 기초 자료를 어떻게 접근하여 연구해 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번 발표는 지역별 지형 특성과 유적 입지의 지형 선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큰 틀의

1) <https://intranet.gis-heritage.go.kr/>

2) 전국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 유적 개소를 일일이 분석하기보다는 국가유산청 인트라넷 서비스에 제공된 청동기시대 자료와 한국고고학 전문사전의 유적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지형 입지 특성을 파악하였다.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향후 청동기시대뿐 아니라 다른 시기의 유적 입지 연구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발표는 전국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지형 입지를 파악한 것이어서, 지역 내 개별 유적의 입지 특성에 대한 미시적 내용과는 차이가 분명하다. 이는 차후의 지역별, 개별 유적에 따른 입지 논의로 재차 이어져야 할 것이다.

## II. 유적 입지의 지역별 특성

유적의 지형 특성에 기인한 입지 연구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지 연구는 보고서나 논문 등에서 간단한 지형 형태와 여기에 자리한 입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를 실제 연구 주제와 내용으로 확대된 사례가 거의 없다. 물론 2010년 초반부터 확대된 층적 지형에서의 유적 조사가 증가하면서 이 지형에 한정된 연구가 집중된 바는 있다(윤호필 2010; 장우영 외 2010; 유병록 · 이보경 2011; 이홍종 · 손준호 2012). 당시의 지형 환경은 전반적인 층적지형의 형태와 유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지만, 세부적인 지형과의 관계, 지형 형성의 관점에서의 입지 특성을 도출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는 지형과 유적 입지와의 관계성 분석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입지 분석의 특성상 거시적 차원의 환경적 요인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본격 논의에 앞서 현재까지의 지형 입지 환경 연구의 지리적, 지형적 입지 특성의 연구 접근을 지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 · 경기권의 청동기시대 입지 연구인데, 전기 취락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주목된다. 여기서 취락의 입지는 대체로 해발 75m 이하의 낮은 구릉과 완만한 경사(약 7° 이하)를 선호하며, 국가 · 지방하천에서 0~2.7km 범위에 자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보면서, 지리적 환경의 접근을 입지와 같아 보았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는 지역 내 문화유형 · 지형 차이보다 취락 규모와 토양 생산성이 생활도구 구성(수렵 · 목가공 · 수확구 등)에 더 큰 차이를 낳는다는 분석을 제시하면서, “입지가 생계 방식이다”라는 단순 연결을 지양하고, 토양과 취락 규모 같은 생활 조건을 함께 볼 것을 언급하였다(이미형 2023). 필자 또한 입지와 생계방식을 연결하면서 주변 토양과 분포지형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어(허의행 2007) 지형 입지 연구에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식이 증대되어 가는 것 같다.

충남지역에서는 입지 연구가 상당부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발표자도 아산만 일대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입지를 지리적 환경에서 접근하여 가시권과 하천과의 관계를 통해 생업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유적의 입지를 강조하였다(이홍종 · 허의행 2010). 이외의 연구는 대체로 지리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한 사례가 많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입지 연구가 대표적인데,(박지훈

· 오규진 2009, 2010) 천안천 유역의 입지를 세 유형(계곡 바닥 · 완만사면 / 산록부 / 능선 · 상부사면)으로 나누고, 최적 조건은 경사 약 7°, 표고 약 65m 내외로 제시하면서, 입지에서 1차 결정요인은 ‘경사’와 ‘하천까지의 거리’, 2차 요인은 ‘표고’와 ‘상대 높이’로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부 입지 성과가 나타나는데, 아산 용두 · 온양천 유역을 55개 미지형(사면의 세부 지형)과 경사 등급으로 교차 분석하여, 능선부를 완만 경사 · 평탄지와 사면 상부의 완만 경사대가 있는 최적 지대를 확인하여, 대략 6~10° 범위의 완경사지가 취락의 입지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파악한 사례가 있다(박지훈 · 박종철 2011). 구릉지형에서의 입지 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울산권에서 상기한 충남지역의 입지 연구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 유역의 취락 유적들은 대체로 평균 고도 약 52m, 평균 경사 약 7°, 남서향(따뜻하고 바람을 덜 받는 방향), 하천까지 평균 수평거리 약 613m, 상대 높이 약 11m에 입지하는 것을 파악하였고,(이한동 · 김교원 2011) 태화강 본류에서는 취락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확산하는데 이는 농경 정착의 심화와 연동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취락들은 배산임수와 남향의 안정된 곳에 입지한 것이 뚜렷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구영리 일원에서는 곡류 하천의 사주(모래톱) 발달과 넓은 층적평야가 결합해 대규모 경작지와 주거의 공존이 가능했던 점이 지적하였다(우찬희 2015). 그리고 이러한 취락들은 동천 합류부 반경 2km 내로 취락이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되어, ‘큰 물길의 만나는 곳’을 생활 거점으로 이용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경남 지역에서도 유사한 연구사례가 있다. 남강의 범람원과 층적대지에 대규모 취락이 집중하는 양상은 ‘휴암리형(남강 범람원형)’과 ‘울산형(구릉 정상 · 사면형)’의 동시 공존을 가져온 결과처럼 인식하였다. 특히 휴암리형은 평야 · 하안단구를 활용한 대형의 취락을 정착지로 삼고, 울산형은 구릉선상에 입지하면서 분산된 취락을 가져오게 하므로, 입지적 특징이 뚜렷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배덕환 2007).

호남지역에는 섬진강 본류역으로 송국리 단계에 이르면 층적대지와 소하천 단구를 따라 주거군이 중 · 횡열로 계획적으로 배치되고, 일부 취락에서는 환상열 주거+광장 구조가 확인된다. 이는 중형급 이상 주거군에서 공간 기획과 공동 공간의 도입이 이루어진 사례로 파악하였다. 또한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을 구분하는 석렬 등 ‘영역화’ 장치가 확인되어, 취락 내부 기능 구획이 진전되었음을 보여주었다(이종철 2015).

남해안 일대에서의 입지 환경을 접근한 사례도 있다. 해남 백포만 일대의 청동기시대 취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일대는 산 · 구릉 · 하천 · 해양자원이 한데 모이는 지형으로, 독립된 낮은 구릉의 경사(조망권이 넓고 길목을 장악)와 인접 층적지(농경 적지)가 결합된 입지를 선호했음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입지에 자리한 지식묘와 취락 분포를 보면 서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족공동체가 동일 구릉에서 여러 주거군을 나란히 두고 공동 무덤을 공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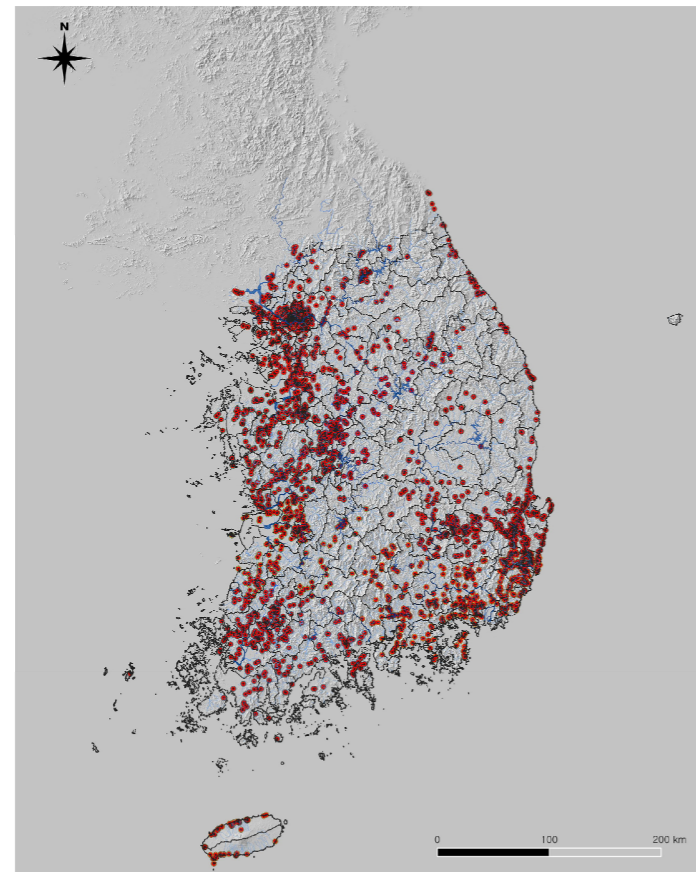
‘작은 마을’ 경관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김진영 2023).

이처럼 많지는 않지만 연구자들마다 지역별 연구과정에서 지형 입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은 명확하다. 공통적인 견해는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는 지형 지세가 좋은 구릉과 충적지형을 선호하고, 하천과의 관계가 뚜렷해야 하는 등, 각 지역마다 공통적인 지형 입지가 있고, 유적의 성격에 따른 분포는 나름 지역별 지형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 Ⅲ. 유적과 지리·지형 환경

상기한 입지에 대한 연구성과 등은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금 더 지역별로 확대해서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을 일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청동기시대 유적은 국가유산청의 GIS 인트라넷에서 현재까지 약 5,530개



〈그림 1〉 청동기시대 유적분포

정도 확인된다. 유적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1,170개(21.2%)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며, 이어서 경상북도 617개(11.2%), 충청남도 556개(10.1%), 경상남도 505개(9.1%)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1>.

권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은 전체 유적의 31.3% (1,731개)로 높은 집중 현상을 보이며, 이 지역의 대체적인 지형적 특성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며, 유적은 충적평야 부근에서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물론 이 일대는 도심지가 상당히 이루어진 현상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영남권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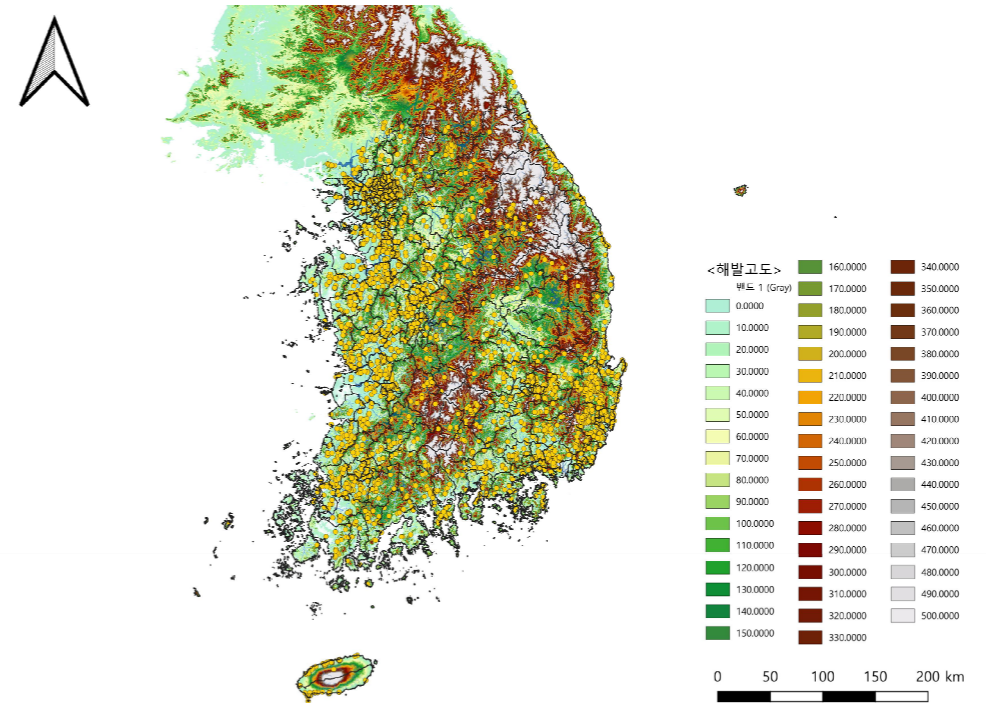
(경북, 경남, 울산, 대구, 부산)은 전체 유적의 36.9% (2,039개)정도 확인된다. 대체로 낙동강 유역과 동해안 일대로 유적이 집중되어 확인되는 양상인데, 이곳에서의 지형 특성을 활용한 입지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충청권 지역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은 전체 유적의 15.5% (859개) 정도가 분포한다. 대체로 금강 유역의 구릉지대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호남권 지역 (전남, 전북, 광주)은 전체 유적의 12.9% (711개)가 분포하는데, 영산강 및 만경강 유역의 지형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적의 분포현상은 전체적인 양상만을 볼 수 있고, 다른 시대의 유적과 동일하게 집중된 개발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본 발표가 유적의 지형적 양상을 통한 입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모든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 1. 지리환경(그림 2~3)

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곳의 지형의 구체적 모습을 살피기에 앞서 지리적 모습과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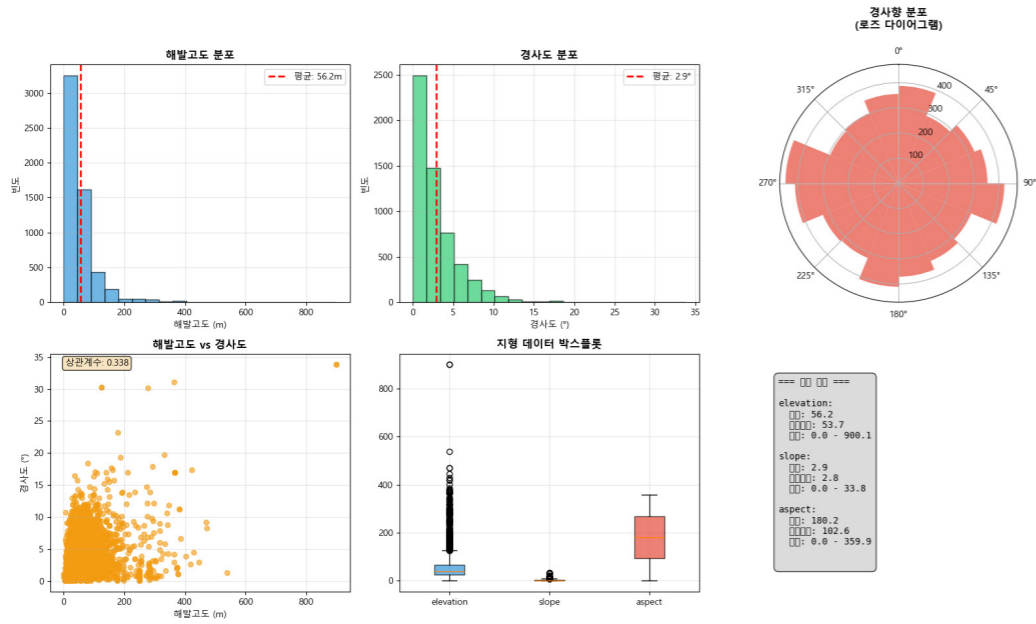
##### 1) 전체 고도 분포

유적의 고도 분포를 보면, 전체 5,530개 유적의 평균 고도는 55.4m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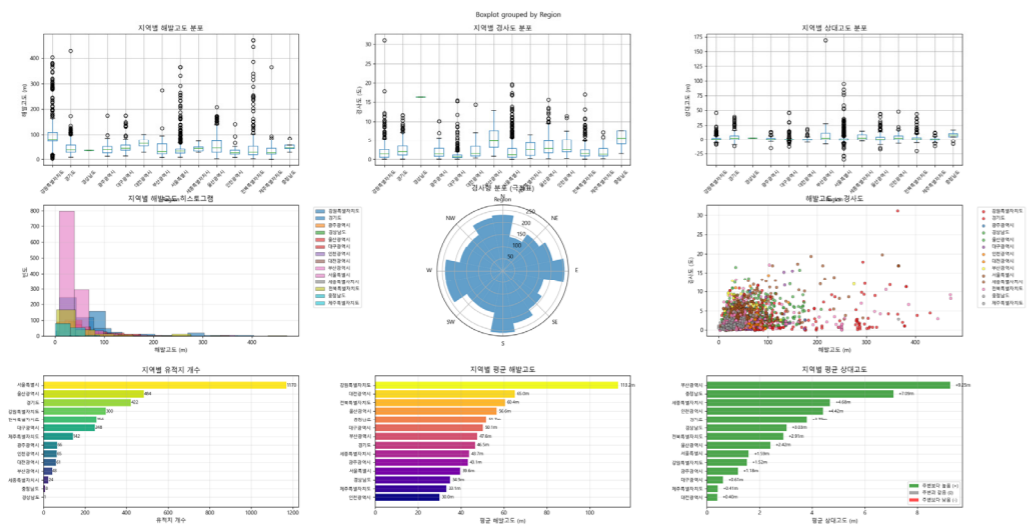


〈그림 2〉 청동기시대 유적과 해발고도 분포

지형 데이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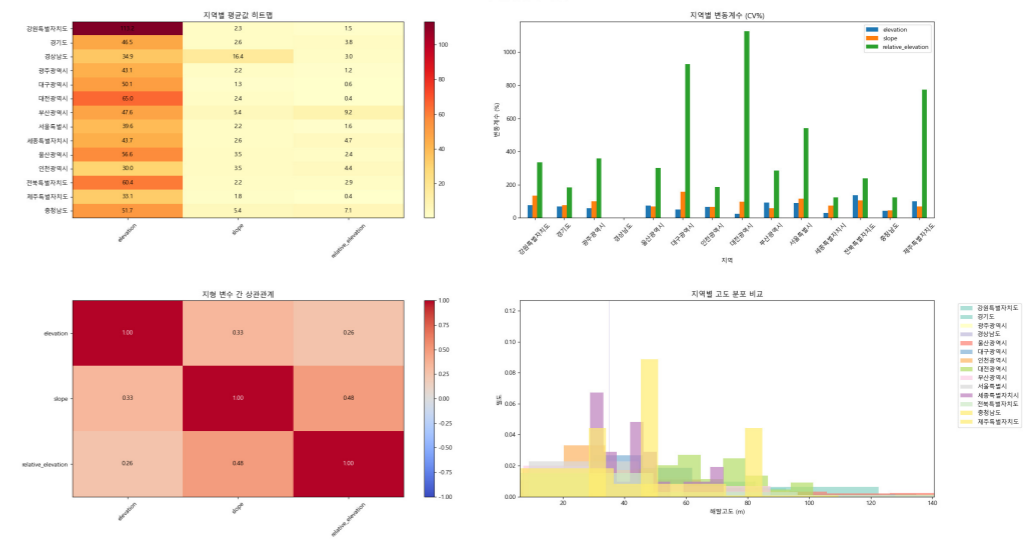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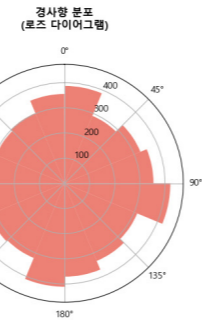


〈그림 3〉 청동기시대 유적의 지리 환경



〈그림 4〉 지역별 청동기시대 유적의 지리 환경

이는 한반도의 평균 고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대지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28.3m로 가장 낮은 평균 고도를 보이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113.2m로 가장 높은 평균 고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간 편차가 상당하지만 각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청동기시대 집단의 환경 적응 전략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 지역별 고도분석과 변동계수

해발 고도 분포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세 가지 뚜렷한 유형을 볼 수 있다. 첫째는 낮은 해발고도를 갖는 지역 유적군으로( $\leq 50m$ ) 서울(39.6m), 인천(28.3m), 충청남도(43.0m), 경기도(46.7m) 등의 지역이 그러하다. 이 지역들은 주로 대하천 유역의 충적평야와 하천 주변 저지대를 중심으로 유적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는 중간고도형(50-80m) 지역 유적군으로 경상북도(75.9m), 울산(56.6m), 경상남도(53.9m), 전북특별자치도(68.6m) 등 6개 지역이 속한다. 이 지역들은 구릉지대와 완만한 산록지형을 활용하는 모습이 많다. 셋째는 고지대형( $>80m$ ) 지역 유적군으로 강원특별자치도(113.2m)와 충청북도가 해당한다. 이 지역들은 산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의 지형 특성을 보인다.

2) 경사도

유적의 평균 경사도는 2.89°로 매우 완만한 지형을 선호한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1.32°로 가장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부산광역시가 5.43°로 가장 급한 경사도를 보인다. 이러한 경사도의 차이는 각 지역의 지형적 제약과 함께 생계 경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유적을 향하는 지형의 경사도가 낮은 점은 저지대로의 접근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기에, 농경에 최적화된 조건과 연관되는데, 실제로 대구, 전북, 서울 등 평탄한 지형이 많은 곳에서 이러한 경사도 조건이 뚜렷하다. 물론 경사도가 그러한 조건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징적인데 평균 고도가 113.2m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도는 2.28°로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이는 고원 지형의 특성상 충적지형과 같은 낮은 대지를 주로 이용하는 입지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반면 부산광역시에는 해안 산지의 영향으로 가장 급한 경사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많은 편이어서, 지역별 지형 특성에 맞춘 입지 선택을 생각할 수 있다.

### 3) 고도분포곡선(Hypsometric Curve) 분석

고도분포곡선 분석은 청동기시대 유적의 지형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분석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구간 1에 해당하는 저지대(충적평야)에 전체 유적의 60.4%인 1,988개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의 유적이 포함되어 과표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강 유역 충적평야 지대가 청동기시대에 중요한 자리로 잡았음을 보게 한다.

그 다음으로 구간 3에 해당하는 구릉 중부로 535개(16.3%)의 유적이 분포한다. 실제 지형분석을 실시하면 충적지형보다 가장 많은 유적이 나타나는 곳이다. 당시 홍수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농경지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배수와 일조량이 우수하여 가장 많은 청동기시대 유적이 정착한 장소로 볼 수 있다. 한편, 구간 5의 산지 하부에도 721개(21.9%)라는 상당수의 유적이 분포한다. 접근성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방어나 특수 목적을 위한 취락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처럼 다양한 고도 분포는 청동기시대 사회가 단순히 농경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취락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적 정주 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 4) 하천 거리 분석(그림 6)

이러한 유적들은 하천 접근성에서 뚜렷한 거리 선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유적의 90%가 하천으로부터 1.408km 이내에 위치하며, 중앙값은 약 0.5km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단순한 구릉과 곡간천과의 관계로 보면 자연스런 현상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점은 의도적인 입지 선택에서 하천의 중요성을 살피고 있다. 특히 100-500m 구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는 있다는 것은 홍수 위험을 회피와 함께 일상적인 물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려는 당시 취락의 실용적 전략을 반영한다.

거리 구간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km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유적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도보로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실질적 한계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의 거리는 일상적 활동 반경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천 차수별 분석에서 1차 하천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전체 유적의 95.1%가 1차 하천 인근에 분포하는 현상은 단순히 1차 하천의 수적 우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패턴은 소규모 하천이 제공하는 특별한 이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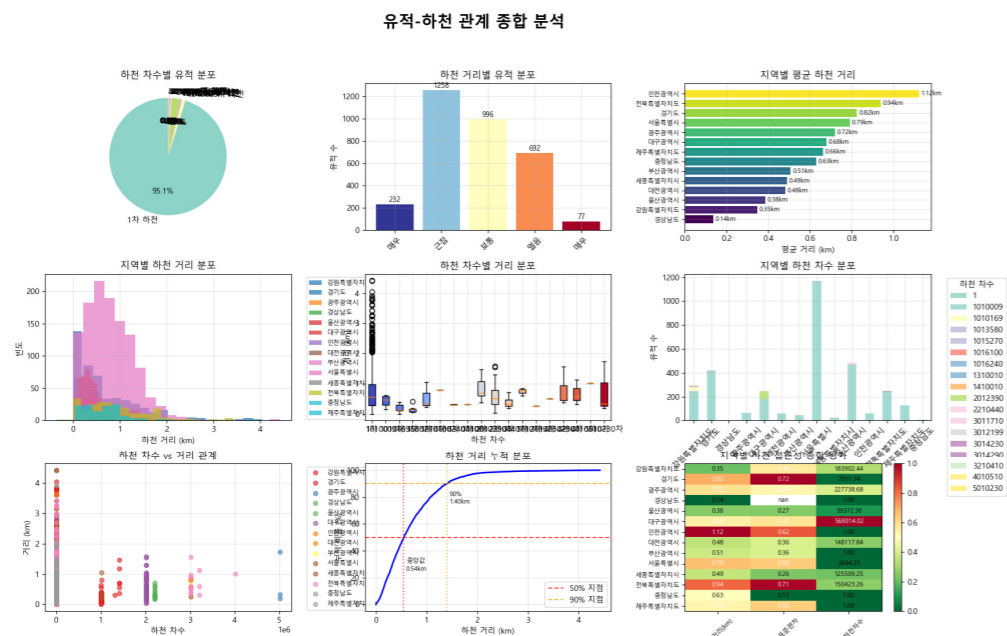
2-3차 이상의 대규모 하천에 대한 상대적 기피 현상은 홍수 위험, 하천 횡단의 어려움, 그리고 대규모 치수 기술의 부재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기술적 제약 하에서 최적의 생존 전략을 추구한 당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전반적인 하천 지형의 이용과는 또다른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전라남도(1,247개), 충청남도(996개), 경기도(692개) 등 주요 지역 간 유적 수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하천 접근성의 평균값은 한반도 서부지역의 지형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체로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고 균일한 편이다. 모든 지역에서 평균 하천 거리가 0.5-1km 범위에 수렴하는 현상이 그러하다.

### 5) 접근성 지표 분석(표 1)

이러한 지리적 분석과 함께 살펴볼 것이 상대고도와 하천의 분석 등을 종합한 접근성 지표(Ease of Accessibility)이다. 지형의 통행 용이성과 취락 간 연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경기도(0.157)와 충청남도(0.144)가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이는 것으로

3) 안정성 수확확보와 어로 활동 등의 여러 이점을 생각하면 더 큰 하천 근처로 입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홍수 위험의 최소화, 소규모 관계 가능성 등의 경제적 활동면에서는 오히려 1-2차수 하천과 인접한 구릉 지형에서의 입지가 더 유용하였을 것이다.



(그림 6) 유적과 하천과의 관계

〈표 1〉 지역별 주요 지리 환경의 평균과 접근성 지수

지역	평균고도(m)	평균경사(°)	접근성지수
서울특별시	39.6	2.25	-0.081
경상북도	75.9	3.77	-0.519
충청남도	43.0	3.25	0.144
경상남도	53.9	3.45	-0.489
전라남도	46.8	3.56	-0.467
전북특별자치도	68.6	2.14	-0.110
광주광역시	41.2	2.25	-0.170
강원특별자치도	113.2	2.28	-0.224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은 평야와 구릉지가 넓게 분포하는 전이지대에 위치하기에 다양한 생태 환경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취락 간 교류가 용이한 조건으로 자리잡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높은 접근성은 서해안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청동기시대 교환 네트워크의 발달과 지역 간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장소로서 작용하였다는 연구성과들과 관련된다.

반면, 경상북도(-0.519)와 경상남도(-0.489)는 가장 낮은 접근성 지수를 나타낸다. 경상북도의 경우 강원도 산지와 연결되는 지형적 특성이 고려되지만, 경상남도의 지수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북지역과의 연결성, 그리고 남해안의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한 외부적 교류가 낮은 가능성이 있고, 산지에서 구릉지와 평야지대로의 전이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모습과도 관련된다. 마찬가지로 전라남도(-0.467) 역시 낮은 접근성을 보인다. 위 두 지역은 지형의 특징이 뚜렷이 다르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산지성 지형의 존재로 인한 낮은 접근성, 전라남도는 해안의 조수간만에 의한 지형 변화의 낮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6) 변이계수 분석(그림 5)

변이계수(CV)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지형 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확인되었다. 높은 지형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고도 CV=129.5%)와 제주특별자치도(고도 CV=108.3%)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다양한 고도대에 유적이 분포하여 평야, 구릉, 산지 등 다양한 생태 환경을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북 지역의 높은 지형 다양성은 서해안의 해수 침수,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평야지대, 노령산맥, 소백산맥의 산지가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며, 이는 농경, 목축, 수렵, 어로채집 등 복합적 생계 전략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낮은 지형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고도 CV=47.1%), 대구광역시(고도 CV=48.9%), 서울특별시(고도 CV=89.1%) 등이 있다.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고도대에 유적이 집중되어 있어 특정 지형 조건을 선호했음을 보여준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 분지 지형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제한된 고도대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서울의

경우 한강 유역 충적평야라는 최적 조건에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균일한 입지 선호는 해당 지역에서 특화된 경제 활동, 즉 집약적 농경의 선호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편중적 조사와 분석, 해석일 수 있지만, 상기 지역들에서 경작지형의 존재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변이계수는 높은 지형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생태 자원을 활용하는 일반화된 적응 전략을, 낮은 지형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특정 자원에 집중하는 특화된 적응 전략이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거시적 접근이라는 점이지만,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변이계수의 특징을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2. 지형 환경

이러한 지리적 환경을 통해 거시적인 지역별 환경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지형 형태에 따른 입지 특성을 접근하고자 한다.

### 1) 지형 환경 분석 방법

청동기시대 유적과 지형의 입지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발표에서는 보고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한 분석보다는 앞서의 지리 환경 분석과 마찬가지로 경향성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할 것이다. 지형 입지의 파악은 최근까지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고고학사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유적과 지형의 관계, 지역별, 유구 성격별 입지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유적과 입지의 상관관계 파악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통계적 접근을 진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먼저 유적명, 시도, 유적 성격(텍스트 키워드), 그리고 지형·입지를 찾기 위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지역별 비교를 위해서는 시도단위로 정규화된 텍스트를 찾았는데, ‘경기도/경기’, ‘부산광역시/부산’ 같이 정식·약식 표기 모두를 통일하였고, 문서에 직접 표기가 없으면 유적명·입지 문장에서 다시 추정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입지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필자별 유적을 바라보는 입지적 특징이 반영되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지형 입지는 몇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의 텍스트를 추출하였다.

입지 분류(카테고리)는 *Hills/Ridges* = 구릉, 능선, 정상부, 언덕

*Slope/Footslope* = 사면, 산록(산의 아래쪽)

*Plains/Terrace* = 평탄지·평야·분지(평평한 곳)

*Valley/Alluvial* = 계곡·충적지(하천이 쌓아 만든 평지)

*River/Streams* = 하천·강·하구(강의 입구)·삼각주

*Coast* = 해안·해변

*Elevation-noted* = “해발 000m” 등 고도만 언급된 경우

이렇게 정리된 텍스트 마이닝은 최종적으로 지역(시도)과 입지, 유적 성격과 입지에 대한 표와 그래프로 정리하였다. 물론 상기한 텍스트 추출이 일관되거나 명확하게 추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아마도 사전과 필자의 문장 구성과 작성에 있어서 같은 유적의 여러 번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 대체로 제목에 따른 건수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기준 집계를 바탕으로 시도 등의 지역명과 입지를 파악하여 전수 조사하였다. 물론 일부 추출에 어려운 결과 등은 없음/알수 없음(Unknown/Unclassified)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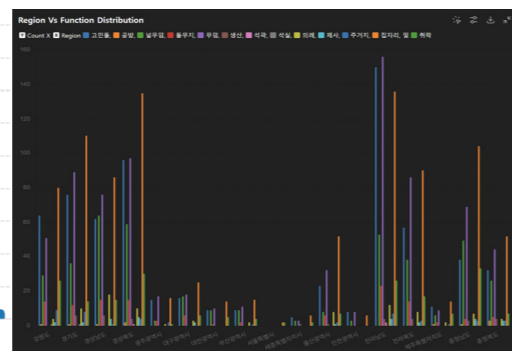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추출된 유적은 총 1534개와 구릉, 사면, 정상부, 계곡, 하천(충적지), 능선, 해안(연안), 평야(저지대), 기타(평탄지와 분지) 지형 등이 입지요건이 확인되었다.

## 2)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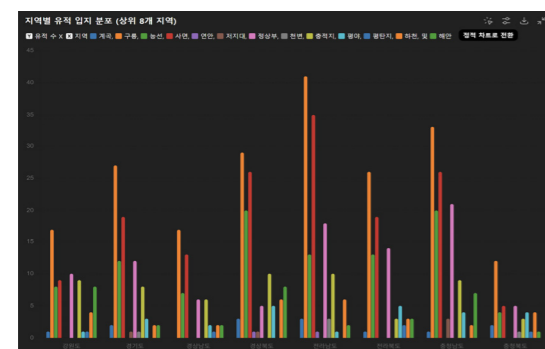
유적의 전체적인 지형 입지의 분포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구릉과 사면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조사의 편중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충적지와 하천변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데, 2000년대 이후 관심이 집중된 저습지형의 조사가 그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반면 계곡부와 해안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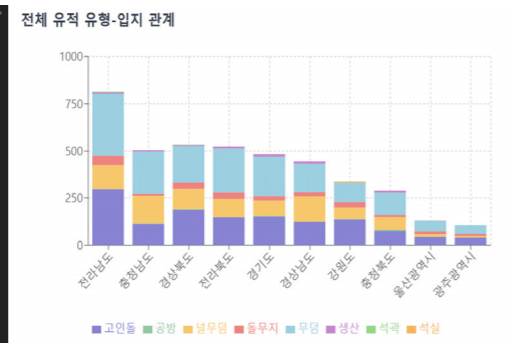
〈그림 7〉 청동기시대 유적의 지형 입지 양상



〈그림 8〉 지역별 유적성격과 분포



〈그림 9〉 지역별 유적 입지 분포



〈그림 10〉 지역별 유적 유형별 입지 분포 개수

그렇다면 유적에서 나타나는 각 유구의 성격에 따라 지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현재의 관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주거와 무덤은 구릉이나 사면에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는데, 물론 조망성과 상징성을 중시하는 전통적 입지 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충적지형(단구 및 자연제방 등)에서도 주거와 무덤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의 이러한 해석이 많이 열린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유적의 빈도수에서 만큼은 주거지가 충적지와 구릉 모두를 더 이용하는 모습은 뚜렷하다. 이는 생활 기반의 안정성과 농경 활동의 용이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 주거는 세밀하게 하천변과 충적지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아마도 청동기시대 이후 수자원의 확보와 농업 생산을 위한 비옥한 환경의 선호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음을 반영한다. 한편 제사나 종교적 성격의 유적은 구릉 정상부나 계곡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의례적 의미와 지형적 특성이 결합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뒤이어 언급할 미시적 지형환경에서 환호와 환구 등의 구릉과 충적지형의 입지는 뚜렷한 지형적 특징으로 언급하기는 이제는 어려워졌다<그림 7>.

마지막으로 지역적 입지 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8~10>.

먼저 전라남도 지역은 구릉과 사면에 집중된 무덤 유적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아마도 이 지역 내 고인돌의 집단적 분포 및 존재와 관련되는 데이터상의 톱 현상이라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형을 선호한다는 점은 장례와 의례 공간으로서 구릉 입지를 선호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전라남도를 기준으로 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는 해수면의 해진 현상으로 인해 충적지형을 활용할 수 있는 충적대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생각하면, 구릉지형의 입지에 한정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구릉과 계곡 주변에 고르게 분포한다. 타 지역과는 달리 계곡이라는 지형 입지가 주목되는데, 아마도 강원도의 산간지역과 연계되는 지형적 조건을 반영하여, 생활과 의례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는 입지 활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강원도의 경우는 산지와 사면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적이 확인되며, 무덤과 소규모 취락이 함께 나타난다. 이 지역은 험준한 지형 속에서 교통로와 연계된 거주 및 의례 활동이 전개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충적지와 평탄지에 유적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주로 취락과 농경 관련 유적의 분포도 보인다. 한강 유역과 다소 큰 하천으로 인해 형성된 비옥한 충적지형의 존재로 인해 이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생활·생산 활동의 결과가 활발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영남 지역은 취락과 분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나타난다. 여기서 이들의 입지 또한 하천변 충적지와 구릉 기슭 등 다양하게 분포하는 모습이다. 유적 성격별로 보면 분묘는 구릉 능선부나 사면에 위치하며, 환호, 제단과 같은 정치·의례적 유적은 구릉 정상부에 집중되고, 농경관련 유적은 충적지형과 연관되고 있다. 다수의 유적이 여러 지형조건

에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진 영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남지역은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와 맞닿는 조건이었기에 다양한 취락유형의 존재가 모일 수밖에 없는 지형 공간 구조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타 지역과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하고 복합적인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다른 지역과는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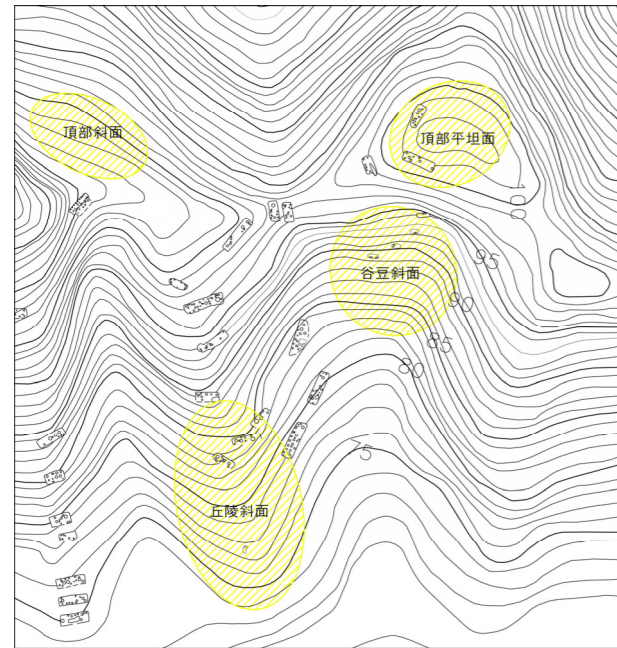
## IV. 유적의 미시지형환경

### 1. 생활 유적(그림 11~13)

생활유적은 구릉과 충적지형 모두에 입지한다. 구릉지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지에서의 큰 특징을 보기는 어렵다. 단지 지형의 세부적인 구분을 통해, 구릉지형 내에서도 지세에 따른 유구의 공간적 활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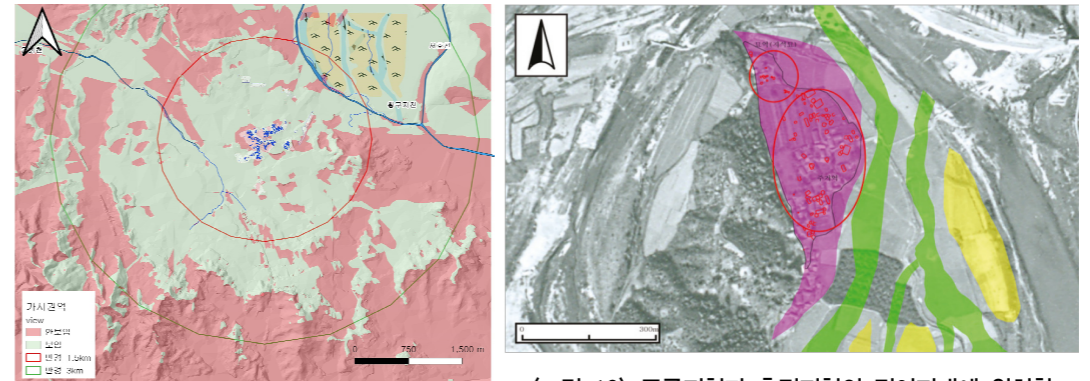
구릉지형에서의 입지는 크게 송국리유적처럼 지형을 적극개변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환경개척형 입지 선호가 확인되지만, 대부분의 유적은 환경순응형 입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주거 등 여러 유구들이 지형의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여 입지하는 모습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구릉지형의 취락 입지 선택에 있어서 몇가지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유적들은



<그림 11> 구릉지형의 세부 지형과 유적 입지(허의행 2013)

주변에서도 높은 구릉지형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 자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지형의 유적들은 대규모 취락과 함께 하는 모습이 많다. 아마도 가시권 확보를 통한 중심취락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파악된다. 물론 충적지형에서의 가시권 확보는 구릉지형보다 더 확실한 모습이지만, 이곳에서의 가시권은 인근의 산지에 일부 방향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 구릉지형보다는 반개방적 가시권 확보라 할 수 있다. 진주 대평리나 춘천 일대의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환호 취락은 충적지형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입지적 선택과 연관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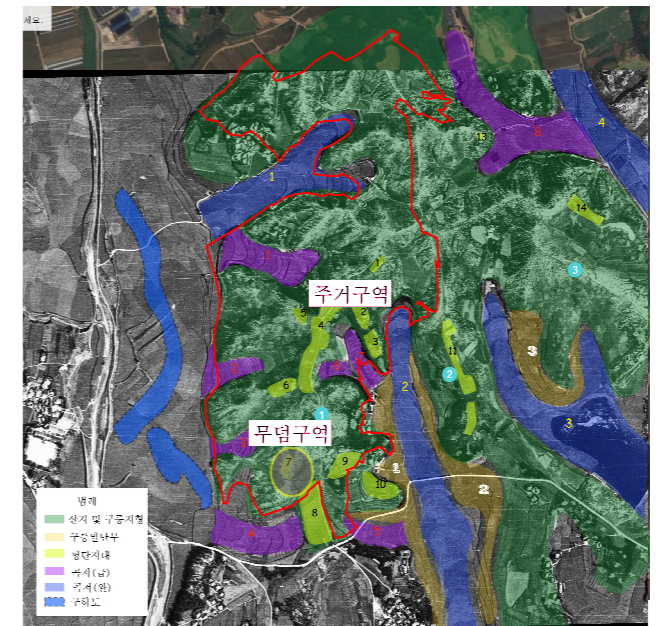
<그림 12> 구릉지형 내 유적입지(화성 수영리유적) <그림 13> 구릉지형과 충적지형의 점지대에 위치한 유적(김천 송죽리 유적, 장우영 외 2010 도면 24에서)

더구나 충적지형은 구릉지형보다 지형의 활용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는다. 하천과의 인접성,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하면 구릉지형의 취락보다 더 선호될 수 있는 지형이다. 따라서 이른 시기 주거 등의 취락은 산지와 구릉지에서의 입지선택이 있을 후, 시간이 흐르면서 충적지형으로 이동하면서 더 큰 취락으로 발전시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 2. 무덤유적(그림 14)

청동기시대 무덤은 대체로 초기에는 취락과 떨어진 곳에 단독 혹은 소규모로 조성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허의행 2013, 황재훈 2024). 이후 늦은 시기로 가면서 묘역은 취락 내의 특정 영역으로 분화되고, 무덤은 열상(일렬)이나 환상(원형)으로 배열되며 군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과정에는 가시권이 좋고, 물길과 해안과 인접하는 접근성을 중요시 한 주거 등의 취락 입지와 함께 하였다.

서해안과 임진강·안성천 유역에서는 능선의 평탄부나 구릉 말단처럼 조망이 넓게 트이는 곳을 선



<그림 14> 구릉지형 내 주거와 무덤구역의 입지(송국리유적)

호했고, 가장 높은 자리에 큰 고인돌이 놓여 위계를 드러내는 경우를 볼 수 있다(김종오 2023).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남부 해안·하천 유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형 입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지형 내 무덤은 성토한 작은 봉분을 만든 분구묘가 많은 편인데, 해안 가까운 충적지나 남강변 자연제방, 곡간 평지 등 물과 가까운 낮은 지형에 널리 조성되어, 동일 시기의 묘역식 지석묘와 한 공간에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유병록 2024).

반면 전남 지역의 무덤들은 지석묘가 중심인데, 초기에는 구릉 정상·사면 또는 평지에 자리하는 모습이 많다(최성훈 2024).

중서부 강원도 지역의 춘천지역 내 일대에서의 무덤들은 전형의 구릉지성 무덤의 조성 보다는 충적지형에 주거와 무덤을 같이 하는데, 외곽의 공지로는 경작지에 묘역을 만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옛 주거 공간으로까지 무덤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장제의 변화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송만영 2018), 구릉지형에서의 무덤 조성과 같은 지형 내 공간의 분리와 활용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 3. 생산유적(그림 15)

생산유적으로 대표적인 지형 입지를 볼 수 있는 유적은 논 경작지이다. 논 경작지는 일반적으로 충적지형 내 입지의 당연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산지·구릉지형과 연계된 지형 입지도 있다. 물론 물과 관련된 지형을 우선하는 입지적 특징은 뚜렷하다.

생산유적도 지형 입지상의 변화를 보인다. 초기에는 용수 취득이 유리한 충적지형 내 미곡 저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구상 및 반구상 경작유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구이다. 연기 대평리, 춘천 천전리, 평창 후평리, 춘천 중도 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반구상 경작유구도 이와 유사한 지형 입지를 갖는데, 아무래도 낮은 지대에서의 담수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이러한 미곡부는 용천수나 천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수리관개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 생산지로서 활용하였을 것이다.

이후 생산유적은 점차 입지 환경을 극복하며 확대되었다. 산지 및 구릉지형의 곡부와 곡 중 하단부에 입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관개 시스템의 초기적 모습을 보여준다.

충적지형에서의 생산유적의 입지는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 배후습지와 구하도 같은 항상적인 습한 환경을 적극 이용하였는데, 특히 인근의 생활유적으로서 주거 등의 미고지와 함께 하는 모습이 많다. 물론 아직까지 지형의 환경에 맞춘 생산유적을 입지시킨다. 그러다 지형의 소극적 활용의 모습이 보인다. 하안단구와 구하도 지역 등의 평탄한 대지를 이용해 나아가고, 이로 인해 경작지의 평면 형태와 관개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 물론 이때에도 습한 환경에 적응한 입지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이후 안정된 장소로서 구릉말단부와 저습지의 접이지대가 적극적으로 이용된다. 곡부성 구



〈그림 15〉 충적지형 내 생활과 생산유적(진주 대평리유적)

확한 구분을 진행한다. 특히 여러 방향의 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집수하고 이를 모아 여러 지점의 경작면으로 급수하는 복합적 관개 방식은 지형의 적극적 활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처럼 생산유적의 입지 선택의 변화는 청동기시대 논 농경이 단순히 자연 조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지형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관리하며 발전해 나아간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대표될 수 있다(허의행 2021).

### 4. 제의 유적(그림 16)

제의와 관련한 유적지로 최근 그 연구성과와 관심도가 높은 환호, 환구의 미시적 지형 입지를 파악하였다.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환호·환구는 뚜렷한 구릉 선호 현상을 볼 수 있다. 전체 31개소 중 22개소(71%)가 구릉에 입지하는데, 흥미롭게도 구릉 정상부(25.8%)보다 능선과 사면부(45.2%)를 더 선호했다(박경신 2024). 아마도 정상부의 협소한 공간보다 사면부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 활용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협소한 정상부는 돌출된 지형을 대상으로 하는 의례와 관련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면과 능선의 축조는 대규모 취락을 감싸지 않는 이상, 인간과 또 다른 대상물에 대한 의례적 성격을 갖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형적 관점보다 지리적 관점에서 환호를 보면 그 특징이 더 뚜렷하다. 해발고도 51-100m 구간에 전체의 54.8%가 집중되지만, 100m 이하가 절반을 넘는다. 지형적 의례나 제의보다는 취락과 같이 하는 의례적 성격을 볼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충적대지나 자연제방에 입지한 환구이다. 이들은 대체로 복수의 하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구리 토평동의 왕숙천-한강, 남양주 금남리의 월산천-북한강-묵현천, 춘천 중도동의 북한강 하중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리는 수운 교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조석의 높이가 한반도 해안가 일대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해류의 영향과 침수 하곡이 만든 복잡한 만입-만곡 체계,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리아스식 해안으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지역마다 다르다. 따라서 해수면 변동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 환경을 같이 살펴야 한다. 일례로 서해안의 한강유역부터 남해안의 해남과 사천 일대는 해수면의 최대 높이가 12m에서 2m까지 서로 달라 내륙으로 향하는 해수의 침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 2. 동해안<그림 18-④>

반면 동해안 지역은 서해안과는 달리 지형의 형성이 다르다. 이 지역은 구릉지형 내 유적의 존재도 보이지만, 평탄한 대지로서 사구지형의 존재가 해안선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해안 사구는 홀로세 이후 사구 발달이 진행되었는데, 바람과 파도의 영향에 의해 마치 사막의 언덕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오랜기간 축적된 모래 등의 집적 현상으로 인해 단단한 지반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지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오랜기간 동안 이용해 온 지형이다(허의형 2022).

이 지형은 입지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되는 고지대를 이루며, 계절적 홍수로부터의 보호, 해안 접근로가 용이하고, 다소 높은 곳은 조망권 제공해 주며, 인근 석호와 하천과의 연관성도 좋으며, 태풍과 해안 폭풍에 대한 자연 장벽 역할을 하는 등 동해안의 좁은 입지 환경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 3. 내륙지역

내륙지역에서는 구릉지와 충적평야가 오랜 기간 동안 취락 입지에 활용되었다. 특히 평탄한 충적지에서는 구릉지형과 달리 다양한 지형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몇 가지 세부 지형의 형성과 특성을 이해하여 유적의 입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천이 곡류하면서 생성되는 구하도(옛 하천 유로), 자연제방 뒤편의 배후습지, 그리고 평탄지에 형성되는 얇은 곡부지형과 같이 유로의 장소로 이해되는 곳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구하도는 하천의 흐름이 절단되면서 생긴 옛 하천 자리를 말한다. 강이 굴곡을 이루다가 어떠한 환경에 의해 흐름이 멈추고 다른 장소로 새로운 유로를 형성하면서 이전의 유로는 고립되어 'U'자 형태의 지형이나, 때로는 호수나 웅덩이(우각호)를 만든다. 이러한 구유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채워져 습지로 변하고, 수로가 차단된 이후에도 습윤한 환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물을 필요로 하는 논과 그 관련시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유구의 존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뒤이어 설명한 배후습지와는 달리 건조한 상태의 가능

성도 높아 논 경작지 조성시 관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편, 구유로와 비슷해 보이는 아주(Yazoo) 하천은 다른 하천을 따라 병행하여 흐르는 지류로, 자연제방이나 단구지형을 지나기 때문에 본류와 바로 합류하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 동안 평야를 따라 흐르다가 결국 본류에 늦게 합류한다. 아주 하천은 지속적인 수량을 유지하므로, 이곳에 형성된 유적은 운송이나 수로 관리 등 수변 활동과 관련된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구하도의 흔적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되며, 하폭과 수량, 제방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두 지형을 구분하면서 유적의 입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유사한 또다른 지형으로 배후습지(backswamp)가 있다. 형태는 구유로의 형태처럼 보이지만 하천의 범람으로 생성된 낮은 곳으로의 침수 지대여서 습한 환경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오랜 기간 이어진다. 이 배후습지는 구하도와 달리 자연제방과의 공간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지형이므로, 그 내부 환경과 수리 조건이 상이하다. 두 지형 모두 습지가 형성되어 논으로 이용되지 않음, 배후습지는 습답으로서의 가능성이, 구하도는 반건, 반습의 형태로서 수리관개시설의 설치를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충적평야의 평탄지에는 하천의 유로와 관계없이 주변의 배수가 모여 형성된 얇은 곡부지형도 나타난다. 이들은 자연적인 배수지를 이루며, 건기에는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반구형이나 구상 경작유구의 존재가 확인된다. 논으로의 조성보다는 밭으로의 기능이 강하게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낮은 지대에서 집단의 공간 구성이나 폐기물 처리, 의례 등과 관련한 지형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미곡부에 대한 입지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내륙 충적평야에서 취락의 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하천 유로인 구하도, 본류와 병행하는 아주 하천, 자연제방 뒤편의 배후습지, 그리고 평탄지 내 존재한 곡부지형을 서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각각은 형성과정과 수리 환경이 달라 유적의 분포와 활용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물론 상기한 내용은 청동기시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시대에 걸친 유적의 입지환경에 적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세밀한 지형 입지에 대한 접근의 해석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준모, 2025, 「인천 검단 원당동, 당하동 환구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환구의 전개-, 『청동기시대 환호, 환구 유적 최신 조사 성과 발표회 -중부,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청동기시대편 증보판(국내편)-』.
- 김종오, 2023, 「중서부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의 성격 -소형무덤방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제126호, 백산학회.
- 김진영, 2023, 「해남반포 백포만일대 취락경관에 대한 시론 -청동기시대를 중심으로-,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6(3),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박경신, 2024, 「중서부지역 환호 환구 양상과 특징, 『한국의 환호 환구-지역별양상과 특징』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

대회, 한국고고학회.

박수진, 2025, 「한국 유적지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와 지형요인과의 장기적 상호작용」, 『문화역사지리』 37(1), 한국 문화역사지리학회.

박종철·박지훈 외, 2011, 「GIS분석과 사면 미지형별 경사도를 이용한 충남 아산지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최적 지형환경」, 『한국지형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지형학회.

박지훈·오규진, 2009, 「지리적 관점으로 본 충남 천안천 유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유형과 입지요인」, 『한국지형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지형학회.

배덕환, 2009,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입지형태에 따른 지역성 연구」, 『문물연구』 15, 동아시아문물연구회.

\_\_\_\_\_, 2024, 「영남지역 환호 환구의 양상과 특징」, 『한국의 환호 환구-지역별양상과 특징』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송만영, 2018, 「춘천 지역 지석묘 구조 변화와 지석묘군의 조성 과정」, 『고문화』 제92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우찬희, 2015, 「울산 태화강변 청동기시대 취락입지에 대한 고찰」, 『동북아시아문화연구』 제43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유병록, 2011, 「층적지유적의 입지분석과 활용 -영남지방의 조사사례를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제10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_\_\_\_\_, 2024, 「한국 청동기시대 墳丘墓의 설정과 의미」, 『한국청동기학보』 제34호, 한국청동기학회.

윤호필, 2010, 「층적지에 입지한 취락유적 발굴조사법」,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6,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기성, 2024, 「청동기시대 군집묘와 혼계」, 『한국학』 제47권 제3호2024 가을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영, 2023, 「서울·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생계자원 생산방식」, 『문화재』 56(3), 국립문화재연구원.

이수홍, 2011, 「檢丹里類型의 무덤에 대한 연구」, 『考古廣場』 제8호, 부산고고학회.

\_\_\_\_\_, 2022, 「영남지역 묘역지석묘의 특징과 구산동지석묘의 성격」, 『고고광장』 제32호, 부산고고학회.

이종철, 2015, 「섭천강 분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특징」, 『선사와 고대』 46, 한국고대학회.

\_\_\_\_\_, 2024, 「호남지역 환호 환구의 양상과 특징」, 『한국의 환호 환구-지역별양상과 특징』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이한동·김교원, 2011, 「GIS를 이용한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입지분석-울산 동천강 유역을 대상으로-」,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 2011, No 10, 대한공간정보학회.

이형원, 2024, 「호서지역 환호 환구의 양상과 특징」, 『한국의 환호 환구-지역별양상과 특징』 제48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한국고고학회.

이홍중·손준호, 2012, 「층적지 취락의 지형환경」, 『영남고고학』 63호, 영남고고학회.

이홍중·허의행, 2010,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입지와 생업환경」, 『한국고고학보』 74, 한국고고학회.

장우영·이월영·이홍중, 2010, 「층적평야유적 조사를 위한 지형환경분석의 적용」, 『야외고고학』 제8호,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최성훈, 2024, 「전남지역 지석묘 문화의 전개 양상」, 『한국청동기학보』 제35호, 한국청동기학회.

허의행, 2007, 「무문토기시대 취락입지와 생계경제 연구 -천안 및 아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_\_\_\_\_, 2013,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 입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 「청동기시대 논 경작지의 입지 환경과 관개 체계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제28호, 한국청동기학회.

\_\_\_\_\_, 2022, 「강릉 초당동과 주변의 지형환경과 유적 입지 변화」, 『강릉초당동유적 발굴성과와 연구과제』 강릉초당동유적발굴 30주년 기념학술대회,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강원고고문화연구원.

황재훈, 2024, 「청동기시대 분묘의 축조와 취락 경관의 구축」, 『역사와 담론』 110, 호서사학회.

## 제2발표

#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생계 자원 이용의 이해

박주영(충북대학교 강사)

## I. 머리말

취락 입지가 복합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임은 틀림없다. 그 가운데에서도 생계 자원(subsistence resource)을 얼마나 수월하게 또는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가는 취락의 성립과 지속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 관련성을 입증하려면 당시 취락 주변 자원의 실제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과거 환경을 복원하는 일은 본질적인 제약이 따른다. 결국 취락(유적)에서 출토되거나 주변의 환경 자료가 제공하는 간접 단서를 바탕으로 대리지표(proxies)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당시 자원 이용 양상과 입지 결정의 상관성을 추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법론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서양 학계에서 전개된 다양한 경제적 행위이론 가운데 특히 가용자원영역 분석(site catchment analysis, SCA)의 시각을 토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는 취락 입지와 생계 자원 이용의 공간적 맥락에 초점을 두며, 취락의 위치를 단순한 정착지 확보가 아니라 당시 집단의 생계 전략과 사회 조직을 반영하는 지표로 보고자 하였다(Vita-Finzi and Higgs 1970). 따라서 생계 자원 이용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취락 입지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계 자원의 상관관계를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 II. 취락 입지 결정 요인으로서 생계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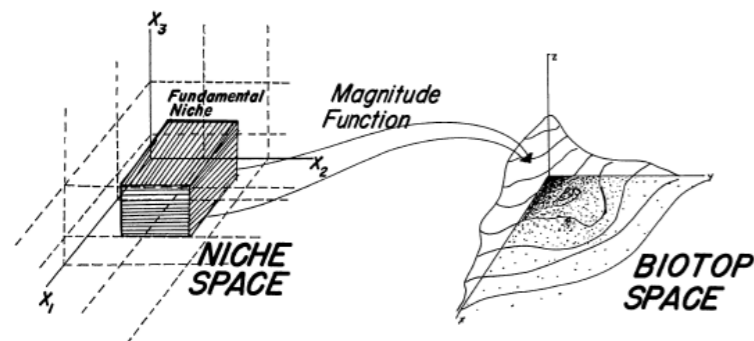
인간과 환경, 그리고 생계 자원의 이용에 대한 관심은 초기 문화인류학(또는 고고학)의 연구

에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인간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소비했는지에 집중하기도 하였지만, 위슬러(Clark Wissler)와 크로버(Alfred L. Kroeber) 등은 문화영역의 설정에 생계 자원의 분포를 주목하면서 기후와 식생, 문화요소 분포간 상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곧 어떠한 문화-환경적 상황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은 없음을 깨닫고, 문화생태학의 관점으로 옮겨가게 된다(켈리[성춘택 옮김] 1994: 71-75). 바로 이 전환이 고고학에서 취락 입지와 생계 자원의 관계를 핵심 연구 주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 문화생태학적 접근과 '적소' 개념의 도입

문화생태학적 접근은 스투어드(Julian Steward)에 의해 정립되었다. 각 사회가 처한 환경적 제약과 잠재적 자원을 토대로 특유의 문화적 적응 양식을 형성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중심 개념인 문화핵심(culture core)은 “생계 활동이나 경제 방식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특성들의 집합”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Steward 1955: 37). 여기서 환경과 자원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사회 조직과 기술체계, 그리고 정착 양식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간주하였다. 특히 고고학 취락 유형(settlement pattern)을 인간 집단과 자연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로 간주하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윌리(Gordon Willey)는 취락 유형에 생태 요인만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회문화적 성격과 관련된 요인도 포함(트리거[성춘택 옮김] 2019: 363)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면서, 취락고고학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차별을 이루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60·70년대 과정고고학은 분석적이고 정량적 접근을 강조하였고, 이는 곧 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자료 처리, 통계·공간 분석의 도입과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시도에는 생태학의 적소(適所, niche) 개념이 차용되기도 하였다. 이 개념은 어떤 종이 환경 속에서 차지하는 다차원적 공간, 즉 특정 자원을 활용하고 다른 종과 상호작용하는 위치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림 1) 적소의 환경 변수가 새로운 정착지에 구현되는 단계(hudson 1969: 368)

(Hutchinson 1957). 이들 속에서 취락의 확장과 이동은 자원과 환경 조건—fundamental niche, 강수, 토양, 경사, 최소 경지 규모, 시장까지의 거리 등의 한계에 부딪힐 때, 새로운 정착지(biotope)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해석

되었다. Hudson (1969)은 이를 ‘개척(colonization)-확산(spread)-경쟁(competition)’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하며, 취락의 분포가 통계적 규칙성과 자원 접근 비용(cost)의 함수임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곧 취락 유형에 반영된 자원 접근 비용의 관점에서, 유적 입지와 핵심 자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최적입지전략(optimal location strategies) 논의로 이어졌고, Wood (1978)는 이를 다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 MDS)과 결정이론을 결합하여 구체적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 2. 최적채집이론과 가용자원영역 분석의 성장

진화생태학에서 개발된 최적채집이론(optimal foraging theory, OFT)은 동물의 수렵 행동 분석에서 출발하여, 고고학에서는 수렵·채집 활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열량(kcal)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켈리[성춘택 옮김] 2014:143). 이러한 입장은 수렵 채집 사회의 식량 조달과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그 중 수렵채집-수집모델(forager-collector model)은 집단이 언제 거주지를 옮기고(residential mobility), 언제 거점을 유지한 채 원정대를 파견하는지(logistical mobility)를 설명한다(Binford 1980). 이와 함께 패치선택모델(patch-choice model, PCM)이나 중심지수렵모델(central place foraging models) 등은 자원 분포와 정착지 선택을 분석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발전하였다(켈리[성춘택 옮김] 2014). 비록 수렵채집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간단히 언급만하였지만, 농경 정착 단계의 취락 분포 분석과 상보적인 발전을 이룬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가용자원영역분석(site catchment analysis, SCA)은 자원권과 생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적을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분석으로 자리 잡았다(Bailey 2005). 이 분석은 취락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sup>1)</sup> 내에 확보 가능한 토양·수계·식생 조건을 정량화하여, 취락 입지가 단순히 지형적 우연이 아니라 생계 자원 접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택임을 보여주었다(Vita-Finzi and Higgs 1970). 이러한 관점은 이후 취락이 단순히 평지에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석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Jarman et al. 1972)<sup>2)</sup>.

### 3.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과 다중 대리지표와의 결합

이러한 분석법의 성장과 함께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 기법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면서, 취

- 1) 취락을 중심으로 반경 5km와 10km 내의 자원 환경을 조사하였다. 5km는 일일 왕복 노동거리, 10km는 보다 확장된 생활권으로 간주하고, 이 범위 내의 토양, 수계, 식생 분포가 곧 취락의 생계 기반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 2) 영역분석(site territorial analysis, STA)으로 개칭하고, 이를 특정 지점에서 일상적 생계를 위해 관습적으로 이용되는 구역인 자원이용영역(site exploitation territories, SETs) 분석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Bailey 2005; Jarman et al. 1972).

락 입지 연구는 한층 정교하고 활발하게 분석이 이루어졌다. 비용거리(cost-distance) 분석을 통해 단순한 직선거리가 아니라 실제 이동로를 고려한 접근성을 계산할 수 있었고, 적합도 분석(habitat suitability analysis)을 통해 여러 환경 변수들을 가중치와 함께 종합해 최적 입지 영역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Conolly and Lake 2006; Verhagen 2007). 또한 위성영상, LiDAR, 수치표고모형(DEM) 자료 등을 통해 수계망 복원, 토지피복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분석들은 여전히 현대 토양·수계 분포와 비교하여 자원 접근성이 여전히 핵심 요인(Wilkinson et al. 2005)임을 보여주거나, 생산 전략과 취락 분포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Banning 2002; Wilkinson 2003).

한편, 이러한 지형 환경뿐만 아니라, 고환경자료-화분분석, 토양성분, 도구 미세흔적 분석-등의 다중 대리지표(multi-proxies)와의 결합을 통해 취락 주변의 토지 이용과 식생 변천을 복원하는 학제적 시도(Langgut et al. 2013, 2021; Rösch et al. 2021)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적소구성이론(niche construction theory)’에서는 인간과 환경의 쌍방향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인간이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농경, 기술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이해한다. 변형된 환경은 다시 인간과 자원의 적응을 요구하므로, 인간의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생계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Odling-Smeets et al. 2003)<sup>3)</sup>.

마지막으로, 후기과정고고학의 근대적 관점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타자화 되고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종일 2006: 115; Ingold 2000: 191). 단순히 환경적 제약이나 자원 효율성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경관(landscape)’ 자체를 사회적·상징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취락 주변의 공간 배치와 자연환경은 권력, 정체성, 기억과 같은 사회문화적 의미와도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적 시각과는 별개로 과정고고학의 분석적 접근 역시 여전히 중요한 연구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연구사적 논의를 토대로, 국내 연구의 경향과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나아가 실제로 작물이 출토된 유적들을 대상으로 입지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생계 자원과 취락 입지 사이의 상관성을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한다.

### Ⅲ. 취락 입지와 생계 자원 분포의 상관성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락의 위치를 수치지형도에서 관찰하여 몇 가지 지형적

3) ‘인류·문화생태적 적소(人類·文化生態的 適所, human cultural niche construction)’ 이론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이경아 2014).

범주-구릉지, 충적지, 하안단구 등-로 분류하는 방식이다(김현준 2007, 2017; 羅建柱 2013; 박성희 2006; 安在皓 2000; 이수홍 2014; 이홍중 2003). 이러한 방법은 입지의 복합적인 맥락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당시 연구자들이 취락이 놓인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집단의 생계 기반을 이해하려는 기초적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조사 보고서 작성시 요구되는 주변 지형과 환경에 대한 상세한 서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유적의 배경 묘사가 아니라, 취락의 형성 과정과 입지 선택의 이유를 밝히고, 나아가 당시 사회가 처했던 환경적 제약과 생계 전략을 추정하고자 한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 분석의 바탕에는 생계 자원의 종류와 이용 방식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저변에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즉, 신석기-청동기시대 이행과정에 나타나는 ‘농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인식(고일홍 2010; 安承模 2006; 安在皓 2000, 2006; 윤호필 2010)이나, 전기의 화전을 통한 조방적 농업의 시행(羅建柱 2010; 李康承·朴淳發 1995; 이형원 2009), 중기 이후 도작(稻作)의 확대와 집약화(고민정·Bale 2009; 金範哲 2006a·b, 2011; 安在皓 2006)를 설명하는 생계 자원 이용 방식과 근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도식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전략이 취락의 입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羅建柱 2013; 박성희 2006; 이홍중 2003; 홍주희 2004).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생계 자원의 재배 적합성이나 생산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GIS 등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적용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생계 자원 이용의 방식에서부터, 작물과 생산 전략 변화, 문화유형 파급, 정치경제와 같은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강동석 2018; 金範哲 2005, 2006a·b, 2022, 2023a·b; 김선우 2012; 金成旭 2022; 金洙連 2025; 李珉榮 2021; 허의행 2021).

#### 1. 생계 자원의 종류와 취락의 분포

취락에서 출토된 자료에서 생계 자원을 확인하는 대리지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직·간접적인 지표라 할 수도 있는데, 각종 동·식물 유체를 추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자료 보존의 문제로 동물 유체보다는 주식(主食)으로서의 곡물 등 식물자료를 좀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는 종실(種實) 탄화물, 간접적으로는 화분, 규소체, 압흔 분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관련 유구나 도구 조성비를 통해 생계 자원의 획득과 이용 전략을 추정하고 있다(김민구 2015).

그러나 이러한 생계 자원과 관련한 잔적을 발견하거나, 체계적인 분석이 수행되는 유적은 한정적이다. 특히, 탄화 종실의 동정 오류(安承模 2008)의 가능성이나, 특정 작물의 유체만 한정적으로 확인된 경우, 다른 작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작물의 이용이 없었음을

단정하는 성급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자원의 종류 복원에 집중<sup>4)</sup>하기보다는, 지형과 토양 등 환경 자료를 통해 자원의 ‘생육환경’을 복원하고, 작물 재배·획득 가능성을 추정하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발(상대)고도, 경사도, 수원의 분포와 같은 기초적 지형 정보부터, 생산력 및 작물 재배 특성을 반영한 토양의 분포 등 취락 주변의 환경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강동석 2018; 金範哲 2005, 2006a·b, 2022, 2023a·b; 김선우 2012; 金成旭 2022; 金洙連 2025; 李珉榮 2021)하기도 한다. 또는 고지형 분석을 통해 좀 더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이홍중·손준호 2012; 박영구·허의행 2022; 허의행 2021).

다음에서는 청동기시대 작물 유체-특히 주요 곡물-가 출토된 취락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자료를 종합하여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취락의 입지와 실제 식량 자원의 재배나 이용이 특정 환경 조건과 관계성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곡물 유체의 출토와 취락 입지 요인을 밝히는 작업을 통해, 청동기시대 사회가 어떠한 생계 전략을 선택했는지를 정량적인 분석 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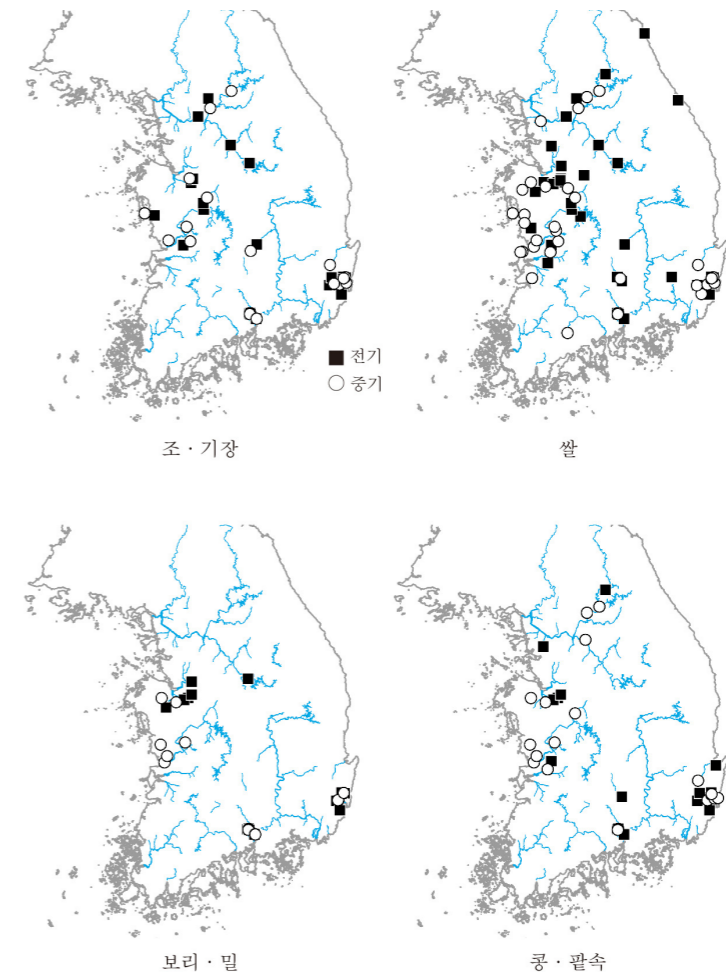
## 2. 작물 종류에 따른 취락 입지와 주변 환경의 차이

청동기시대의 식량 자원은 작물생산과 사육, 수렵·어로, 채집 등에 의해 확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 및 전북 해안의 청동기시대 패총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체는 동정을 통해 확인된 종류가 수십 종에 달하기도 한다(金範哲 2006b: 69-70). 한편, 식물자료는 좀 더 체계적인 집성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고고식물: 선사시대 한국편』(국립문화재연구소 2015)에서는 유구 별로 분석 방법의 종류와 작물 출토 현황-작물 종류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발표에서는 여러 식물 자료 중에서도 생계에 주 공급원이 되는 곡물을 중심으로 취락의 입지 및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은 집성지의 총괄 일람표(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627-721)를 기초로, 광명 가학동(한강문화재연구원 2016), 춘천 중도(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 조사단 2020), 진천 가산리 유적(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의 성과를 추가하였다. 초본류 및 화분분석은 제외하였으며, 종실·압흔분석으로 동정된 7개 주요 작물 및 전·중기 시기 구분이 가능한 90개 취락 유적<sup>5)</sup>을 대상으로 하였다(부록표 및 그림 2 참조).

4) 물론 청동기시대 식이 복원과 식량 자원 이용의 다양성을 밝히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 식물자료는 지식묘, 주구묘 등의 분묘나, 경작 유구 등의 퇴적층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다만 연구의 초점이 취락에 있는 만큼, 주거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구 출토 식물자료로 한정하였다.



〈그림 2〉 청동기시대 유적 출토 곡물 분포도

### 1) 곡물 자료

곡물 자료는 재배 가능성이 높고, 주식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을 만한 7개 작물에 한정한다. 다시 유사 범주에 있는 작물을 묶어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잡곡류(雜穀類, millets)로 조와 기장, 쌀, 맥류(麥類)인 보리·밀, 콩과 팥속에 해당한다(安承模 2008). 단순 출토현황(표 1)<sup>6)</sup>을 토대로 한 곡물 조합의 결과는 복수의 식량 자원을 기반으로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중기 모두에서 그러한 경향이 확인되나, 중기에 좀 더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표 2)<sup>7)</sup>. 따라서 취락의

6) 복수 작물의 조합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작물 출토를 기준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복수 작물은 지점이 서로 중복되므로 동일 취락의 지형이 분석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7) 전기 37개소, 중기 46개소로 출토 곡물 유무의 단순 조합을 유적 수와 비율로 나타낸 표이다. 전·중기 모두 해당되는 유적은 8개소로 양 시기 모두에 합하여 계산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해당 곡물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표 1〉 곡물별 출토 유적 현황

곡물	조·기장	쌀	보리·밀	콩·팥속
유적 수	46	71	31	38

〈표 2〉 시기별 출토 주요 곡물의 유적별 조합

시기	1종	2~3종	4종	계
전기	18 (40.0%)	20 (44.4%)	7 (15.6%)	45 (100.0%)
중기	21 (38.9%)	21 (38.9%)	12 (22.2%)	54 (100.0%)

입지도 여러 작물 재배에 유리하거나, 접근이 편리한 지점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2) 환경 자료

취락 입지와 주변 환경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sup>8)</sup>과 수계도, 토양환경지도<sup>9)</sup> 등을 사용하여 ArcGIS Pro를 통해 추출하였다. 취락 입지 측정의 기준점은 유적 또는 주거 밀집 지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 지표는 작물별 취락 입지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전제하고, 해발고도, 하천과의 거리, 경사향과 경사도, 분포지형 종류, 생산 토양분포-논, 밭, 과수·상전(이하 과수)토양-9가지를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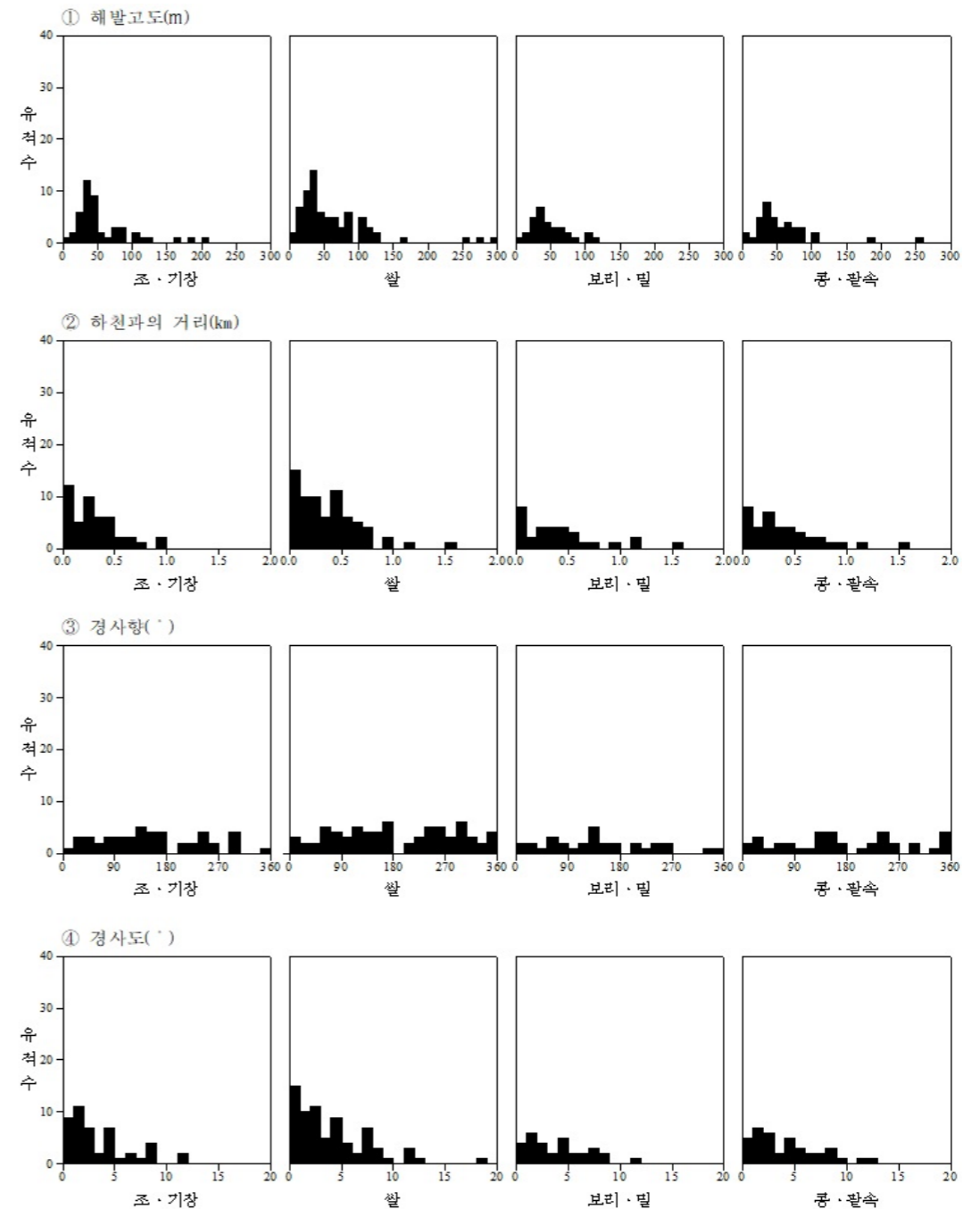
### (1) 해발고도

해발고도는 기온, 기후 등과 관련이 있어 인간 거주 및 식물 성장과 밀접한 관련(서경 2016)이 있으며, 평지나 저지대에 조성된 농경지로의 접근성과 산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거주 및 생계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작물 생육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해발고도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한편,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는 해발고도가 아닌 상대비고가 적용되기도 하였다(김선욱 2022; 박서현 2016; 朴性姬 2006; 이홍중·허의행 2010). 상대비고는 주변 저지대와 취락 위치의 고도차를 통해 측정되는데 대체로 40~50m를 기준으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이분되며, 생산지와와의 접근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 재배가 가능한 적정 고도의 범위를 확인(최정선 외 2019)하기 위하여, 해발고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작물별 해발고도 분포(그림 3-①)는 대체로 해발 100m 이하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나, 쌀은 120m 이하까지 뚜렷한 분포를 보이면서도 150m 이상에서도 일부 확인되어 다른 곡물보다 범위가 넓다. 반대로 조·기장은 주로 0~50m 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의 환경에서 재배·이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작물별 고도의 차이라기

8) 90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에서 추출한 것으로 미세 지형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해야 한다.

9) 토양특성에 따른 분포지형도와 적성등급도를 사용하였다(홍토람 <https://soil.rda.go.kr/>).



〈그림 3〉 작물별 취락의 환경 자료

보다는, 쌀 출토 취락의 분포가 광범위하여 보다 여러 지형적 조건을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2) 하천과의 거리

수원(水源)은 농경, 어로, 생활용수 확보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에 따라서 해안과의 거리가 생계 자원 이용을 더 잘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분석의 목적이 곡물에 따른 재배 환경과 취락의 생활용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하천과의 거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취락의 특정 지점과 하천 차수(stream order)와의 거리를 사용한다<sup>10)</sup>. 현재 차수도가 당시 수문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강동석 2018; 金範哲 2006a)이나 고지형분석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일관성과 자료 접근성 측면에서 하천 차수의 활용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상시 흐름을 유지한다고 알려진 3차수 이상의 하천(金範哲 외 2020)과 취락의 거리는 모든 곡물(그림 3-②)에서 대체로 하천과 1km 이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0.5km 이내 근접 입지가 뚜렷하다. 조·기장과 쌀은 0.2~0.8km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하여, 용수확보가 입지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규모 하천(1·2차수)의 분포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리·밀, 콩·팥속 또한 1.5km 내 분포하지만, 쌀보다 다소 완만하게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하천과의 거리에 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3) 경사향

경사향(aspect)은 유적이 위치하는 지점의 경사가 향하는 방향으로 시계방향을 따라 0~360°의 사이에 표시되며, 0°와 360°는 정북방향을 가르킨다(김선우 2012). 경사향은 전근대 사회의 남향 선호와 같이, 취락 조성에서나 특정 작물 재배에 있어 일조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는 특정 방향을 선호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분포를 보면 모든 작물에서 특정 경사향으로의 뚜렷한 집중은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3-③). 이는 일조량이나 방향성 자체가 선호 요인으로 작용했다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지형 조건에 따라 취락이 입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4) 경사도

지형학에서 경사도(slope)는 해발고도와 함께 산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한다(최정선 외 2019). 또한 경사도는 토양 침식과 관련이 있어 인간의 거주, 식물의 생장과 더불어 산사태 등 생활의 안정성에도 연관이 있다(최희만 2005). 대체로 경사도가 7° 이상일 경우, 토양 침식이 증가하여 경작지의 생산력이 감소(許義行 2013)하며, 사면의 경사가 높을수록 침식이 가속화되어 농경지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권동희·박희두 2007)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李珉榮 2022: 20).

곡물 출토 취락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사(5° 이하)에 집중되어 있으나, 쌀과 콩·팥속은 7°

이상 경사에서도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다(그림 3-④). 이는 경사도가 높더라도 취락이 입지하거나 주변에서 재배 활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분포의 중심은 여전히 낮은 경사 구간에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생활 안정성 측면에서 완만한 지형이 선호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사도는 절대적 제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선호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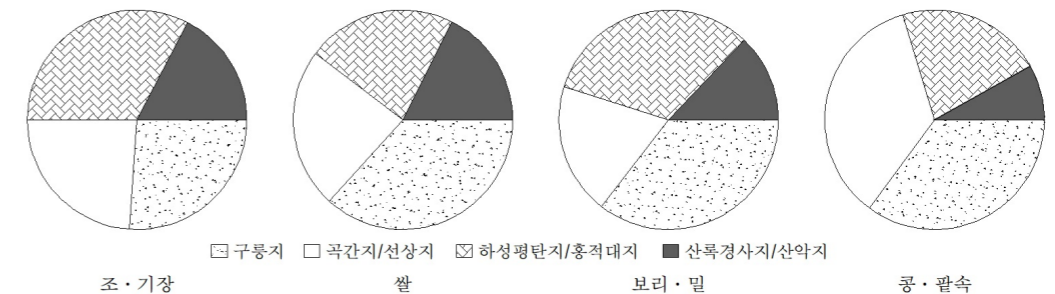
### (5) 분포지형

현재 토양도에서 지형은 산악지, 구릉지, 곡간지, 산록경사지, 선상지, 하해혼성평탄지, 하성평탄지, 홍적대지, 용암류대지 등 9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박수진 외 2010). 이는 실제 지형의 형성과 특징을 요약하는 분류라 할 수 있다.

곡물 출토 취락의 분포지형은 이 가운데, 하해혼성평탄지와 용암류대지를 제외한 7개 지형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분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지형 특성과 성인이 유사한 지형을 묶어 구릉지, 곡간지와 선상지(이하 곡간지), 하성평탄지와 홍적대지(이하 충적지), 산록경사지와 산악지(이하 산악지) 등 4개의 범주로 축소하여 분포를 확인하였다.

네 작물 중 모두 산악지의 비율은 모두에서 가장 적으며, 대체로 구릉지와 충적지의 비율이 높다(그림 4). 단 콩·팥속은 구릉지와 더불어 곡간지의 비율이 높다. 작물의 생육환경과 분포지형의 불일치는 취락의 공간 이용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취락은 구릉지에 위치하면서, 구릉에 이어지는 충적지에 수전 등의 농경 유구를 설치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했을 가능성(朴性姬 2006)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고지형을 이용한 분석에서, 청동기시대 논 경작지의 입지는 곡부와 곡저부, 곡간지, 배후습지, 구하도 등의 다양한 충적지형을 중심으로 조성되기도 하였다(허의행 2021: 18, 표 1 참조).

#### ⑤ 분포지형



(그림 4) 작물별 취락의 분포지형

### (6) 토양분포

청동기시대 생계경제연구에서 지리·지형에 따른 입지와 더불어 토양생산성을 통해 생계경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강동석 2018, 2020; 金範哲 2006, 2011, 2022, 2023a·b; 金洙連 2025; 李基星 2001; 李珉榮 2022; 崔範植 2015). 취락의 입지는 특정한 지형·지리적

10) 하천차수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강동석 2018; 김범철 2006a; 김선우 2012; 李珉榮 2022; 金洙連 2025).

요인을 가지며, 특정한 토양 위에 분포하기 때문에, 토양의 분포와 관련된 취락의 입지 분석은 생계경제의 형태를 구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Hodder and Orton 1976). 예를 들면, 농경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고자 할 때, 농경에 적합한 토양을 찾아 정착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김범철 2022).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토양도는 논과 밭, 과수토양의 토양등급도로, 분석역은 1km 반경<sup>11)</sup>의 토양 분포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절차와 원리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金範哲 2005; 金洙連 2025; 李珉榮 2022).

각 토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논은 지형이 평탄하거나 대지, 곡간지의 경사 15% 미만인 곳이 적합하며 배수가 불량한 식질 혹은 양호한 사질토양이다. 밭은 지형이 평탄하거나 구릉, 산록, 저구릉, 곡간 및 선상지의 경사 15% 미만이 적합하며 배수가 양호한 식양질 또는 사질토양이다. 과수토양은 지형이 평탄, 산록, 구릉, 곡간 및 선상지로 경사가 30% 미만인 곳이 적합하며 배수가 양호한 사질토양의 특징을 갖는다<sup>12)</sup>. 여기서 논과 밭토양은 1~5급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3등급 이하는 생산력이 낮고 재배지로 제한이 있다고 평가되므로 1·2등급의 토양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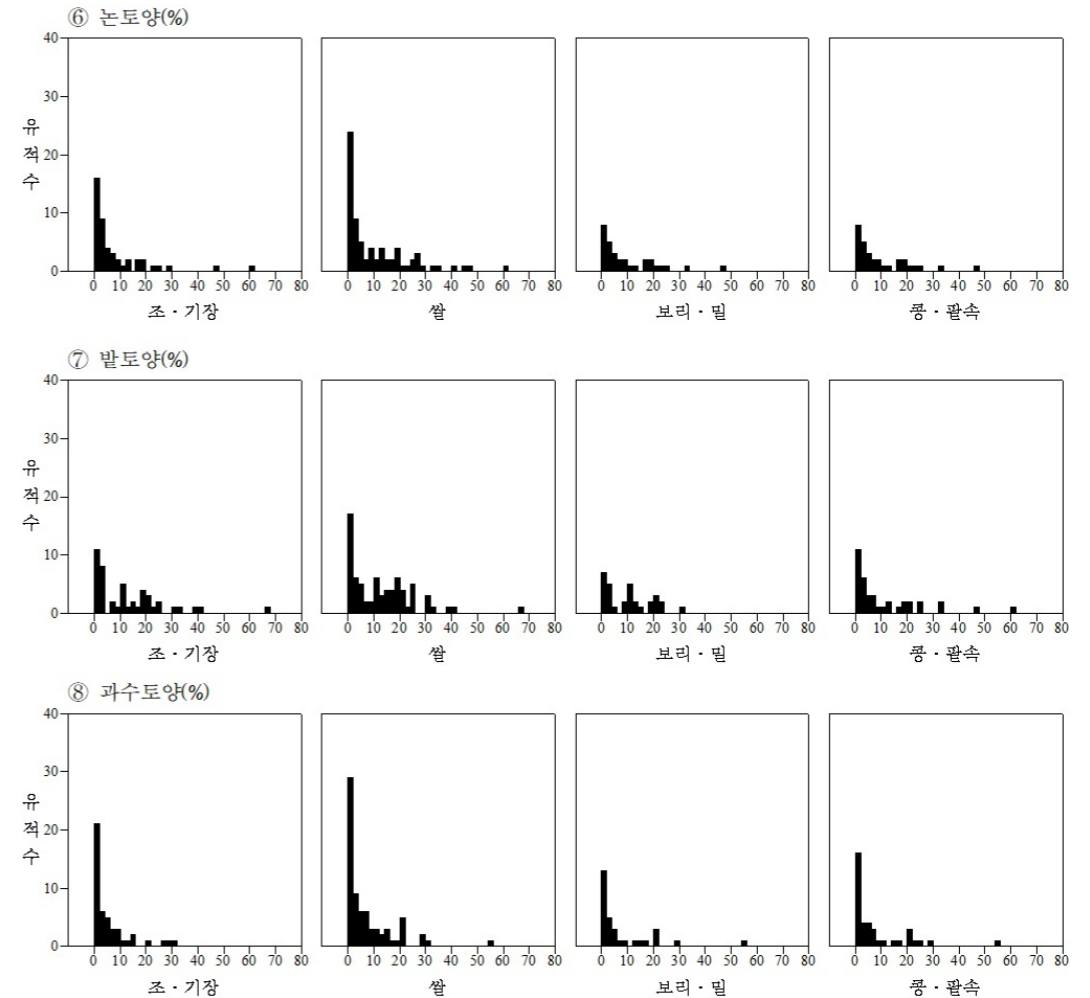
논토양은 네 작물 모두에서 대체로 10% 이하에 집중되며, 일부 취락에서는 20% 이상 분포하지만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그림 5-⑥). 쌀은 다른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토양 비율이 높고, 10~20% 구간에도 일정한 분포를 보이며, 최대 60%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물 관리가 가능한 저습지 환경을 선호한 경향을 반영한다. 반면 나머지 전작 곡물은 대부분 10% 이하에 집중되어, 쌀에 비해 논토양 의존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밭토양은 전반적으로 논토양과 유사한 10% 이하 구간에 집중되지만, 10~20% 구간에도 비교적 일정하게 분포한다(그림 5-⑦). 40% 이상을 보이는 유적으로는 연기 대평리-40.3%, 조·기장, 쌀-, 청주 궁평리-66.1%, 조·기장, 쌀, 콩·팥속-, 포항 원동 유적-40.3%, 콩·팥속- 등이 있으며, 모두 전작에 유리한 작물이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주 궁평리는 논토양 또한 61.2%에 달하여, 수도작과 전작이 모두 가능한, 생산량을 담보하고 있는 지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쌀은 밭토양 비율 또한 일정하게 나타나, 다른 잡곡류와 혼작이나 전작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콩·팥속은 대부분 10% 미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토양 선택성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콩의 적정 생육환경이 보습력과 배수가 동시에 양호한 전작 환경이라는 점에서, 밭토양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다양한 토양 환경에서 재배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과수토양도 전반적으로 논토양과 유사하게 10% 이하 구간 집중에 집중하지만, 0~5% 구간도 다른 토양에 비해 높고, 20% 이상 취락은 일부에 해당한다(그림 5-⑧). 쌀은 과수토양 비율이 다른 잡곡류보다 낮지만, 다른 잡곡 또한 그다지 높지는 않다. 따라서 조·기장, 보리·밀,

11) 토양생성 분석을 위한 분석역의 설정은 정착농경민이 일상의 농사를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를 넘어 서면 이동 빈도가 매우 급격히 감소함을 밝히고 있다(金範哲 2005).

12) 흙토람 토지이용 추천 기준(<https://soil.rda.go.kr/soilact/recommend.do>).



〈그림 5〉 작물별 취락 주변 토양 분포

콩·팥속에서도 과수토양 분포가 일부 확인되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과수토양을 선택한 결과라기보다는 취락이 입지한 지형·토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세 토양 유형 모두에서 비율은 대체로 10% 이하에 집중된다. 그중 쌀은 논토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밭토양도 일정 비율을 보여 수도작·전작을 아우르는 입지가 확인된다. 조·기장, 보리·밀, 콩·팥속은 논토양 의존이 낮고, 일부 유적에서 밭토양 비중이 높아 전작에 유리한 환경이 드러난다. 과수토양은 전반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의도적 선택이라기보다 취락 주변 지형·토양의 부수적 반영으로 해석된다.

### 3.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자원 생산과 취락 입지 간 상관성 추정

취락과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① 해발고도, ② 하천과의 거리, ③ 경사향, ④

경사도, ⑤ 분포지형, ⑥~⑧ 논·밭·과수토양의 분포는 변이가 크고 특정 작물의 입지를 단일 요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변수와의 비교보다는 여러 환경 자료와 취락 입지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변량분석 기법인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시도하여, 환경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성분분석에서 성분적재값(component loadings)의 절대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는 그 성분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일 성분에서 적재값의 부호-양 혹은 음-가 같은 변수들은 해당 성분에서 유사한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범철 2017: 47).

주성분 분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해발고도와 경사도는 모든 작물에서 동일한 방향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므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제외한 두 변수들의 지형적 특성은 ‘분포지형’ 변수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sup>13)</sup>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주성분분석 결과

① 조·기장						② 쌀					
	1	2	3	4	5		1	2	3	4	5
구릉지	<b>-0.930</b>	0.182	0.269	-0.088	0.030	밭토양	<b>0.857</b>	-0.271	0.159	-0.027	0.028
밭토양	<b>0.626</b>	<u>0.550</u>	<u>0.334</u>	-0.072	0.211	논토양	<b>0.785</b>	0.245	-0.220	0.214	-0.164
충적지	<b>0.613</b>	0.125	0.450	<u>-0.501</u>	0.019	수계거리	<u>0.544</u>	<u>0.478</u>	-0.204	-0.214	0.172
논토양	-0.064	<b>0.934</b>	0.045	0.137	-0.057	충적지	0.245	<b>-0.812</b>	0.293	0.032	0.012
곡간지	0.075	-0.077	<b>-0.972</b>	-0.087	0.092	과수토양	0.177	<b>0.660</b>	0.144	-0.079	-0.018
산악지	0.234	-0.277	0.225	<b>0.818</b>	-0.161	구릉지	0.057	0.158	<b>-0.924</b>	0.235	-0.105
과수토양	-0.166	0.215	0.059	<b>0.738</b>	0.022	곡간지	-0.077	<u>0.488</u>	<b>0.624</b>	<u>0.519</u>	0.141
수계거리	-0.033	0.255	-0.261	<b>0.603</b>	0.279	산악지	-0.069	0.178	0.161	<b>-0.925</b>	-0.024
경사향	0.034	-0.026	-0.068	0.031	<b>0.973</b>	경사향	-0.030	0.008	0.113	0.040	<b>0.977</b>
③ 보리·밀						④ 콩·팥속					
	1	2	3	4	5		1	2	3	4	5
논토양	<b>0.934</b>	0.000	0.181	0.001	0.083	곡간지	<b>0.859</b>	<u>0.341</u>	0.050	0.243	0.257
과수토양	<u>0.513</u>	<b>0.713</b>	0.103	-0.046	0.226	구릉지	<b>-0.823</b>	<u>0.387</u>	0.159	0.283	-0.151
곡간지	0.130	<b>0.908</b>	-0.018	-0.099	-0.097	충적지	-0.043	<b>-0.925</b>	-0.188	0.041	-0.084
경사향	<u>-0.416</u>	<b>0.801</b>	-0.017	0.088	-0.059	밭토양	0.073	<b>-0.783</b>	<u>0.474</u>	0.132	0.030
충적지	-0.193	<u>-0.319</u>	<b>-0.843</b>	-0.280	0.134	논토양	-0.003	-0.195	<b>0.824</b>	0.199	-0.121
구릉지	0.088	<u>-0.389</u>	<b>0.824</b>	<u>-0.339</u>	-0.104	수계거리	-0.099	0.194	<b>0.730</b>	-0.241	0.159
수계거리	<u>0.321</u>	0.072	<u>0.509</u>	0.184	<b>0.668</b>	산악지	0.010	0.093	0.007	<b>-0.957</b>	-0.070
산악지	-0.010	-0.069	0.020	<b>0.990</b>	0.077	경사향	0.276	-0.122	-0.257	-0.039	<b>0.781</b>
밭토양	0.014	-0.073	-0.299	0.016	<b>0.902</b>	과수토양	0.070	0.167	0.248	0.109	<b>0.777</b>

① 조·기장

제1성분: 구릉지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밭토양과 충적지도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만 구릉지와는 역 상관관계이다.

제2성분: 논토양의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밭토양과도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보인다.

제3성분: 곡간지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밭토양과는 역 상관관계에 있다.

제4성분: 산악지와 과수토양, 수계거리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충적지는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나 이들과는 역 상관관계에 있다.

제5성분: 경사향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② 쌀

제1성분: 밭토양과 논토양이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며, 하천과의 거리에서 어느 정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제2성분: 충적지와 과수토양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둘은 역 상관관계이다. 수계거리와 곡간지는 과수토양과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제3성분: 구릉지와 곡간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역 상관관계이다.

제4성분: 산악지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곡간지도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지만, 역상관관계에 있다.

제5성분: 경사향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③ 보리·밀

제1성분: 논토양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과수토양과 경사향, 하천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이는데, 경사향은 나머지와 역 상관관계에 있다.

제2성분: 곡간지와 경사향, 과수토양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충적지와 구릉지와는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이지만 역 상관관계이다.

제3성분: 충적지와 구릉지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역 상관관계에 있다. 수계거리도 어느 정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제4성분: 산악지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구릉지는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이지만, 역 상관관계이다.

제5성분: 밭토양과 수계거리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④ 콩·팥속

제1성분: 곡간지와 구릉지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역 상관관계에 있다.

13) 네 분석 모두 5성분에서야 80% 이상의 설명력을 가진다.

제2성분: 충적지와 밭토양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곡간지와 구릉지는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이는데, 전자와는 역 상관관계에 있다.

제3성분: 논토양과 수계거리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밭토양도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

제4성분: 산악지가 가장 높은 (음의 방향) 상관관계를 보인다.

제5성분: 경사향과 과수토양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주성분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네 가지 곡물 모두에서 입지가 구릉이나 산록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자리하느냐, 아니면 충적지나 밭과 같이 낮고 완만한 지형에 자리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쌀은 논토양과 밭토양, 그리고 하천과의 근접성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물 관리가 가능한 저습지 환경을 중시한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조·기장은 충적지와 밭토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구릉지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밭작물 중심의 전형적인 입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보리·밀은 논토양과 곡간지·구릉지가 동시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특정 지형에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다양한 환경에서 재배되었음을 시사한다. 콩·팥속은 곡간지를 중심으로 하지만 구릉지와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고, 동시에 논토양과 하천 접근성도 영향을 주어, 여러 지형 조건을 융통성 있게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네 작물 모두 산악지는 일관되게 기피되는 공간으로 나타났으며, 각 작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결합하면서 입지 특성을 형성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생계 자원 이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물 유체가 출토된 취락을 대상으로 해발고도, 하천과의 거리, 경사향, 경사도, 분포 지형, 토양 분포 등의 환경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별 변수들의 분포와 주성분분석을 통해 환경 자료들과의 상관성을 탐색한 결과, 쌀은 수원 접근성과 논토양 분포가 두드러지며, 조·기장은 충적지와 밭토양, 보리·밀은 다양한 지형 및 토양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콩·팥속은 특정 토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지 않아 다양한 환경에서 재배가 가능하거나 생산 비중이 낮은 부차적인 작물이었을 가능성도 고려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동기시대 취락이 단순히 지형적 편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곡물 재배 방식과 생계 전략과도 일정한 관련성을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복수 작물 출토 조합을 별도로 범주화하지 않고, 단순히 중복 처리한 점이나, 기초 통계와 PCA 수준의 탐색적 분석에 머물러 생산 전략과 사회·경제적 인-정치경제적 측면—이나 다른 생계 자원 이용의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 점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전-중기 이행기와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취락 입지와 생계 전략의 다양성을 밝히는 작업이 부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청동기시대 취락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능동적으로 공간을 조직한 방식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동석, 2018, 「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한국고고학보』 109, pp. 66-105, 한국고고학회.
- 고민정·Bale, Martin,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문화」, 『韓國青銅器學報』 2, pp. 83-115, 韓國青銅器學會.
- 고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화전농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67, pp. 25-44, 韓國上古史學會.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동아시아 고고학물 선사시대 한국편』.
- 김민구, 2015, 「6 생계경제: 농경, 채집, 수렵, 어로」, 『한국 청동기문화 개론』,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6,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pp. 110-127, 과천: 진인진.
- 金範哲, 2005, 「鎡江中·下流域 青銅器時代 中期 聚落分布類型 研究」, 『韓國考古學報』 57, pp. 99~124,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6a, 「중서부지역 青銅器時代 水稻 生産의 政治經濟: 鎡江 中·하류역 松菊里型 聚落體系의 位階성과 稻作集約化」, 『한국고고학보』 58, pp. 40-65,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6b, 「忠南地域 松菊里文化의 生計經濟와 政治經濟: 農業集約化 관련 설명모형을 통해 본 水稻作」, 『湖南考古學報』 24, pp. 65-96, 湖南考古學會.
- \_\_\_\_\_, 2011, 『쌀의 고고학: 한국 청동기시대 水稻作과 정치경제』, 서울: 민속원(2월).
- \_\_\_\_\_, 2017, 「가덕도(장항)유적의 사회적 생물고고학: 신석기시대 매장관행에 대한 통합적 이해 시론」, 『韓國新石器研究』 34, pp. 35-64, 韓國新石器學會.
- \_\_\_\_\_, 2022, 「청동기시대 취락변천상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세종특별자치시 유적을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51, pp. 5-34, 호서고고학회.
- \_\_\_\_\_, 2023a, 「美湖江유역 청동기시대 사회·문화의 맥락적 이해」, 『역사와 담론』 105, pp. 465-503, 호서사학회.
- \_\_\_\_\_, 2023b, 「충청북도 동부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맥락적 이해」, 『先史와 古代』 73, pp. 5-27, 韓國古代學會.
- 金範哲·金庚澤·朴姓煥, 2020, 「美湖川 유역 支石墓에 대한 綜合的 이해」, 『역사와 담론』 95, pp. 95-147, 湖西史學會.
- 김신우, 2012, 「한반도 중서부 지방 주거지와 지석묘의 공간분석에 대한 시론: 환경요인(environmental elements) 분석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36, pp. 5-37, 韓國古代學會.
- 金成旭, 2022,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작물유체의 상관관계 연구」, 圓光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洙連, 2025, 「송국리유형 물질문화의 만경·동진강유역 확산에 대한 이해」,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김종일, 2006a,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가능성」, 『한국고고학보』 58, pp. 110-145, 한국고고학회.
- 김현준, 2007, 「北漢江流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立地에 대한 檢討: 生業과 關聯하여」, 『江原考古學報』 10, 강원고고학회.
- \_\_\_\_\_, 2017, 「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羅建柱, 2013, 「青銅器時代 前興聚落의 成長과 松菊里類型 形成過程에 대한 研究: 韓半島中西部地方 資料를 中心으로」,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박서현, 2016,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취락과 생업도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53, pp. 26-45, 湖南考古學會.
- 박수진·손연규·홍석영·박찬원·장용성, 2010, 「한국 주요 토양유형의 공간적 분포와 토양형성요인을 이용한 예측가능성 평가」, 『대한지리학회지』 45, pp. 95-118, 대한지리학회.
- 朴性姬, 2006, 「青銅器時代 聚落類型에 대한 考察: 中西部地域遺蹟을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 54, pp.

- 21-47, 韓國上古史學會.
- 박영구·허의행, 2022, 「북한강유역 미사리유형 취락의 입지환경 변화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31, pp. 4-33, 한국청동기학회.
- 서경, 2016, 「GIS를 이용한 한반도 중·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취락 입지 연구: 초기 농경 확산과 취락 입지 변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 안승모, 2006,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출현의 상관관계」, 『韓國新石器研究』 11, pp. 25-54, 韓國新石器學會.
- 安承模, 2008, 「韓半島 青銅器時代의 作物組成: 種子遺體를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28, pp. 5-50, 湖南考古學會.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pp. 41-66, 韓國考古學會.
- \_\_\_\_\_,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대학교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윤호필, 2010,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 『慶南研究』 3, pp. 4-25, 慶南研究院.
- 李康承·朴淳發, 1995, 「Ⅵ. 屯山 青銅器時代 遺蹟의 編年의 位置 및 性格」, 『屯山』, 忠南大學校 博物館 叢書 第12輯, pp. 292-296, 忠南大學校 博物館.
- 이경아, 2014, 「한반도 신석기시대 식물자원 운용과 두류의 작물화 검토」, 『中央考古研究』 15, pp. 41-60, 중앙문화재연구원.
- 李基星, 2001, 「無文土器時代 住居樣式의 變化: 忠南地方을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14, pp. 119-152, 湖南考古學會.
- 李珉榮, 2021, 「서울·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생計資源 생산방식」,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수홍, 2014, 「제1장 취락의 입지」,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聚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김관구·공민규 편, pp. 17-33, 서울: 서경문화사.
- 李亨源, 2009, 「韓國 青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이흥중, 2003, 「松菊里型 聚落의 景觀의 檢討」, 『湖西考古學』 9, pp. 113-132, 湖西考古學會.
- 이흥중·손준호, 2012, 「충적지 취락의 자연환경」, 『嶺南考古學』 63, pp. 36-69, 嶺南考古學會.
- 이흥중·허의행, 2010,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입지와 생업환경」, 『한국고고학보』 74, pp. 4-45, 한국고고학회.
- 崔範植, 2015, 「青銅器時代 中期 文化波及樣相 研究: 北漢江·南江流域 沖積地 聚落의 生計經濟戰略과 관련하여」, 忠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최정선·곽두안·권순덕, 2019, 「산지 지형 및 생태적 입지를 고려한 산지이용 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2-4, pp. 59-71, 한국지리정보학회.
- 최희만, 2005, 「GIS를 이용한 전통취락의 지형적 주거입지 적합성 분석」, 『地理學論究』 24, 慶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 춘천 중도동유적 연합발굴 조사단, 2020, 『춘천 中島洞遺蹟 Ⅵ. 부록』.
- 트리거, 부르스 [성춘택 옮김], 2019, 『고고학사 (개정 2판)』, 서울: 사회평론.
- 켈리, 로버트 [성춘택 옮김], 1994, 『수렵채집 사회: 고고학과 인류학』,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6, 서울: 사회평론.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6, 『광명 가학동 산100-3번지 유적: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鎭川 佳山里 遺蹟: 진천 가산리 (주세양물류 창고신축 증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學術報告 第64冊.
- 洪周希, 2004, 「漢江流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立地과 住居樣式과의 關係에 대한 研究」, 漢陽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許義行, 2013, 「湖西地域 青銅器時代 前期 聚落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_\_\_\_\_, 2021, 「청동기시대 논 경작지의 입지 환경과 관계 체계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8, pp. 4-30, 한국청동기학회.
- Bailey, G., 2005, Site Catchment Analysis, In Colin Renfrew and Paul Bahn (eds.), *Archaeology: The Key Concepts*, pp. 158-162,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nning, E. B., 2002, *Archaeological Survey*, New York: Kluwer Academic.
- Binford, L. R., 1980, Willow Smoke and Dogs' Tails: Hunter-Gatherer Settlement Systems and Archaeological Site Formation, *American Antiquity* 45(1): 4-20.
- Conolly, J., and Lake, M., 2006,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der and Orton, 1976, *Spatial Analysis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son, J. C., 1969, A Location Theory for Rural Settle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9(2): 365-381.
- Hutchinson, G. E. 1957, Concluding Remarks, *Cold Spring Harbor Symposium on Quantitative Biology* 22: 415-427.
-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 Jarman, M. R., Vita-Finzi, C., and Higgs, E. S., 1972, Site Catchment Analysis in Archaeology, In P. Ucko, R. Tringham, and G. Dimbleby (eds.), *Man, Settlement and Urbanism*, pp. 61-66, London: Duckworth.
- Langgut, D., Finkelstein, I., Litt, T., and Stein, M., 2021, Vegetation and climate in the Negev Highlands (southern Levant) during the Bronze and Iron Ages: Pollen evidence from archaeological sites, *PLOS ONE* 16(5): e025096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0964>
- Odling-Smee, J., K. N. Laland, and M. W. Feldman, 2003, Ch. 1. Introduction, In *Niche Construction: the Neglected Process in Evolution*, Odling Smee, J., K.N. Laland, and M. W. Feldman (Eds.) pp. 1-35,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ösch, M., Wick, L., and Dietre, B., 2021, Bronze Age land use and vegetation history in the Northwestern Alps: Multi-proxy evidence from colluvial deposits and peat bogs, *SOIL* 7: 269-288. <https://doi.org/10.5194/soil-7-269-2021>
- Steward, J. 1955. *Theory of Culture Change: The Methodology of Multilinear Evolu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Verhagen, P. 2007. *Case Studies in Archaeological Predictive Modelling*. BAR International Series 3453.
- Vita-Finzi, C. and Higgs, E. S., 1970. Prehistoric Economy in the Mount Carmel Area of Palestine: Site Catchment Analysis,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36: 1-37.
- Wilkinson, T. J. 2003. *Archaeological Landscapes of the Near East*,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Wilkinson, Tony J., Eleanor Barbanes Wilkinson, Jason Ur, and Mark Altaweel, 2005, Landscape and Settlement in the Neo-Assyrian Empire,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340: 23-56.
- Wood, John J., 1978, Optimal Location in Settlement Space: A Model for Describing Locational Strategies, *American Antiquity* 43(2): 258-270.

## 부록표. 청동기시대 생계 자원(종실) 출토 유적

연번	구분	유적명	시기	조·가장	쌀	보리·밀	콩·팥속	과실류
1	영동	강릉 교동	전기	X	○	X	X	
2	영동	고성 사천리	전기	X	○	X	X	
3	영서	춘천 증도	중기	○	○	X	○	
4	영서	춘천 천전리	전·중기	X	○	X	○	
5	영서	가평 달전리	중기	X	○	X	○	참외
6	영서	가평 대성리	중기	○	○	X	X	
7	영서	가평 연하리	전기	○	○	X	X	
8	경기	광명 가학동(12지점)	전기	X	X	X	○	
9	경기	부천 고강동	중기	X	○	X	X	
10	경기	양평 양근리	중기	X	X	X	○	
11	경기	여주 혼암리유적	전기	○	○	X	X	
12	경기	평택 소사동	전기	X	○	○	X	
13	경기	하남 미사리	전기	○	○	X	X	
14	경기	화성 고금산	전기	X	○	X	X	
15	호서	논산 마전리(C지구)	중기	○	○	X	X	도토리, 포도속
16	호서	논산 원북리	중기	X	○	X	X	
17	호서	당진 자개리 I	중기	X	○	○	○	
18	호서	대전 신대동	전기	X	○	X	X	
19	호서	보령 관산리	중기	X	○	X	X	
20	호서	보령 소송리	중기	X	○	X	X	
21	호서	보령 주교리	전기	○	X	X	X	
22	호서	보령 평라리	중기	X	X	○	○	
23	호서	부여 가중리	전기	X	○	X	X	
24	호서	부여 송국리	중기	○	○	○	○	
25	호서	서산 휴암리	중기	X	○	X	X	
26	호서	서천 도삼리	중기	X	○	○	○	견과류?
27	호서	서천 월기리	중기	○	○	○	○	
28	호서	아산 대흥리(큰선장)	전기	X	○	X	X	
29	호서	아산 덕지리	중기	○	X	X	X	
30	호서	아산 시전리	중기	X	○	○	○	
31	호서	아산 용두리(진터)	전기	X	○	○	○	
32	호서	아산 용화동(가재골)	전기	X	○	○	○	
33	호서	아산 장재리(안강골)	전기	○	X	X	X	견과류?
34	호서	연기 대평리	전기	○	○	X	X	
35	호서	연기 송담리	전기	○	○	X	X	
36	호서	예산 신가리	전기	X	○	○	X	
37	호서	진천 가산리	전기	X	○	X	X	
38	호서	천안 대흥리	중기	X	○	X	X	
39	호서	천안 백석동(고재미골)	전·중기	○	○	○	○	
40	호서	천안 백석동	전기	X	○	X	X	
41	호서	청원 궁평리	중기	○	○	X	○	
42	호서	충주 조동리	전기	○	○	○	X	복숭아, 개암, 도토리, 박
43	호서	태안 고남리	중기	○	○	X	X	
44	영남	거창 대야리	중기	X	○	X	X	
45	영남	경주 화천리	중기	○	○	X	○	

연번	구분	유적명	시기	조·가장	쌀	보리·밀	콩·팥속	과실류
46	영남	김천 송죽리	전기	○	○	X	X	
47	영남	김천 지좌리	중기	○	X	X	X	도토리
48	영남	울산 검단리	중기	X	○	X	X	
49	영남	울산 교동리(456)	중기	X	○	X	X	
50	영남	울산 교동리	전·중기	○	○	X	○	
51	영남	울산 굴화리(생기들)	전기	○	X	○	X	
52	영남	울산 굴화리(장검) II	전기	X	X	○	X	
53	영남	울산 다운동(436-5)	중기	○	X	○	○	
54	영남	울산 다운동 II	중기	○	○	○	○	
55	영남	울산 달천	전기	○	○	X	X	산딸기속
56	영남	울산 덕신리(오산)	전기	○	○	○	○	
57	영남	울산 매곡동(IV지구)	전기	○	○	○	X	
58	영남	울산 반영리(가막뫼)	중기	○	X	X	X	산딸기속
59	영남	울산 상안동	중기	X	○	X	○	
60	영남	울산 상연암	중기	○	○	X	○	
61	영남	울산 신현동(황토전)	중기	X	X	X	○	개머루?
62	영남	울산 인보리(법답들)	전기	○	X	X	○	
63	영남	울산 중산동(약수) II	중기	○	○	○	X	
64	영남	울산 천공동(가재골) I	중기	○	○	X	○	가래, 포도속
65	영남	울산 천공동(가재골) II	전·중기	○	○	○	○	산딸기속
66	영남	울산 천공동(가재골) III	중기	○	○	○	○	
67	영남	울산 천공동(가재골) IV	전기	○	X	X	X	
68	영남	진주 대평리(어은 1지구)	전·중기	○	○	○	○	머루속, 산딸기속
69	영남	진주 대평리(옥방 1지구)	전·중기	○	○	○	○	
70	영남	진주 대평리(옥방 2지구)	중기	○	○	X	X	
71	영남	진주 대평리(옥방 4지구)	중기	○	○	○	○	도토리
72	영남	진주 대평리(옥방 5지구)	전기	X	○	X	X	
73	영남	진주 대평리(옥방 6지구)	중기	○	X	○	○	견과류?
74	영남	진주 대평리(옥방 9지구)	중기	○	○	○	○	
75	영남	진주 상촌리(B지구)	전기	○	○	○	X	
76	영남	진주 평거동(3-1지구)	전·중기	○	○	○	○	견과류
77	영남	진주 평거동(3-2-2지구)	중기	X	X	○	X	
78	영남	진주 평거동(3-2-2지구)	중기	○	X	○	X	
79	영남	진주 평거동(4-1지구)	전·중기	○	○	○	○	견과류
80	영남	청도 송읍리 I	전기	X	○	X	X	
81	영남	포항 원동	전기	X	X	X	○	
82	영남	합천 봉계리	전기	X	○	X	○	
83	호남	군산 노래섬(가도)	중기	X	○	X	X	
84	호남	군산 띠섬	중기	X	○	X	X	
85	호남	김제 상동동 I	전기	X	○	X	X	머루
86	호남	부안 소산리	중기	X	○	X	X	
87	호남	순천 대곡리	중기	X	○	X	X	
88	호남	익산 송학리	중기	X	X	X	○	
89	호남	익산 영등동	중기	X	○	X	X	
90	호남	익산 용거리 I	전기	○	○	X	○	
		계		46	71	31	38	

## 제3발표

# 취락의 입지와 유통 체계: 남강유역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과 유통

황재훈(충남대학교 고고학과)

## I. 머리말

청동기시대 중기 농경의 본격화는 도구 및 생업기술의 변화를 시작으로, 가족 구성과 주거 구조의 변화, 취락 체계의 재편과 성장, 잉여 산물에 대한 관리와 전용,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계층 분화와 위력자의 등장과 같은 사회 체계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에 현 청동기시대 중기 논의에서는 환경, 생업, 경관, 네트워크, 사회, 정치, 의례, 이데올로기 등 실로 다양한 측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업경제 체제의 전환은 취락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였는데,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취락의 입지 또한 이와 연동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취락의 입지를 결정하는 자연적 요인으로 강과 하천, 지하수 등 수자원의 접근성이 있으며, 농사와 관련된 토양 및 지형 또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을 중시한다면 교통의 편리성이나 시장과의 근접성, 중심지와의 물리적 거리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방어, 종교, 문화적 조건과 같은 사회정치적 요인 또한 취락 입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기초하여 취락 내부를 들여다보면, 입지에 따라 주거나 무덤, 고상가옥, 구상유구, 길과 같은 유구의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결국 거시적 차원에서의 취락 구조나 취락 경관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 또한 도구와 물품을 비롯하여 음식 자원, 상용자원영역과 같은 생업 경제적 측면과도 관련성이 높다. 더 나아가 문화적-경제적 상호작용이나 통혼권, 시장과 같은 네트워크와도 관련성이 높다.

본 발표는 후자의 측면에서 취락의 입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유통 체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유통이란 사전적 의미로 상품 따위가 생산자·소비자·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이 같은 유통의 정의에 준거한다면, 생산적 요건과 수요적 측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우선 전문 생산자에 의해

제작된 상품이 존재해야 하며, 물품들이 소비자에게 공급·분배되는 물류 시스템(중계인, 상인, 시장 등) 또한 부차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통로 및 운송수단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생산품들은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량자원, 연료, 원자재, 특산물, 완성된 물품 등이 취락 내 개인, 취락 간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었을 것이지만, 식량자원과 같은 가시성이 낮은 물품보다는 토기나 석기와 같은 도구들이 생산과 유통을 논하는 데 있어 실증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구는 기능적 필요를 위한 생계 필수품과 사회정치적 필요에 의한 비생계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는 생산가격, 생산량, 노동시간, 운송거리, 운송비용 등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 있어 적잖은 편차를 보이는바 이를 구분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취사용 일상토기나 공구용 석기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경우 개인 간 차별화나 취락 간 위계차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위신재나 장신구, 특수용품과 같은 비생활용품을 통해 사회경제적 차별성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물품 간 특징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자원이나 물품의 이동을 넘어 사회정치적 배경을 살필 수 있는 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도 교환·분배 활동 여부를 추정케 하는 채문토기나 옥 장식구, 장식석검, 청동기와 같은 양질의 전문용품이 발견되지만, 대부분 생산지를 특정할 수 없기에 물품의 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유통 체계를 실증적으로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마나 공방지와 같은 생산 공간과 의례유구, 분묘군 등 소비 공간을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기 취락이 청동기시대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찰하는 데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취락 입지 차이에 따른 유통 체계를 비교할 수 있는 유적군과 단위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연구 대상으로 중기 남강 유역이 주목된다.

## II. 논의의 전제: 생산과 유통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는 과거 인류가 사용한 물품의 이동을 넘어, 교환·분배 경제 및 취락-지역 간 상호작용 등 사회경제적 부문을 살필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특정 유물의 분포와 밀도, 유적의 성격과 규모 등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생산지와 소비지가 상정되어야 하며, 물품 또는 사람의 이동에 대한 설명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단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의 첫 단계로 본 장에서는 본 주제인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유통 간 상관관계를 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물품 생산과 유통 체계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 고고학적 설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왕의 여러 연구에서는 토기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유통 체계를 다루었고 본 발표문에서도 주 연구 대상이 토기인바 논의의 흐름을 같이 하기로 한다. 더불어 청동기시대 생산·유통 체계에 대한

보다 많은 고고학적 근거 제시를 위해 석기나 기타 장식품 등 여타 물류 사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 1. 생산 체계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토기 생산 체계는 어느 수준이었을까? 생산 조직과 공정은 과연 체계적이었을까? 토기의 크기 및 기종·기형을 비롯하여 유적 내 가마의 유모, 가마의 수량과 형태 등의 기초적인 지표 아래 생계경제 형태, 유적의 성격과 규모, 직업의 전문화 및 사회 복합화의 정도를 통해 당대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토기 생산 체계에 접근하는데는 적잖은 한계가 있다. 예컨대 원로 채토장, 제작공방, 가마와 같은 토기 생산 관련 자료)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며 제작과 관련된 유구·유물의 가시성 또한 다소 낮은 탓에 현재 수준에서는 청동기시대 토기 생산 공정의 극히 일부만이 복원되고 있다.

토기의 생산 체계는 생산의 전문화와 집중화, 노동 시간의 집약도, 생산량의 규모에 따라 가내제작 단계에서부터 가내공작, 공방공작, 마을공작, 대규모공작 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다 (Van der Leeuw 1977, Rice 1981, Peacock 1982, Costin 1991, 시노폴리 이성주 역 2008). 이러한 차이는 크게 생산 단위(개별 가족/반전업 공인/소수의 전문장인/다수의 전문장인)와 소비 단위(개별 가족/마을 내 구성원/마을 외부)에 기초하여 구분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토기의 표준화 정도, 공방(단지) 여부, 경제활동(주 수입/부 수입), 일상품과 위세품 간 양식·기술적 편차, 판매 및 교환 여부, 유통 네트워크 범위 등도 세부적으로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이들 조합과 합산 점수에 기초하여 생산 체계의 유형화 및 전문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표 1).

토기 생산 체계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역사와 선·원사시대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세부 시기나 취락 크기나 성격(중심/주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토기의 용도(일상용/특수용/위세품)에 따라 생산 체계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대, 시기라고 할지라도 지역성 및 물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 체계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토기 연구에서도 세부 시기 및 단위 지역, 세부 기종에 따라 생산 체계 수준의 차별성이 확인되는바 동일 시기, 동일 지역, 동일 취락이라도 서로 다른 생산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간이 지남에 따른 생산 체계의 발전을 논한 견해로, 다자키 히로유키(田崎博之 2005)는 전기 보령 관산리유적과 같은 소규모 취락에서는 자가생산, 자가소비 형태의 소규모생산 체

계였다가, 중기 관창리유적과 같은 대규모 취락 1기에는 소규모 토기생산을 집합시키는 협업 체계가 확립되며, Ⅱ기에는 소성시설을 집중시킨 공방구역에서 집중 생산되는 분업생산체계가 확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점차 단위집단 간의 노동편성이 재편되어 특정 단위집단이 토기를 전업 생산하는 체계로 변모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은채(2022)는 호서지역의 경우 중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역 내 유통이 이루어질 만큼 표준화된 토기 생산체계가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단위 지역 간, 취락 간 생산 체계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민정(2005, 2020)은 대평리유적에서 고도의 제작기술이 필요한 (황침선문) 적색마연토기가 다양한 기종을 보이며, 조리거나 식기와 같은 일상용기로도 다수 생산·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적색마연토기의 전문 생산 집단(반전업 공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다른 견해로 부승아(2023)는 아산만지역과 남한강유역 전기 유적에서 다수 발견되는 적색마연토기는 개별 취락 내 자체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아산만지역 역삼동유형 취락 출토 적색마연토기의 경우 근거리 유적 간, 동일 유적 내에서도 형태적 유사도가 낮아 교환·유통된 경제적인 물품이 아닌 개별 취락 내 자체적인 생산·소비품으로 보았다.

〈표 1〉 토기 생산 체계의 기준과 유형

개별 기준	종합
I. 생산 단위의 주체 0. 개별 가족(비전업) 1. 반전업 공인 2. 전업공인: 소수의 전문장인 3. 전업공인: 다수의 전문장인 II. 소비 단위의 주체 0. 개별 가구 1. 마을 내부 구성원 2. 마을 외부: 지역권(30km) 내 3. 마을 외부: 지역권(30km) 외 III. 표준화 정도 0. 낮음: 변동계수 1. 중간: 변동계수 2. 높음: 변동계수 IV. 생산 시설 0. 소수의 소성유구(수혈) 1. 다수의 소성유구(수혈) 2. 가마와 공방 기타. A. 생산 규모와 집중도 B. 제작자의 경제활동(주 수입/부 수입) C. 일상품과 위세품 간 양식·기술적 편차 D. 판매 및 교환 여부 E. 유통 네트워크 범위	마을공작 또는 대규모공작: 8~10점 - 마을 내 다수의 공인과 공방 결집 - 작업 공정 전문화 - 대량 생산 - 높은 수준의 표준화 - 연중 토기 제작 - 광범위한 분배 네트워크 - 엘리트 전용 물품 공방공작: 5~7점 - 전문 공인이 공방에서 제작 - 마을 내·외부 소비 - 생산 규모 증대 - 표준화 증대 - 교환 관계 가내공작: 2~4점 - 개별 가구, 마을 내 소비 - 비전업(임시) 또는 반전업 공인 - 낮은 수준의 표준화 - 한정적 제작 가내제작: 0~1점 - 개별 가구 - 비전업(임시) - 낮은 수준의 표준화 - 소량 생산

1) 소성유구에 한정된다. 보령 관창리, 부여 송국리, 순천 대곡리 도롱, 거창 대야리, 울산 화정동, 공주 안영리, 서천 오석리, 서천 옥북리 유적 등지에서 소수 확인되었다. 예외적으로 진주 대평리유적에서는 다수의 소성유구, 구상요, 수혈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야외노지로 보고된 일부 유구들은 소성유구일 가능성이 있기에 보다 많은 토기생산시설이 설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토기 기종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 체계가 공존한다는 견해로, 이성주(1991)는 일상용 무문토기는 비전문가에 의해, 부장용 · 의례용 적색마연토기는 전업생산체계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았다. 황재훈 · 이정은(2022)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견해로 일상용 무문토기는 가내 수공업자, 적색마연토기는 반전업도공그룹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정은(2023)은 금강유역 중기 송국리유형의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호는 동시기 외반구연토기에 비해 표준화 정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중기의 대규모 취락(예를 들어 대평리유적)에서는 마제석검과 옥장신구의 제작과 생산은 (반)전업적 전문 공인집단을 중심으로 한 분업체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庄田慎矢 2005, 2006, 홍주희 2009, 2013, 손준호 2010, 황창한 2013, 고민정 · Matin 2008, 장용준 · 卞郡達哉, 2009, 고민정 2016, 2020).

상기 연구를 종합한다면, 청동기시대 중기 들어 일부 지역에서의 토기생산은 전기와 달리 표준화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일상용의 무문토기 보다는 특수용의 적색마연토기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마제석검, 옥 장신구, 청동기와 같은 기술집약적 제품들이 기존의 가내수공업 단계를 탈피하여 상대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수공업 전문화가 진전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고민정 2016).

## 2. 유통 체계

먼저 청동기시대 중기의 교환 · 유통 체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르트(2020)에 따르면, 유통은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형태의 자원이 사회 전반에 배분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Hirth 2020), 한국의 청동기 사회는 지역이나 물품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교환경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 간 자원의 직접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유통 또는 교환의 형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 사용하는 유통의 의미는 호혜적 교환과 의례적 교환과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비시장교환을 비롯하여 물물교환 및 경제적 동기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시장교환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유통이란 생산지에서 소비한도 이상 전문적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분배지를 거쳐) 마을 내 · 외의 소비지로 전달되는 물품의 공간적 이동으로, 이 과정에는 물품의 대가로 화폐나 또 다른 물품으로의 교환과 같은 다양한 경제행위가 내재되어 있다.

소규모 취락이나 복합화가 진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가구나 취락 단위에서 자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사회복합도가 증가할수록 경제활동은 엘리트나 제도에 의해 통제되며 개인이나 취락 단위의 소비를 넘어 지역 교환이나 재분배, 무역을 위한 물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유통은 생산 체계와 연동할 수밖에 없는데, 교환되는 대상은 가내

제작 및 가내공작 뿐만 아니라 (반)전업 공인에 의한 공방공작 수준에 이르는 생산 물품을 아우른다. 예컨대 손준호(2010)에 연구에 따르면,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주로 취락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자급적 생산 체계였던 데 반해, 후기 송국리단계에 이르면 반전업적 전문 제작 집단으로 구성된 석기제작 전문 취락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취락 내 소비를 넘어 교역을 목적으로 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수공업품의 교환 · 유통과 같은 경제활동의 배경에는 취락 간 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호혜적 접근과 같은 생계경제 연맹망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옥 장신구, 특수용 토기와 석기, 농경 도구 등 수공업품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물, 산림 · 해양 자원과 같은 식량자원, 필수품, 기타 원자재 등도 취락 간 다양한 형태로 교환되면서 상호작용망 및 네트워크 체계가 형성 ·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중기에는 일정한 생산과 유통의 원리 아래에서 다양한 경제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물품 교환과 유통의 지리적 · 사회적 범위에 대해 고찰해 보자. 수렵채집사회의 경우, 식량자원의 확보 및 위험 부담을 줄이는 전략으로써, 통상 100~700km에 이르는 (초)광역교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석이나 물자를 교환하지만(Gamble 1999, 성춘택 2019), 농경사회에 들어서면 토지 점유 방식을 비롯하여 네트워크나 유통망 등으로 인한 사회적 · 문화적 경계가 형성되면서 범위는 점차적으로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물품 종류나 가치에 따라 교환유통 범위를 달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위신재나 장식품, 외래 문물은 단위 지역을 넘어 장거리 교환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최중규(2000)는 진주 대평리 취락의 천하석제 옥은 반경 40~60km의 거리인 경남 서부~전남 동부~남해안 지역 일대로 유통되었다고 보았으며, 쇼다신야(2005)에 따르면, 꼬막은 패제장식구 제작을 위해 사천만 일대에서 유입되었다고 한다. 또한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유절병식 마제석검, 병부과장식 석검, 혼펠스제 석기도 비교적 광범위한 상호작용망이 제시되고 있다(張龍俊 · 卞郡達哉 2009; 이종철 2016, 2021; 황창한 2019). 한편 손준호(2010)는 마제석검이나 옥 등 특수 유물과 달리 일반적인 석기는 가까이 제작 전문취락, 수입 취락, 자가 소비 취락이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세부적으로 취락 입지, 교환과 유통의 형태(예를 들어, 방문, 생산자 순회, 중개자, 시장 등), 운송비용과 교통로(수로, 해로, 육로) 등 다양한 요인 또한 유통 범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 분석 대상지역인 남강유역의 경우, 중기 취락의 대부분이 강변 충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수공업품 생산지이자 시장인 대평리 취락으로부터 공급된 여러 물품 및 농경 생산물과 함께 산림자원, 원자재 등이 수로를 통해 교환 ·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운송량과 속도, 안정성 등의 운송 비용을 감소시키고 유통 거리를 증가시키는 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운 교통에 의한 유통 체계가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Ⅲ. 방법론

청동기시대 중기의 경제적 측면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이나 물품에 따라 가내 공작과 전문 생산, 가구경제와 시장경제, 물물교환과 시장교환 사이의 다양한 과도기적 형태가 공존하며 복잡하게 전개되어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생산과 유통 체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적 지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생산과 유통 체계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적 지표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물품의 규격화 여부를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론을 살펴보고 변동계수를 이용한 토기의 표준화 측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유통거리와 물품 수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유통 체계를 고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변동계수를 이용한 토기의 표준화 측정

청동기시대 중기 수많은 가구와 취락에서 표준화 정도가 다른 일상용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가 공존하였다는 사실은, 단위 지역이나 개별 취락에 따라 가내제작 수준에서 가내공작~공방공작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산체계가 병행되었음을 반영한다.

이 같은 원인은 아마도 당시 생업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농경 형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작지, 관개수로, 저수지와 같은 농업 기반시설 건설과 관리, 경작과 수확 등에 투입되는 많은 노동력을 고려한다면, 개별 가내에서 일상용 토기가 아닌 특수 용기나 석검·옥 장신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특정 취락이나 집단에서 제작을 전담하는 전락이 훨씬 경제적이었을 것이다.

취락 차원으로 살펴보자면, 소규모 취락의 경우 구성원 대부분의 노동 시간이 농업 활동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규모 취락의 구성원들은 농경 외에도 여타 수공업 활동을 통한 생산 경제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원료의 획득에서부터 물품의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경로나 설비시설, 운반 등 여러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보아도 전자보다는 후자의 취락에서 수공업 생산 경제의 축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상기 물품들은 일상용 토기나 공구에 비해 규격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며, 물품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표준화의 수치 또한 상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전문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 기초하여, 토기의 형태적 상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 동시기 서로 다른 취락에서 발견된 토기의 형태적 상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동일 생산지에서 제작된 제품의 이동<sup>2)</sup>: 생산지의 제작자는 전문성이 높았을 가능성

이 높으며, 물품들의 표준화 정도가 높았을 것이다.

② 기술과 양식의 확산(아이디어의 전파, 모사와 모방 등)에 따른 동화 현상: 표준화 정도가 낮으며 취락 간 상이성의 정도가 다양할 것이다.

나. 동시기 동일 취락 내 출토 여러 토기의 형태적 상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① 동일 생산지에서의 제작상의 차이: 전문성이 낮은 제작자로부터 생산된 토기는 통일되지 않는 형태나 규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② 서로 다른 생산지에서 제작되어 이동: 생산지가 여러 곳일수록 표준화 정도는 낮을 것이며, 동일 생산지에서 제작된 물품은 표준화 정도가 높을 것이다.

다. 특정 취락에서 생산된 토기의 유통 거리와 생산량은 어느 정도였을까?

① 일상용 무문토기는 인근 지역에서 이동되었을 것이다.

② 특수용 적색마연토기는 유통 거리가 넓었을 것이며, 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이상 청동기시대 중기 토기의 생산체계는 가내제작 뿐만 아니라 가내공작과 공방공작 등 다양한 수준이 공존한 양상을 전제에 두고 토기의 상사성과 상이성의 정도, 유통 거리와 생산량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일상용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의 규격화 또는 표준화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물의 원료, 제작 기법, 형태, 문양 등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이질성을 근거로 표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가내생산 또는 전문생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조대연·이동희 2012). 다시 말해 유물의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전업 또는 반전업 공인에 의한 제작, 생산기술의 발전, 생산량의 증대, 소비 단위 및 유통 범위의 확대 등 여러 경제적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많은 연구에서는 제품의 표준화 수준을 측정하여, 과거 사회의 생산 체계와 유통 체계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수공업품의 표준화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특정 취락 내 다수의 토기가 발견되었고 여러 연속형 속성을 측정한다고 가정해보자. 분석 결과, 토기의 구경과 저경, 높이, 동최대경 등 변수별 대푯값과 산포도를 구할 수 있는데, 산포도는 각 변수들이 대푯값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모든 토기의 구경이 10cm라면 산술적으로 산포도는 0이며, 각 토기의 구경이 다를수록 산포도는 커지게 된다. 이러한 계량적 분석에 기초한다면, 물품들의 산포도를 통해 개체 간 변동성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특정 수공업품의 전문생산이 이루어졌다면, 분산이나 표준편차의 값을 비교하여 제품의 규격화 또는 획일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20세기 중반 이래 유물의 화학적 성분 분석법을 통한 산지 추정 분석(Provenance postulate Analysis)이 실시되어 고고 자료의 이동과 경제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우 2023).

산포도의 정도는 범위, 표준편차, 분산과 같은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표들은 원자료의 단위(길이, 각도, 두께, 무게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샘플집단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반면에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sup>3)</sup>는 단위가 없는 상대적 산포도 지표로서 평균이 큰 집단과 작은 집단 간의 흠어짐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0년대 이래 제작 기술 및 생산 전문화 연구는 이와 같은 유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제품의 획일화 정도를 비교하고 있다(Costin 1991; Arnold 1993; Junker 1993; Costin and Hagstrum 1995; Crown 1995, Longacre et al 1988; Stark 1995; Eerkens and Bettinger 2001; VanPoll and D.Leonard 2002; Roux 2003). 예를 들어 Roux(2003)는 스페인 텔히와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마을에서 생산된 토기 생산량과 변이계수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는데, 도공당 연간 14,000기를 제작하는 텔히 마을의 변동계수는 3% 미만으로 전문가에 의한 대량생산, 연간 6,000기를 제작하는 프라데시 마을의 변동계수는 6% 미만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소규모 생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민족지 사례를 한국 선사~고대 토기 생산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 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일 시기 취락 간 토기 생산기술 및 생산량의 편차에 근거하여 볼 때, 비슷한 패턴을 읽을 수 있다. 이에 한국고고학에서도 유물의 표준화 정도를 측정하여 과거 생산체계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조대연·이동희 2012; 정수옥 2018; 김은채 2021; 황재훈

·이정은 2022). 이 연구들에서는 공히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물품의 표준화 또는 규격화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한편, 허진아 외(2022)는 기존 변동계수 값을 비교하여 표준화를 측정하는 방법의 몇 가지 문제점(예를 들어, 서로 다른 모양의 두 물체의 치수가 동일할 경우, 동일한 형태로 판정되는 오류)을 지적하며, 토기의 형태 및 형태 변화에 있어 객관적 측정 지표를 설정하여 표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측정법(Geometric Morphometrics, GM)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공방·장인의 반복적인 생산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변동 감소를 나타내는 기계적 표준화(mechanical standardization)가 표준화 가설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제품의 형태 변화 자체에 주목하였다(허진아 외 2022). 이에 기초하여 토기의 기계적 표준화 정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속성으로 형태를 구성하는 변수인 높이, 구경, 동최대경을 주목하였다(Junker 1994).

상기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볼 때, 물품 간 형태적 균일성은 제작 공정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의한 통계적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청동기시대 중기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의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상대적인 표준화 수준 및 생산 전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 2.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와 물품 수량의 상관관계

공간적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동일한 형태의 유물이 확인된다면, 당시 교역 네트워크나 분배 시스템을 살필 수 있다. 원자재의 산지나 물품의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의 거리, 빈도, 수량 등의 수치를 통해 이동성, 교역, 거점 등 과거 사회경제적 측면에 접근하는 고고학적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enfrew 1977, Smith 1990, Stark 1994, Bickler 1997, Fitzgerald et al. 2005, Tebes 2007, Stoner et al 2007).

선사시대 교환 시스템에 대한 렌프류(Renfrew 1977)의 연구에서는 토기 분포 밀도의 패턴을 통해 아즈텍 문화의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감쇠곡선(fall-off curve) 통해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와 상품의 풍부도(abundance) 또는 빈도(frequency)의 상관관계, 즉 거리 증가에 따른 교환·유통 강도의 지수적 감소(exponential decay) 패턴을 정량화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Aztec 토기와 Guinda 토기는 생산지(Tenochtitlan)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의 감소가 점진적이고 완만한 지수적 감소 곡선을 그리는데, 이는 물품이 중간 집단 또는 매개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해지는 교역 방식인 down-the-line trade 형태를 보여준다. 즉 생산지에서부터 여러 소비지까지 연속적인 교환 또는 단계적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물품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다음 취락으로 전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품의 수량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몇몇 취락에서는 비교적 대량의 토기들이 출토되

Large-scale production (14,000 pots a year per potter)	Large-scale production or small-scale production (between 14,000 and 4,000 pots a year per potter)	Small-scale production or very small-scale production (6,000 pots a year or less per potter)
< 3%	3% - 6%	> 6%
9%		CV Andhra Pradesh
6%	CV Delhi Andhra Pradesh	
3%		
CV Delhi Spain		

그림 1. 스페인 텔히와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마을에서 생산된 토기 생산량과 변이계수간 상관관계(Roux 2003): 도공당 연간 14,000기를 제작하는 텔히 마을의 변이계수(CV)는 3% 미만으로 전문가에 의한 대량생산, 연간 6,000기를 제작하는 프라데시 마을의 변이계수는 6% 미만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소규모 생산에 해당한다.

3)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변동계수(CV)=표준편차/평균값'의 수식으로 표현되는 변동계수는 여러 샘플집단 간 특정 변수의 상대적인 산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었는데, 이는 이주, 제작지-소비지 간 특수한 교환관계, 소비지에서의 직접 제작 등으로 인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아즈텍 토기 교환 메커니즘은 중앙 집권적 정치 권력에 의한 교환 시스템이 아닌 느슨한 지역 네트워크 수준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여준다.

한편, 생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 직접 교환(directional trade) 또는 특정한 중심지에서의 재분배(redistribution) 형태의 교환이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환 방식에 대해서는 후술할 무덤 출토 적색마연 토기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 IV. 사례연구: 남강유역 중기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유통

중기의 적색마연토기는 전기에 비해 형태적 균질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전기와는 달리 단기간에 많은 수량이 제작·소비되었으며, 원거리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산과 유통 체계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사례연구로서 중기 남강유역에서 발견되는 적색마연토기를 대상으로 표준화 정도를 측정하고, 유통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해당 토기의 지역적 분포를 통해 취락 입지와 유통 체계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 1. 적색마연단경호의 형식과 분포

중기 남강유역에서는 다양한 기형의 적색마연토기가 분포하는데 호형토기가 다수를 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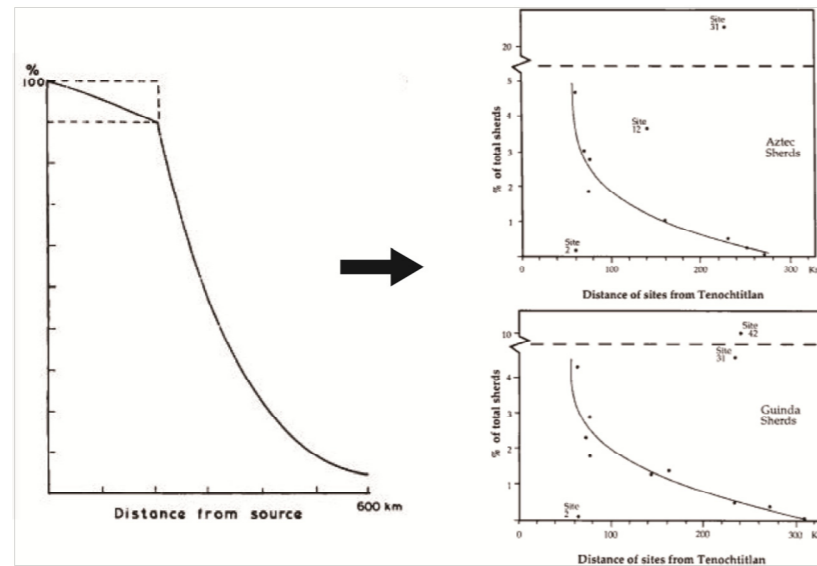


그림 2. 렌프루(1977)의 지수 감쇠 곡선 및 사례연구: 토기의 생산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쇠곡선(fall-off curve)을 그리면서 수량이 줄어드는 거리 감소(distance decay) 패턴을 통해 유물의 분포의 규칙성과 관련된 교환 또는 무역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총 787점 중 형식 판별이 가능한 406점을 분류해 보면, 단경호(Ⅰ식, 160점), 중경호(Ⅱ식, 150점), 장경호(Ⅲ식, 86점)로 각각 세분할 수 있다. 이중 단경호는 중기 31개의 유적 중 21곳(68%)에서 발견되며, 가장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남강 일대 토기 생산·유통 체계를 논할 수 있는 분석 대상으로 생각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평리 유적은 450기 이상의 주거지와 220 여기의 무덤, 다수의 수혈을 비롯하여 환호, 경작유구, 굴립주건물지, 옥공방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된 남부지역 최대의 청동기시대 취락이다. 생산 체계와 관련하여 31기의 소성유구(요)와 217기의 야외노지(4)가 확인되었는데, 옥방 1·9지구의 소성유구와 야외노지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와 수혈, 고상가옥은 토기 생산과 관련된 공방, 폐기장, 건조장, 저장시설로 판단된다. 특히 무려 391여 점에 달하는 적색마연호의 출토량을 주목할 수 있다.

이상의 유적·유물 양상을 종합하면, 대평리 취락은 남강 일대에서 적색마연토기의 생산이 가장 활발했으며, 생산시설이 집적된 운영체계가 설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경호(Ⅰ식)의 경우, 남강 일대 전체 출토량의 48.8%에 달하는 78점이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옥제품과 더불어 적색마연단경호와 같은 수공업 제품 일부가 대평리 취락에서 전문적으로 생산되어 남강 여타 취락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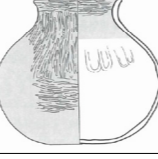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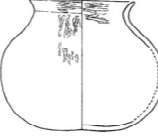
##### 2.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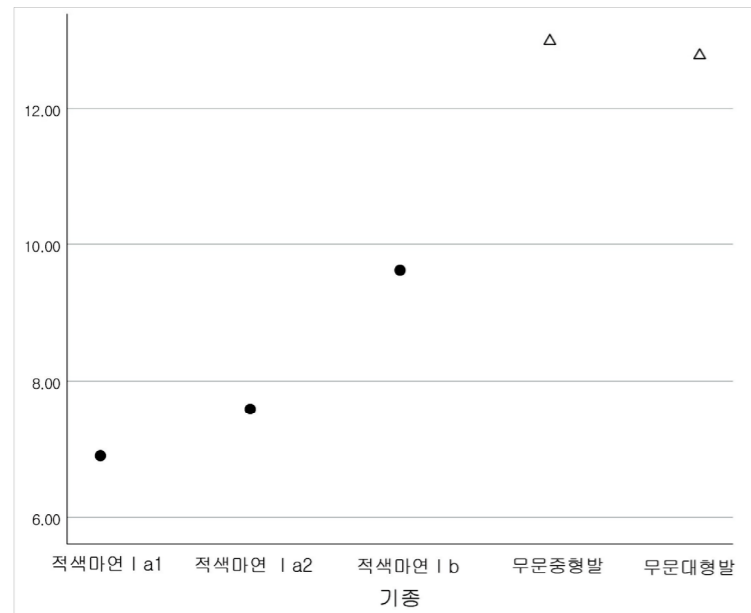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강 일대 중기 토기들의 변동계수를 측정하여, 표준화 정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기종별 비교를 위해 무문 심발형토기와 적색마연단경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심발형토기는 기고 24.2cm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였고, 단경호는 Ⅰa1식, Ⅰa2식, Ⅰb식으로 세분하였다(표 2). 서로 다른 기종 간 변동성을 염두에 두면, 구경이나 저경, 기고와 같은 단일 변수보다는 비율 속성이 효과적인바 동최경 대비 기고 값을 이용하여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강유역 중기 적색마연단경호와 무문심발간 유의한 편차가 확인된다. 변동계수 값은 세부적으로 단경호 Ⅰa1식 6.90, Ⅰa2식 7.59 Ⅰb식 9.62, 중형무문발과 대형무문발은 각각 12.99, 12.78로 산출되었다. 특히 Ⅰa식은 무문 심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바, 양자의 표준화 수준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상용기와 특수 토기의 생산·유통 체계가 동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일상용 무문토기의 생산은 개별 가구 내 제작되어 취락 내 소비되는 가내제작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 체계는 초보적 수준의 생산공방에서(반)전업

4) 이외 소성유구는 진주 속사리(1기)와 이곡리(1기), 산청 하촌리(2기)에서 조사되었으며, 야외노지는 상촌리(4기), 평거동(14기), 가호동(9기), 안간리(2기), 호탄동(1기)가 확인된 바 있다.

〈표 2〉 적색마연단경호의 분류와 세부 형태

형식			해당 유물
단경호 (1)	a	1	· 좁은 구경 · 동체에서 바로 외반하여 구연 형성 · 동최대경이 하위에 위치  산청 강누리 1호 
		2	· 좁은 구경 · 동체에서 바로 외반하여 구연 형성 ·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  산청 매촌리 2호 지석묘 
	b	· 넓은 구경 · 동체에서 바로 외반하여 구연을 형성 · 동최대경이 중위에 위치  진주 대평리 옥방7지구 3호 석관묘 	



〈그림 3〉 적색마연단경호와 무문토기의 변동계수 비교

의례 용품으로서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변동계수가 가장 낮고 수량이 가장 많은 | a1식의 경우 생활유구 대비 무덤 출토 비율(62.5%)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변동계수와 부장품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형태의 부장품을 지향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자는 동일한 형태의 토기를 제작하기 위한 표준화된 생산 시스템을

도공그룹에 의해 제작되어 취락 외부까지 교환되는 공방공작 수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색마연단경호는 주거지와 수혈과 같은 생활유구에서도 발견되지만, 무덤 부장품으로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표 3). 예컨대 산청 매촌리, 의령 동동리, 함안 봉성리, 함안 오곡리 유적의 경우, 적색마연토기가 대부분 무덤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표 3〉 세부 형식별 적색마연단경호의 유구출토 현황

형식 성격				합계
	a1	a2	b	
생활유구	21 37.5%	15 44%	28 58%	64
분묘유구	35 62.5%	19 56%	20 42%	74
합계	56 100%	34 100%	48 100%	138

마련해야 했을 것이다. 이에 생산 전문화를 위한 공방 내 전수-학습 제작 체계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술하였듯, 남강 일대 31곳의 유적에서 토

기를 본격적으로 생산(소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소성유구나 야외노지가 발견된 일부 유적에 불과하며, 더욱이 적색마연토기의 생산은 극히 제한된 취락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강 일대 대부분의 취락은 대평리 취락으로부터 적색마연토기를 입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적은 수량의 물품이 이동하였다면 운송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생산지로부터 다량의 적색마연토기가 소비지로 직접 옮겨졌거나 2차 공급지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운송시 적재량 증가 및 안정성 상향을 위해 제품의 표준화가 요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물품의 표준화 및 생산·유통 체계의 전문화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연동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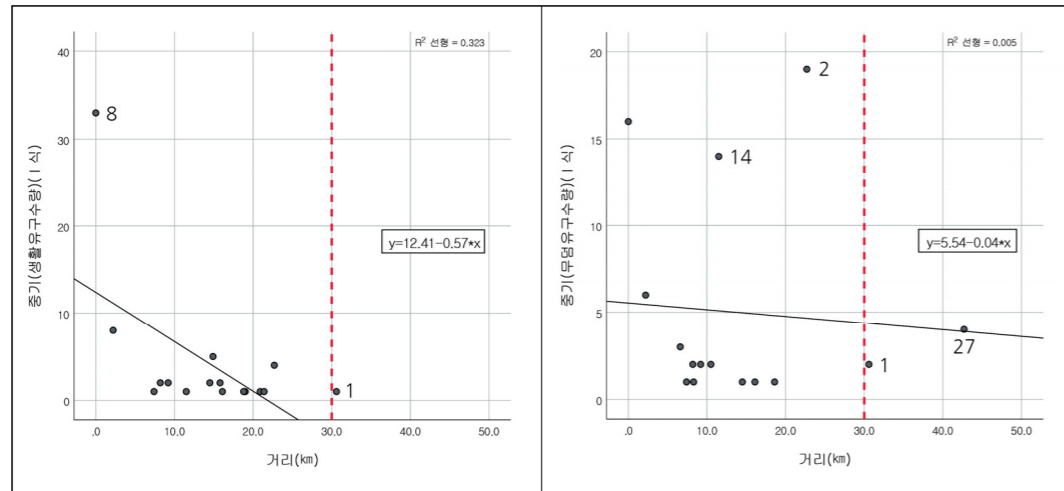
### 3. 적색마연단경호의 유통 체계

다음으로 적색마연토기의 유통 체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전술하였듯, 생산지-소비지 간 유통 거리와 물품 수량의 상관관계는 적색마연토기의 감쇠곡선(fall-off curve)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 4>에는 유구별 회귀계수와 절편, 최소제곱법에 따른 직선식과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다. 생활유구 출토 적색마연단경호의 분포 패턴은 대평리 취락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출토량이 감소하는 양상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무덤유구의 경우 거리에 따른 토기 수량의 점진적인 감소 패턴이 확인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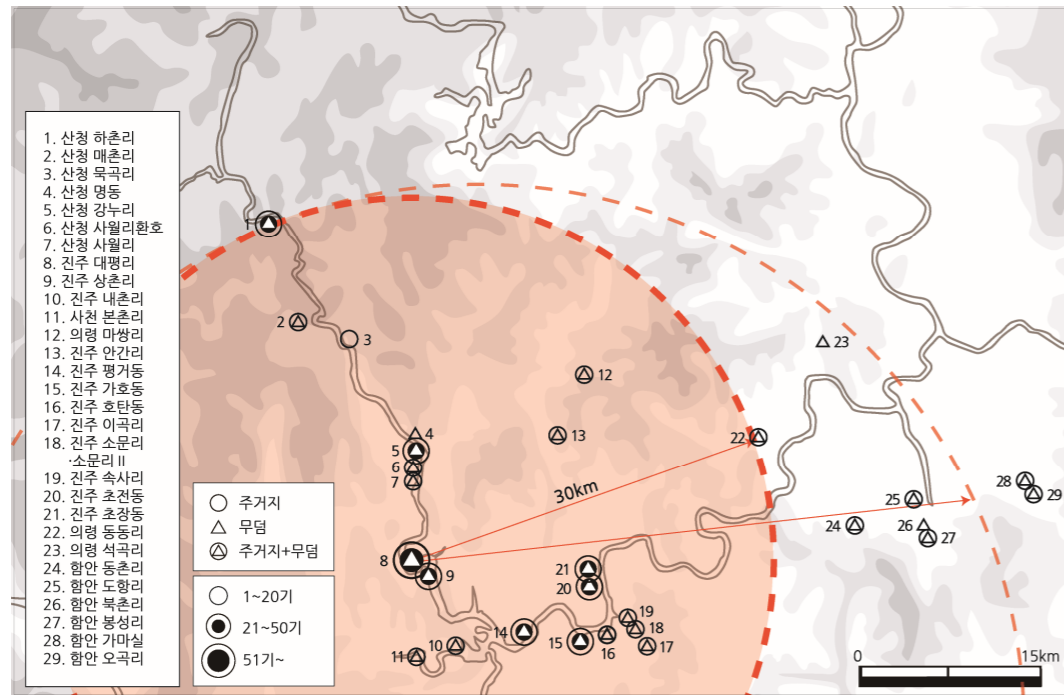
특히 대평리 취락에서 10~20여 km 떨어진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된 대규모 무덤군인 평거동과 매촌리 유적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편차는 단순선형회귀식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생활유구는  $y=12.41-0.57*x$ , 무덤유구는  $y=5.54-0.04*x$ 로, 후자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y절편도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 같은 서로 다른 분포 밀도 패턴은 <그림 5>에 제시된 단경호의 유통 거리에서도 드러나는데, 대평리 취락으로부터 30km 정도의 최대 유통 거리를 보이는 생활유구와 달리, 무덤유구의 경우 약 43km 떨어진 지점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유구 성격에 따라 유통 거리의 편차

5) 생활유구에서 발견되는 적색마연토기 또한 일상용기와는 다른 특수한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부장용 적색마연토기와 동일한 생산 체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남강유역 생활유구와 무덤유구 출토 적색마연단경호(1식)의 감쇠곡선 비교(좌: 1. 산청 하촌리 8. 진주 대평리, 우: 1: 산청 하촌리 2: 산청 매촌리 14: 진주 평거동 27: 함안 봉성리)



〈그림 5〉 남강유역 중기 적색마연호 1식의 유통 범위(외곽 점선은 la1식 원저호의 경계)

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유적 성격에 따라 물품의 수량 및 유통 거리 등 교환 체계가 차별적으로 작동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색마연단경호의 유통 시스템에 대해 고찰해 보자. 앞서 생활유구와 무덤유구

간 유통 거리와 물품 수량의 편차를 통해 볼 때, 다양한 유통·교환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생활유구 출토 적색마연단경호의 분포 패턴은 대평리 취락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점진적이고 가파른 지수적 감쇠 곡선을 그린다. 이는 생산지에서 여러 소비지까지 단계적 교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down-the-line trade** 형태로 볼 수 있겠다. 이와 달리 무덤유구 출토품의 경우 생산지로부터의 거리와 수량 간 완만한 감소 또는 거리와 상관없이 물품이 균등(**no distance decay trade**)하게 나타나며 먼 거리까지도 적색마연단경호가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직접 교환(**directional trade**)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평리에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다량의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된 평거동과 매촌리 취락은 1차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소비한 후 주변 취락으로 전달하는 중심 장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대부분의 취락은 생산지인 대평리로부터 직접적인 공급·교환 행위를 통해 입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V. 맺음말: 적색마연토기로 본 취락 입지와 유통 체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남강 유역 적색마연단경호의 표준화 양상, 생산 체계 및 물류 시스템을 종합하여 취락 입지와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남한 지역 여타 송국리유형 취락이 대체로 낮은 구릉의 정상부나 사면부에 위치하는 데 반해, 남강 유역의 취락은 산간 내륙의 강변 충적대지에 입지한다. 남강은 여타 주요 하천에 비해 강폭이 좁고 수위가 낮은 환경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에 따라 남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집단은 하천변 범람원에 농경지와 생활공간, 저장공간, 매장공간 등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입지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남강 유역 취락 집단은 농경지 관리, 하천 식물자원 이용, 어로 활동 및 담수동물 채집, 배후습지 활용 등 수변 환경에 적응한 생활 양식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강 유역 송국리유형 취락의 입지 특성과 공유된 물질문화 양상을 종합할 때, 자원 및 물자의 이동 역시 수로가 주요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색마연호의 다량 유통과 약 30~40여 km에 이르는 넓은 분포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며, 수운이 운송량과 속도, 안정성 등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거리를 확장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음을 시사한다.

자원 및 물품의 생산 체계와 교환 시스템, 그리고 소비 방식을 복원하는 연구는 물품의 이동을 추적하고, 지역 간 상호작용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청동기시대 중기 남강 유역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소비·유통 체계를 살펴본 결과, 진주 대평리 취락이 남강 일대 생산과 공급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평리 취락의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위치를 비롯하여 분묘 및 의례공간, 경작유구 등 취락 경관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위상은 이러한 경제적 구조를 뒷받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 중기 남한 지역의 물질문화를 공시적으로 살펴보면, 강과 하천을 매개로 한 물

질문화의 공유 및 문화권 형성이 나타나며, 이는 수공업품의 직접적인 교환, 제작기술의 공유, 전문 제작자의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기 유역별 적색마연토기의 분포와 특징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강유역, 삼교천 일대, 금강유역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생산·소비·유통 체계가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부승아 2022, 이정은 2023).

물품의 교환과 유통은 개인이나 취락 구성원 간의 경제 활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집단 정체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과 유통 체계는 당시 사회문화적 수요와 공급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강 유역 일대는 농작물과 경작유구, 농경구, 주거 구조, 저장시설 등 농경 관련 기술 양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묘역지석묘의 축조, 적색마연토기와 옥 장식구, 석검·석촉 등의 부장품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장례문화는 단순한 물질문화의 공유를 넘어 공동체적 정체성과 같은 비물질적 자산의 공유를 시사한다. 비록 당시 도로나 수로와 같은 구체적 교통 기반이나 운송 수단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청동기시대 중기 남강 유역에서의 물품 이동 및 물질문화의 전파는 단순한 물자와 인력의 이동을 넘어 기술 확산, 정보 획득·교환, 인적·문화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남강 문화권이라는 교환경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경상북도·동아대학교박물관, 1999, 『남강유역문화유적발굴도록』.
- 고민정, 2005, 「무문토기시대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 고찰」, 『함안 봉성리유적』,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_\_\_\_\_, 2016,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옥 장신구의 생산과 소비체계」, 『경남연구』 11.
- \_\_\_\_\_, 202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생업」,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민정·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분화」, 『한국청동기학보』 2.
- 국립진주박물관, 2002, 『청동기시대의 대평·대평인』, 예맥.
- 김미영, 2010, 「적색마연토기의 변천과 분포에 대한 연구」, 『경남연구』 2.
- 김병성, 2011, 「영남지역 하촌리형주거지에 대한 일고찰」, 『경남연구』 4.
- 김은채, 2022,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토기생산체계 일고찰」, 『한국고고학보』 2022-2.
- 김장석, 2004, 「물류시스템과 대외교류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한성기 백제의 물류시스템과 대외교류』, 한신대학교학술원.
- 김현, 2002, 「대평 무문토기 요에 대한 일검토」, 『진주 대평 옥방 1·9지구 무문시대 집락』, 경남고고학연구소.
- 김혜진·배진성, 2005, 「함안지역 지석묘의 특징과 지역성」, 『함안지역 조사』, 경남고고학연구소
- 배진성, 2008, 「함안식적색마연호의 분석」, 『한국민족문화』 32.
- \_\_\_\_\_, 2020, 「분묘 출토 적색마연호에서 본 한일교류」, 『고고광장』 26.
- 부승아, 2022,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토기 연구」, 『한국고고학보』 122.
- 성춘택, 2019, 수렵채집민의 광역교류네트워크와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 점유밀도의 변동, 한국고고학보120.
- 손준호, 2010,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 체계에 대한 초보적 검토」, 『호남고고학보』 36.
- 송영진, 2012, 「금호강유역 마연토기의 변화상과 특징」, 『경남연구』 7.
- \_\_\_\_\_, 2015, 「경남 해안지역 마연토기의 전개」, 『중앙고고연구』 16.
- \_\_\_\_\_, 201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연토기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재호, 2021, 「관찰리유적의 편년과 변천」, 『고고광장』 28.
- 유병록, 2019, 「영남지역 송국리문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주, 2015,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16.
- 이성주, 1991, 「월삼국시대 토기의 유형, 계보, 편년, 생산체계」, 『한국고대사논총』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이수홍, 2017, 「진주 대평리 옥방 1지구의 미시적 검토」, 『한국청동기학보』 20.
- 이정은, 2023,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교환」, 『영남고고학』 95.
-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체계와 발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6, 「병부과장식석검과 그 제작 집단에 대한 시론」, 『한국상고사학보』 92.
- \_\_\_\_\_, 2021,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 양상」, 『한국청동기학보』 28.
- 장용준·平郡達哉, 2009, 「유절병식 석검으로 본 무문토기시대 매장의례의 공유」, 『한국고고학보』 72.
- 庄田慎矢, 2005, 「옥 관련유물을 통해 본 진주 대평리취락의 분업체계」, 『영남고고학』 36.
- \_\_\_\_\_, 2006, 「관옥의 제작과 규격에 대한 소고」, 『호서고고학』 14.
- 田崎博之, 2005, 「소성실패품을 통해 본 무문토기의 생산형태」,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편, 서경.
- 정수옥, 2018, 『한성기 백제토기의 생산과 유통 및 사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선, 2013,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조·전기 주거지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12.
- 조대연, 2009, 「생산·유통·소비 연구의 제문제」, 호남고고학에서 바라본 생산과 유통, 제17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조대연·이동희, 2012, 「청동기시대 청동제품의 생산전문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5.
- 최종규, 2000, 「두호리 출토 천하석계 구옥」, 『고성 두호리유적』, 경남고고학연구소.
- 칼라 시노폴리, 이성주 역, 2008, 『토기연구법』, 考古.
- 허승철, 2008, 「산동유적을 통해 본 남해안지역의 네트워크」, 『무덤 연구의 새로운 시작』, 제51회 전국역사학대회.
- 허진아·채수빈·송원근·유영석·박형후, 2022, 「기하학적 형태측정법을 이용한 마한 일상토기 생산체계에 대한 예비적 고찰: 심발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25.
- 홍주희, 2009,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전개와 석기제작시스템의 확립」, 『한국청동기학보』 5.
- 황재훈·이정은, 2022,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적색마연토기의 생산과 유통」, 『한국고고학보』 2022-2.
- 황창환,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마암류 석기의 산지연구」, 『아외고고학』 9.
- \_\_\_\_\_, 2013,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 『영남고고학』 67.
- Appadurai, Arjun, 1986, "Introduction: Commodities and the Politics of Value." In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edited by Arjun Appadurai, 3-6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ckler, S. H. 1997, Early pottery exchange along the South coast of Papua New Guinea, *Archaeology in Oceania* 32-2: 151-162.
- Costin, C. L. 1991, Craft Specialization: Issues in Defining, Documenting, and Explaining the Organisation of Production, In M. Schiffer (ed.)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3, pp. 1-56,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Crown, P. L., 1995, The production of the Salado Polychromes in the American Southwest, In *Ceramic production in the American Southwest*, edited by B. Mills and C. Crown, pp. 142-166,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 Earl, T. K. 1981, Comment on P. Rice, Evolution of specialized pottery production: A trial model, *Current Anthropology* 22: 230-31.
- Eerkens, J. W. and R. L. Bettinger, 2001, Techniques for assessing standardization in artifact assemblages: Can we scale material variability?, *American Antiquity* 66(3): 493-504.
- Fitzgerald R. T., Jones T.L., Schroth A., 2005, Ancient long-distance trade in Western North America: new AMS radiocarbon dates from Southern Californi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2: 423-434.
- Gamble, Clive, 1999, *The Palaeolithic Societies of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rth, K., 2020, *The Organization of Ancient Economies: A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Junker, L. J., 1993, Craft Goods Specialization and Prestige Goods Exchange in Philippine Chiefdoms of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sian Perspectives* 32(1): 1-35.
- Longacre, W. A., Kvamme, K. L., and Kobayashi, M., 1988 Southwestern Pottery Standardization: An Ethnoarchaeological View from the Philippines. *The Kiva* 53(2):101-112.
- Peacock, D.P.D. 1982, Pottery in Roman World: An Ethnoarchaeological Approach. London: Longman.
- Quinn, C. P. 2006, Exotics, Exchange, and Elite: Exploring mechanisms of movement of prestige goods in the Interior Northwest, *Journal of Northwest Anthropology* 40-2.
- Reid, P. 1986, Models for prehistoric exchange in the Middle Great Lakes' Basin, *Ontario Archaeology* 46: 33-44.
- Renfrew, C. 1977, Alternative models for exchange and spatial distribution, In *Exchange Systems in Prehistory*, ed. by TIMOTHY K. EARLE and JONATHON E. ERICSON, pp. 71-89.
- Rice, P. 1981, Evolution of Specialized pottery production: Atrial model, *Current Anthropology* 22-3: 219-240.
- Roux, V. 2003. Ceramic Standardization and Intensity of Production: Quantifying Degrees of Specialization. *American Antiquity* 68(4): 768-782.
- Sinopoli, C. 1988. The organization of craft production at Vijayanagarg, South India, *American Anthropologist* 90: 580-97.
- Smith, M. E. 1990, Long-distance trade under the Aztec Empire, *Ancient Mesoamerica* 1: 153-169.
- Stark, M. T. 1991, Ceramic production and community specialization: a Kalinga ethnoarchaeological study, *World Archaeology* 23-1.
- Stark, M. T. 1994, Pottery Exchange and the Regional System, In W. A. Longacre and J. M. Skibo (eds.) *Kalinga Ethnoarchaeology*, pp. 169-198,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 Stoner, W.D., Pool, C.A., Neff, H., Glascock, M.D. 2008, Exchange of Coarse Orange pottery in Middle Classic Tuxtla Mountains, Southern Veracruz, Mexico,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5: 1412-1426.
- Tebes, J. M. 2007, Pottery Makers and Premodern Exchange in the Fringes of Egypt: An Approximation to the Distribution of Iron Age Midianite Pottery, *Buried History* 43: 11-26.
- Van der Leeuw, S. E. 1977, Towards a study of the Economics of Pottery Making, In B. L. Beek, R. W. Brant, and W. Gruenman van Watteringe (eds.) *Ex Horreo*, pp. 68-76. Amsterdam: University of Amsterdam, Cingvla, 4.
- VanPool, T. L. and R. D. Leonard. 2002, Specialized Ground Stone Production in the Casas Grandes Region of Northern Chihuahua, Mexico. *American Antiquity* 67: 710-730.
- Whallon, R., 2006, Social networks and information: Non- "utilitarian" mobility among hunter-gatherers,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25(2), 259-270.
- Wiessner, P.,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8-2: 253-276.
- Wiessner, P., 1984, Reconsidering the behavioral basis for style: A case study among the Kalahari S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3(3), 190-234.
- Wobst, H. M., 1977, Stylistic behavio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Paper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 ed. C. E. Cleland, Museum of Anthropolog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317-342.
- Woodson, M. K. 2011, Hohokam Pottery Production Areas and the Organization of Ceramic Production and Exchange in the Phoenix Basin, *Journal of Arizona*

#### 제4발표

#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경관 구조

-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

강동석(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 I. 머리말

취락의 입지는 단순히 어디에 위치하는가와 관련한 물리적 차원을 넘어, 거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자원 활용, 사회적 상호작용, 환경과의 관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동안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 연구는 취락의 지형적 특징과 입지요인 분석(김인경·안형기 2023; 박영구·허의행 2022; 박지훈·오규진 2009; 배덕환 2009), 지형 조건과 생업경제와의 관계(김도현·이재희 2004; 도영아 2007) 등, 주로 지형 조건이 취락의 입지선택과 환경 적응, 생계 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왔다.

기존 논의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자연환경은 취락 입지선택의 핵심 요인이며, 이것은 환경 적응과 생계 전략, 생업경제 활동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형 입지적 조건은 각종 취락 구성요소들의 공간 배치를 결정하고, 이것은 독특한 경관을 구성하며 사회적 행위와 관계 형성,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락의 경관은 일차적으로 자연지리적 조건을 반영한 것이며, 경관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성과 가시성, 기억, 장소성 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네트워크, 통합과 분리, 계층 관계를 창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를 전제로 청동기시대 취락은 입지 지형에 따라 각기 차별적 경관을 구성하였고, 이것이 사회를 구조화하고 운영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음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자연환경이 문화경관의 구성과 가치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관생태학과 문화경관론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한 PCM 모델에 기초하여 선상지, 충적지, 곡간지, 해안에 입지하는 영남지방의 대표적 취락의 경관 구조와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 Ⅱ. 취락 경관, 문화경관, 경관생태학

기존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 연구는 대부분 취락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것이 생업경제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취락의 분포패턴에는 어떻게 작용하였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취락의 입지 선택 요인으로 지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지형 조건은 이 뿐만 아니라, 주거지, 저장시설, 분묘, 농경지, 이동로 등과 같은 각종 기능공간의 설치와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취락 경관은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며, 기억과 전승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경관의 사회적 기능과 상징성을 재생산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변형시키거나 취락 내의 공간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취락 경관은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인 것이다.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론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자연-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것은 지리학자 사우어가 도입한 개념으로, 인간 활동이 자연경관을 변형하고 문화경관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우어의 입장은 1925년에 발표한 「경관의 형태학(The Morphology of Landscape)」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그는 기후, 지표면, 토양, 하천, 해양, 해안, 식생 등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자연경관을 매개로 문화가 일정 시간 작동하여 인간의 이동과 밀집, 주거의 형태와 구조, 생산, 정보 전달 등의 형태를 갖추게 하는 상호 연계를 통해 문화경관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한편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는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트롤(Troll)에 의해 제안된 경관생태학은 정적 경관이 생태학적 프로세스와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생태계와 환경 간의 복합적 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Cushman *et al.* 2010). 그는 경관을 주어진 구역 내에서 생물 군집과 환경 간의 주요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경관 내의 모든 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론적 접근과 식생, 지형 등의 공간 패턴이 식량자원의 획득과 종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는 공간패턴-생태 프로세스 분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트롤의 초기 개념은 주로 자연경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이후의 경관생태학에서는 인간 활동이 경관을 변형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여 문화경관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Wu and Hobbs 2010).

이처럼 문화경관론과 경관생태학은 결과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관이 형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주목하여 이 두 학문 분야를 결합한 접근법이 제시되었다(Wu 2010, 2011). 이것은 거의 모든 생태계가 인간에 의해 지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관생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은 문화경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자연과 문화의 분리를 넘어 전체론적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접근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

심 개념은 경관의 이질성(heterogeneity), 규모(scale), 패턴-프로세스 관계(pattern-process)이다(Wu 2019: 527-531). 경관의 이질성은 지형, 식생, 하천 등 자연환경 요소들이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경관을 패치(patch), 통로(corridor), 매트릭스(matrix)로 분해한다. 패치는 농경지, 거주지와 같은 면적 단위를 말하며, 통로는 하천, 도로 등 선형 구조, 매트릭스는 이것들이 놓인 배경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경관 형성 간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패턴과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인간의 경관 인식과 의미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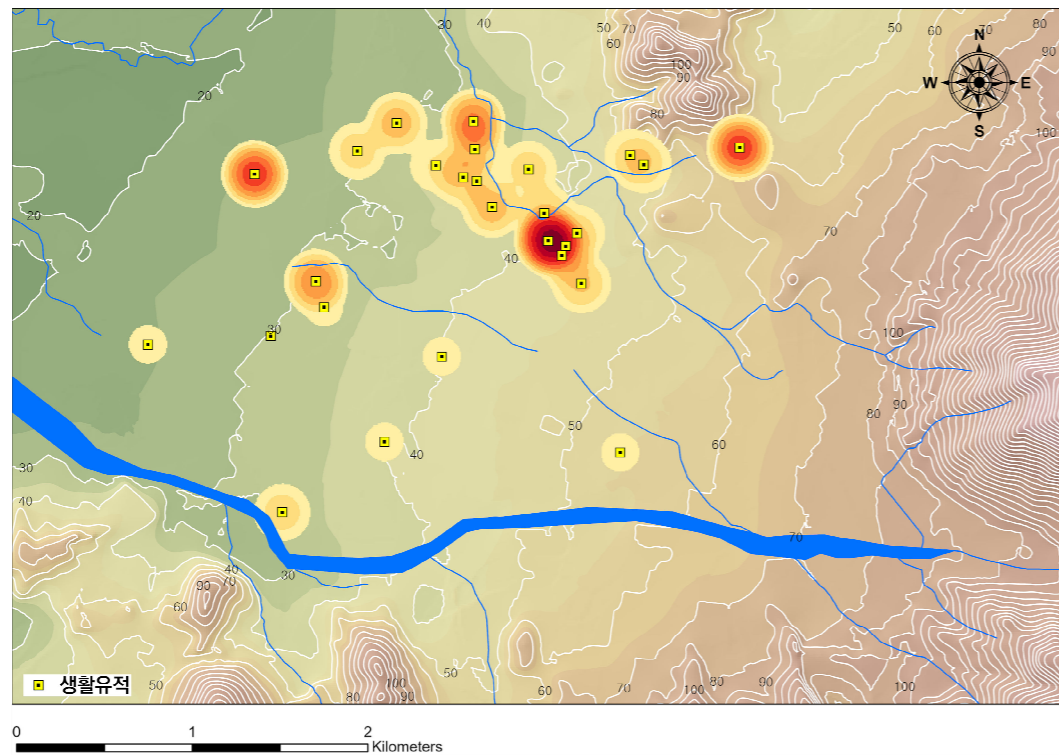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경관 연구 방법론은 고고학 연구에서 취락의 입지와 경관의 상관성 분석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여기에는 고환경 분석을 비롯하여 GIS를 이용한 다중스케일적 공간분석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인간-사회-생태계 상호작용의 역동성에 기반하여 취락 입지선택과 공간적 적응 과정을 개념화한 모델이 제시되었다(Sikk and Caruso 2024), 독일의 신석기시대 취락 연구에서는 수계, 경사도 등 지형 조건과 주거지 입지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분묘 축조 위치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Knitter *et al.* 2019). 특히, 경관생태학의 patch-corridor-matrix 모델(PCM 모델)은 취락이나 도시의 공간 구조, 연결성, 사회적·문화적 변화를 설명하는 방법론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Kempf 2020).

## Ⅲ. 취락의 입지적 특징과 경관 구조

본 발표에서는 문화경관의 관점을 결합한 경관생태학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PCM 모델을 참조하여 영남지방 청동기시대 취락의 지형 입지적 특징과 경관 구조 형성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상지형, 충적지형, 곡간지형, 해안지형에 입지하는 대구 월배선상지 취락, 진주 대평리·평거동 유적, 경주 천군동 유적, 울산 강동 산하동 유적의 경관 구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이질적인 자연환경 조건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의 패턴을 파악하고, 경관 구성요소 간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분석하여 경관의 기능과 상호작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선상지형 : 대구 월배선상지 유적

대구 월배선상지는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주거지, 분묘, 입석, 수혈 등 많은 수의 유구가 확인된 곳으로, 국내 청동기시대 취락을 대표하는 대규모 유적이다. 그동안 주거지, 분묘의 형식과 배치, 취락의 편년과 형성 시점, 공간 구조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김권구 2020; 유병록 2019; 이수홍 2019; 하진호 2008).



〈그림 1〉 월배선상지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분포

월배선상지는 한반도 남부의 대표적인 선상지에 해당한다. 전체 면적은 3.1km<sup>2</sup>, 선양에서 선단까지 길이는 약 3.6km로 대구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선정부는 해발고도 100m, 선단부는 30m 지점에 형성되어 있다(윤순옥외 2005). 유적의 분포 양상을 보면,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sup>1)</sup>은 모두 주거지로 구성된 생활유적으로, 대체로 해발고도 45m~25m 구간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1). 특히, 북동쪽의 선측(扇側)을 따라 형성된 소하천변에 많은 주거지가 밀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선단부에 해당하는 대천동, 월암동에서도 주거지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전기에는 소하천이 발달한 선측부와 하천수가 용출하는 선단부가 주요 생활공간으로 점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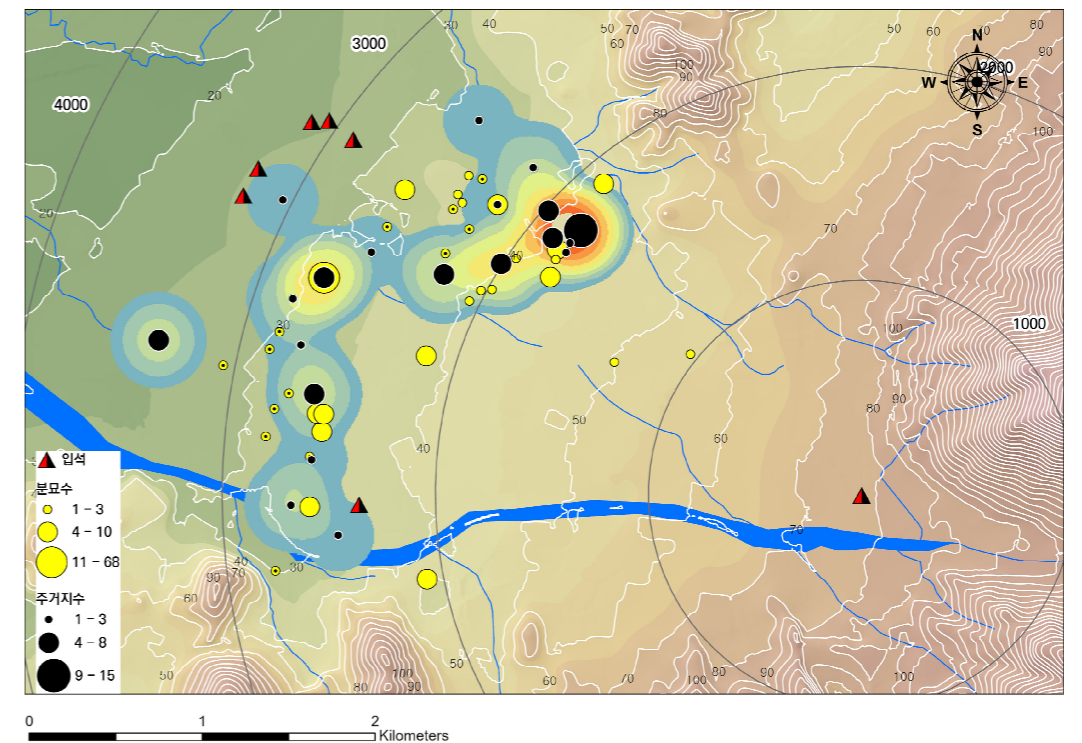
후기 유적의 분포패턴을 보면(그림 2), 전기와 마찬가지로 선상지 북동부 선측에 주거지와 지석묘가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기와 달리, 선단부에 해당하는 해발고도 30m 지점을 따라 유적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선측부가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점유되었던 것은 선상지 내에서도 소하천이 가장 발달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후기 이후에 점유 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주거

1) 각 유구의 시기 구분은 유병록(2019)의 안을 참조하였다.

입지에 유리한 선단부가 본격적으로 개척되었다. 선단부는 선정에서 침투한 복류(伏流) 하천이 용출하는 곳으로, 용수의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사가 완만하고 미세한 퇴적물이 주로 쌓여 농경지로 적합한 지점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주거 입지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지니고 있어 주거공간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거공간은 유적의 밀집도를 볼 때, 주거지(고상건물지)+분묘가 세트를 이루며 단위 주거군을 이루고 있었고, 이것이 이전 시기부터 점유되어 온 선측부와 선단부에 연속 배치된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단위주거군이 연속된 선형의 배치는 당시 거주민들을 상호 연계하는 이동로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통로’로서 월배선상지 취락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정립·유지하는 매개체로서 월배선상지의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월배선상지에 주목되는 또 하나의 핵심 경관 구성요소는 입석이다. 입석은 월암동에 해발고도 25m 지점을 따라 5기가 조영되었으며, 진천동, 상인동에도 각각 1기가 분포하고 있다. 이 입석들은 선단부, 선측부, 선정부에 배치되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입석은 취락공동체의 영역 경계 표시, 의례중심센터의 상징물, 제사의례 기념물, 묘표석, 취락공간 구분 기준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고 있다(김권구 2020; 유병록 2019; 윤천수 2006). 즉, 월배선상지의 입석은 다의적



〈그림 2〉 월배선상지 청동기시대 후기 유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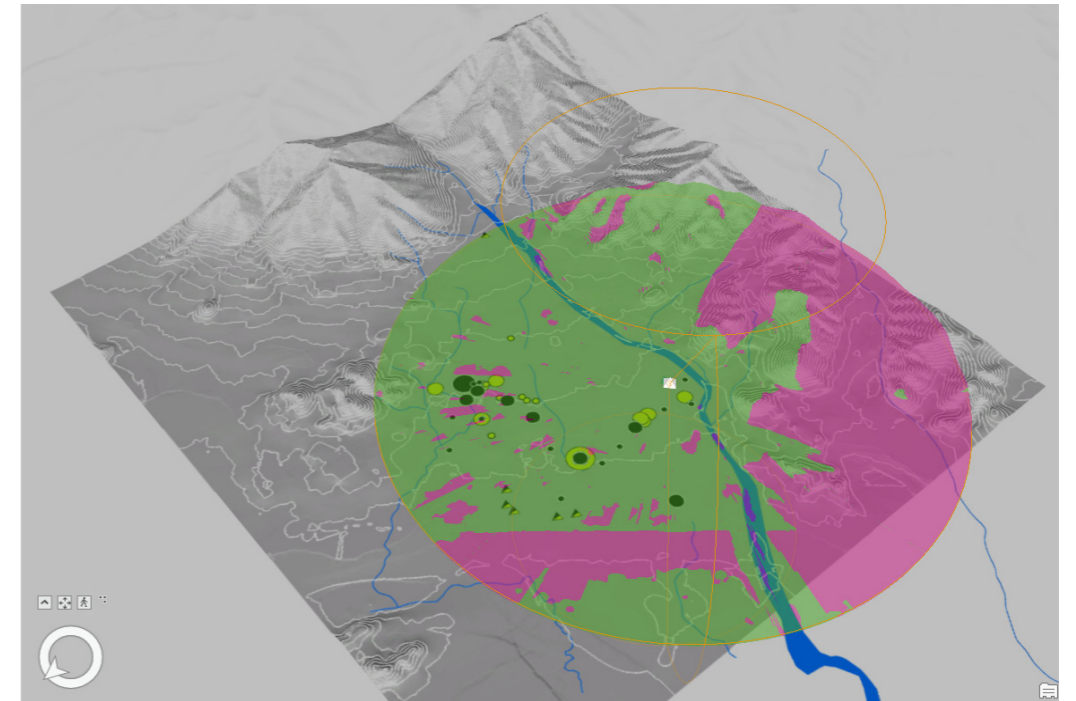
성격을 지닌 거석기념물이었던 것이다.

월암동 입석군은 수도작 경작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단부에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월배선상지 유적군의 최북단에 위치한다. 이것은 이 입석군이 취락공동체의 영역을 표시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생업경제자원 확보를 기원하는 풍요의 상징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인동 입석은 선정부에 단독으로 세워져 있다. 선상지의 시작점인 선정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월배선상지 취락의 경계 표시로 인식하고 있다. 선정은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곡구(谷口)이며, 선상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을 지닌 곳에 입석을 세운 이유는 경계 표시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비보(裨補)경관을 구성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자연환경이 극적으로 전환되고 용수의 공급이 시작되는 지점에 입석이라는 인공물을 설치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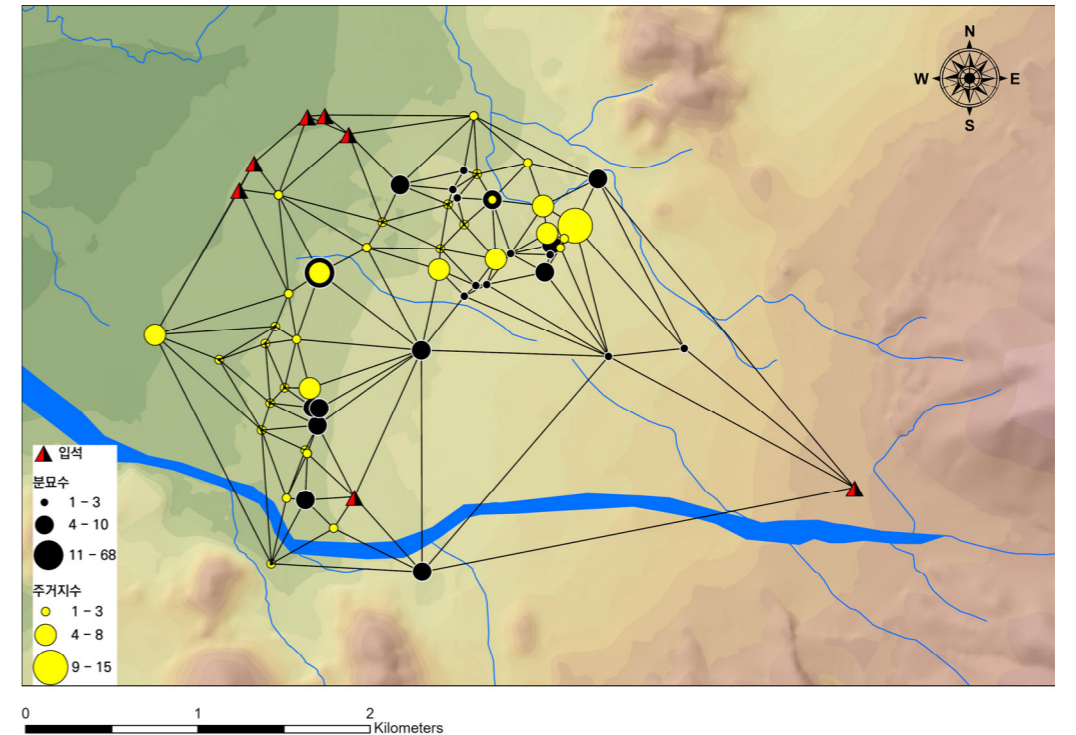
진천동 입석은 선상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천인 진천천변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25m×10m의 석축에 설치된 것으로, ‘수변(水邊)제사’와 관련된 특수한 의례공간으로 보고 있다(유병록 2019: 79). 이는 입석 자체가 주거지나 매장공간과는 다소 떨어져 있고 큰 하천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덧붙이자면, 입석에 암각화가 새겨져 있고 주변에서 청동기시대 전기~원삼국기 유물이 확인된 점을 볼 때, 진천동 입석은 월배선상지에서 생활을 영위하였던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의미를 부여하며 사회적·이념적 가치를 창출하였던 특별한 장소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입석은 선상지 내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그림 3). 이 때문에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행위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은 진천동 입석만이 가진 특별한 장소성을 형성하며 기억과 전승을 통해 그 의미가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입석은 일차적으로 취락공동체의 생활권역을 표시하는 상징물로서 월배선상지 전체의 경관을 통합하는 지배적 배경, 즉 소위 ‘매트릭스’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취락 내의 주거군, 묘역, 의례공간, 농경지, 숲 등을 연결하는 통로를 구성하며 각 기능공간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자연환경-인간 활동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요약하면, 선상지라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월배선상지의 청동기시대 전기~후기 취락은 용수 확보에 유리한 하천변이나 선단부에 입지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농경이 본격화된 후기에는 복류천이 용출하고 농업생산성이 높은 선단부를 따라 선형으로 주거군(패치)이 배치되는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지형 조건에서 비롯된 독특한 취락 경관은 물리적·사회적 통로를 형성하며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의 흐름을 연계하고, 각각의 주거단위 간의 사회적 관계를 정립·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선상지의 외곽에 배치된 입석은 이러한 단위공간과 통로들을 매개하며 물리적·심리적 경관을 구성하는 매트릭스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패치, 통로, 매트릭스 모델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그림 3> 월배선상지 진천동 입석의 조망권



<그림 4> 월배선상지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네트워크

있을 것이다. 주거+분묘군은 선형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관은 입석들로 연계된 공간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개방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층적지형 : 진주 대평리·평거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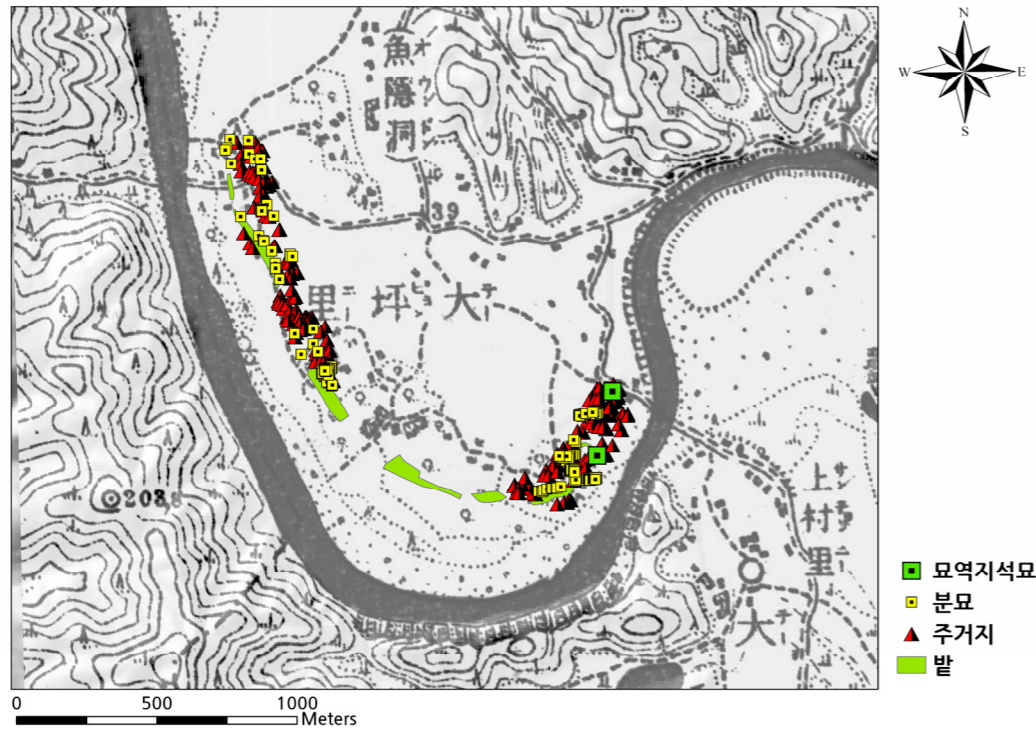
하천 층적지는 범람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자연제방, 배후습지, 구하도, 하중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성상(性状)은 배수가 양호한 고지(高地)와 비옥한 저습지로 양분된다(오홍석 1994: 294). 층적지형은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인해 토양이 비옥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취락 입지의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또한, 하천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이동 편의, 식량자원 확보 등에 유리하다는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층적지에 입지한 대부분의 취락은 자연제방이나 하안단구에 위치한다.

영남지방에서 이러한 층적지형에 입지한 대표적인 유적은 진주 남강변에 위치한 대평리, 평거동이 있다. 먼저 대평리 유적의 전체적인 취락 경관에 대해 살펴보면(그림 5), 청동기시대 초기~후기에 걸쳐 수백 기의 주거지와 지석묘, 석관묘, 고상건물지, 밭, 수혈, 집석, 구상유구, 함정, 구, 환호 등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송국리유형 단계의 취락의 경관 구조에 대해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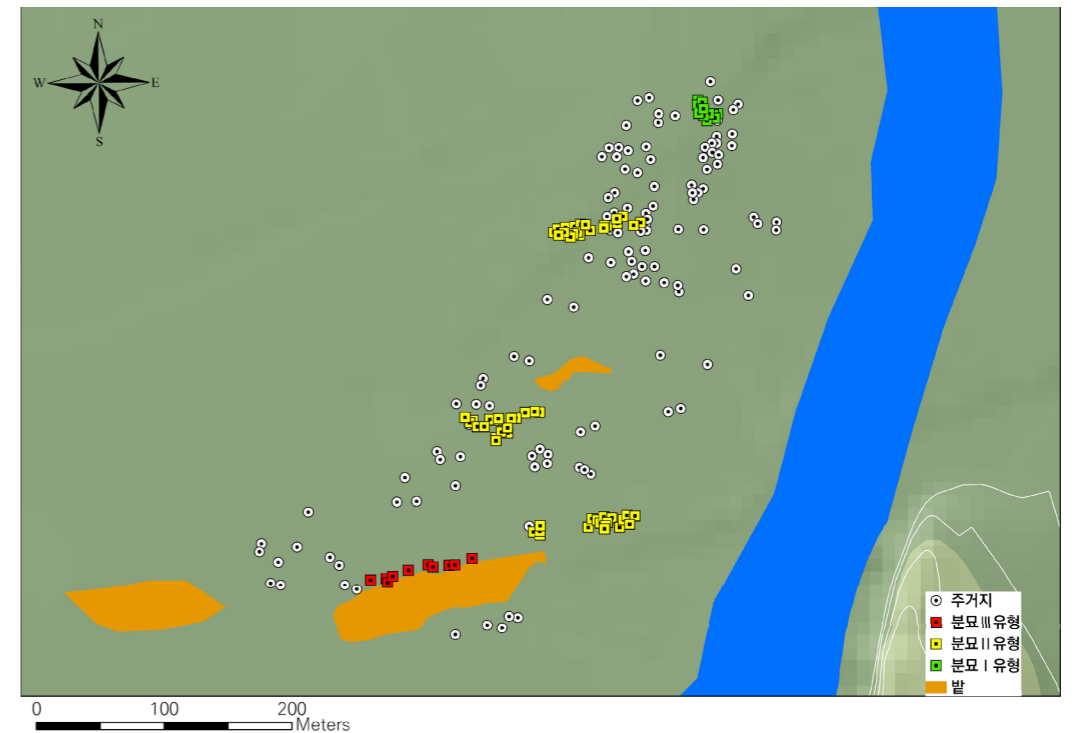
보기로 하겠다.

대평리에 입지한 유적은 크게 어은과 옥방 취락으로 구분된다. 두 취락은 주거지와 분묘, 경작지가 연속적 분포를 보인다는 점에서 대평리를 공간단위로 하는 사실상 하나의 취락공동체로 상정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 당시 취락 입지 지형과 기능공간의 배치는 <그림 5>의 1918년 일제강점기 상황과 거의 유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강점기의 가옥, 밭, 과수원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분묘, 밭의 분포 지점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모두 자연제방에 해당한다. 자연제방은 하천 범람 과정에서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지형으로, 고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수가 잘되고 비옥한 토양이 형성되어 있어 밭으로 주요 이용되고 있다. 대평리 취락은 이러한 유리한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연제방 너머의 배후습지에서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평리 유적의 식물유체 분석에서 벼가 확인되었고, 인접한 평거동, 초장동의 배후습지에서 논이 발견되어 수도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리해 보면, 대평리 유적의 경관은 하천-발경작지-주거(분묘)군-논경작지-산지가 선형의 배치를 이루며 연속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분묘는 기능공간을 구분하거나 연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대평리에서는 지석묘, 석관묘, 토광묘 등 모두 147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분묘는 <그림 6>에서 보는



<그림 5> 일제강점기 지형도와 대평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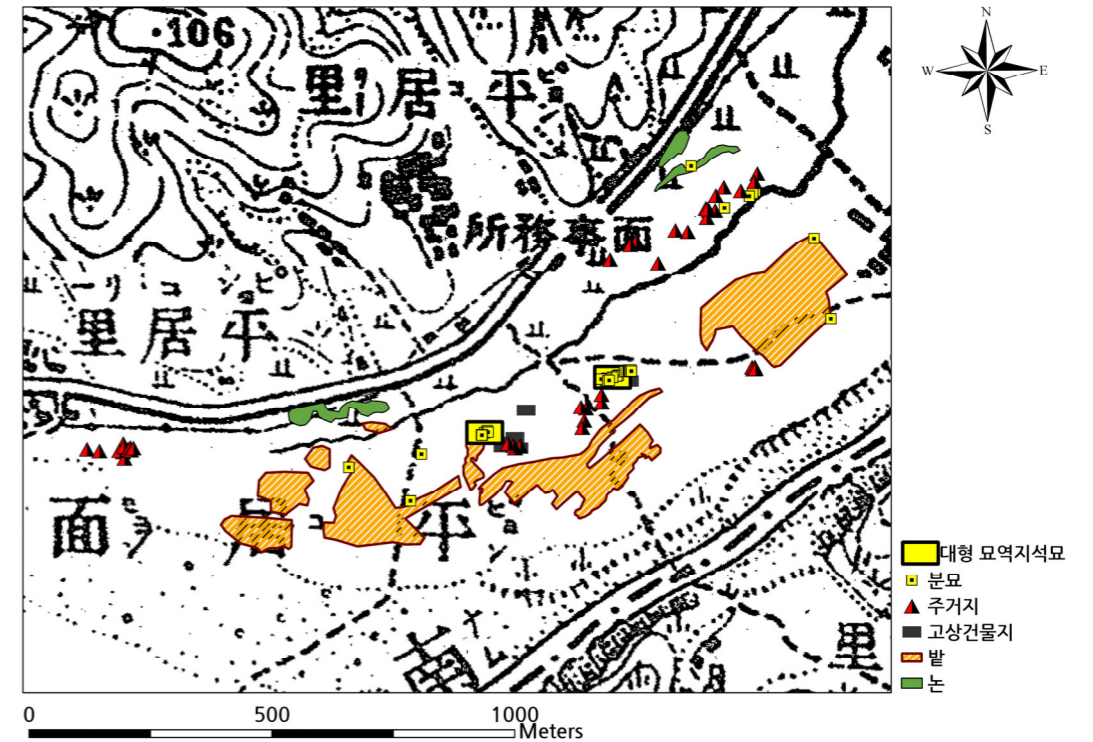


<그림 6> 대평리 옥방 유적의 유구배치도

것과 같이, 주거지와 분리된 별도의 장소가 아닌 일상생활 공간 내 축조되어 있지만, 분묘의 종류와 분포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세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 Ⅰ 유형은 대형 묘역지석묘 주변에 석관묘군이 배치된 것으로, 취락 내의 최상위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묘역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입지적으로 가시성 확보에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여 옥방 취락 전체의 경관을 지배하는 기념물로서 정치권력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구성원의 통합과 결속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Ⅱ 유형은 주거군과 인접하여 열상의 배치를 이루고 있는 분묘군이다. 이 군집은 주거군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출계 집단의 묘역으로 볼 수 있으며, 연속적인 공간 순서는 공동체성을 지닌 집단의 사회질서 재창출 과정을 대변한다. Ⅲ 유형은 농경지 경계에 접하여 일렬로 배치된 분묘군이다. 이것은 공간적 배치 맥락에서 추정컨대, 마을의 경제적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대평리 유적의 분묘는 축조집단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목적에 의해 조영된 매장의례공간이었으며, 취락 경관의 지배적 요소로서 취락공동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분묘는 전체적인 취락 경관의 맥락 속에서 구조화되어 있었고, 분묘 축조를 주도하였던 유력자에 의한 정치권력의 유지와 확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체로서 의미화된 장소들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매트릭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평거동 유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평거동은 약 1.5km에 걸쳐 주거지와 분묘, 경작지 등이 확인된 대규모 취락이다. 이 가운데 후기 단계의 취락 경관을 살펴보면, 주거지 42동, 고상건물지 9동, 분묘 33기, 그리고 약 12ha의 대규모 밭과 1ha의 논이 전체적인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7). 주거공간과 대규모 밭 경작지는 남강변 범람원의 자연제방에 자리하고 있고, 논은 배후습지에 조성되었다. 이것은 홍수 피해가 적고 배수가 양호한 자연제방에 주거지와 경작지를 배치하고, 수도작에 유리한 배후습지에 논을 경작하는 공간 이용 전략이 효과적으로 구사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범람원 취락 입지 조건은 대평리 유적과 동일하게 하천-밭경작지-주거(분묘)군-논경작지-산지로 이어지는 경관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분묘의 분포패턴이다. 대평리 Ⅰ 유형에 해당하는 대형 묘역지석묘+석관묘군은 취락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묘역은 석축단을 쌓아 주변의 시설물과 차별화를 시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묘역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배치 맥락과 현저성은 묘역지석묘가 취락 전체의 지배적 경관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묘역지석묘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취락 경관을 조성하여 이를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일종의 정치적 경관으로 묘역지석묘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Ⅱ 유형은 분묘는 주거군과 함께 취락 내 단위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평거동에서는 대평리와 같이 경작지 경계를 따라 석관묘군이 배치된 Ⅲ 유형의 분묘군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작지와 접하여 석관묘가 배치된 것을 볼 때, 경제적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일제강점기 지형도와 평거동 유적

이상, 대평리, 평거동 유적의 경관 구조를 정리해 보면, 범람원 층적지형에 입지한 취락의 특성상, 하천과 접한 자연제방을 따라 주거지, 밭경작지가 분포하고, 배후습지는 논경작지로 조성된 양상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취락 경관은 주거·매장·생산공간이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며 선형으로 배치된 구조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형의 취락 경관은 자연제방을 따라 조성된 주거군을 연계하는 통로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취락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로상에는 대형의 묘역지석묘와 석관묘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대형 묘역지석묘는 취락의 중심부 또는 현저한 곳에 위치하여 정치권력과 통합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기능하였고, 단위공간을 구획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사회적·이념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지배적 경관을 구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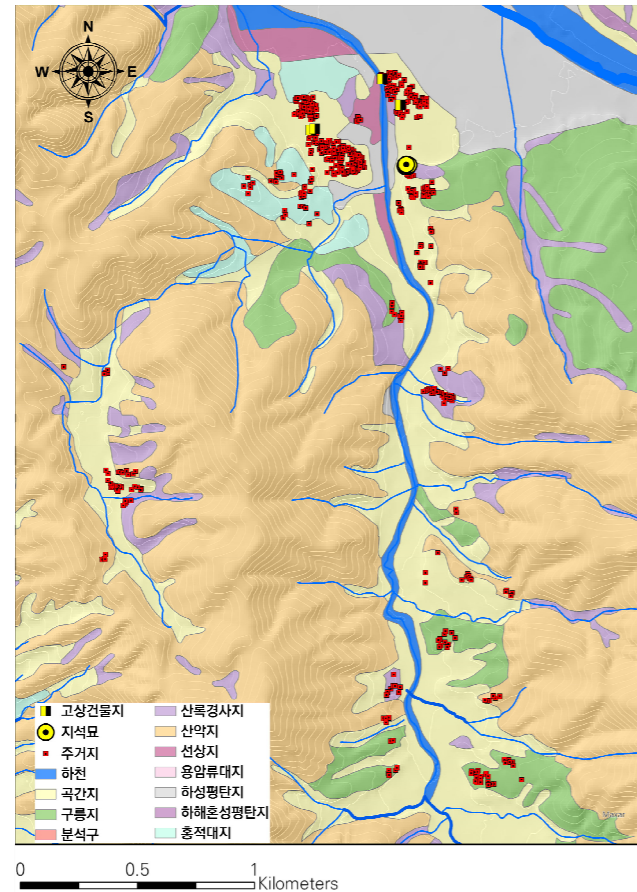
### 3. 곡간지형 : 경주 천군동 유적

청동기시대 취락의 지형 입지는 크게 평지형, 산지형, 구릉형(안재호 2000) 또는 해안성, 하천성, 구릉성(김권구 2005: 113-116)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곡간지 내에 산지 또는 구릉이 연속되고, 대체로 취락이 상대비고가 낮은 지점에 분포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기

존의 산지형, 구릉형은 곡간지형의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곡간지형은 지형학에서 산지나 구릉지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를 가리키며, 침식 과정에서 주변 산지와 구릉의 풍화·침식 물질이 퇴적되어 저지대를 이루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지형 환경은 주거지의 입지와 농경지 구성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특히, 곡간과 연결된 산록은 경사가 완만한 평탄면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취락이 발달하고 전답 등의 토지이용이 활발하여 인간 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오홍석 1994: 304). 양지의 경우에는 일조량이 많고 보온에 효과적이며, 연료의 수급과 수렵·채집 자원의 획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곡간을 따라 길게 형성된 하천은 취락 입지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자원을 공급하고 있다.

영남지방에서 이러한 곡간지형에 입지한 대표적인 취락은 경주 천군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 8). 천군동 유적에서는 약 3.2km에 이르는 곡간지에 청동기시대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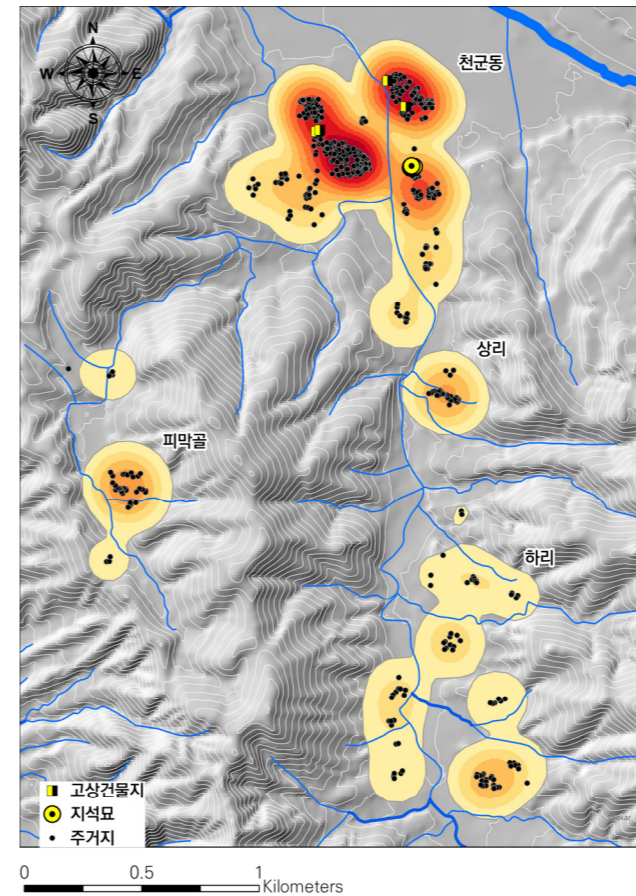
〈그림 8〉 경주 천군동 곡간지 취락 분포

주거지 582동, 묘역지석묘군, 고상 건물지, 수혈, 구상유구 등 대규모 유적이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대부분은 울산식주거지들로 검단리유형에 속하는 것이며, 취락은 후기 단계에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천군동 곡간지에는 천군동, 상리, 하리, 피막골 등 세 구역에서 취락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군집패턴은 객체 간 거리에 따른 자기상관성에 기반하여 밀집 정도를 추정하는 GIS의 커널밀도추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천군동 취락군은 곡간지 내 전체 주거지의 74.4%에 해당하는 433동의 주거지가 분포하며, 분포밀도가 가장 높다. 고밀도 구간을 기준으로, 세 개의 단위취락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상리에서는 27동의 주거지가 하나의 단위취락을 구성하

고 있다. 하리에는 천군동과 같이 고밀도의 단위취락이 확인되지 않지만, 26동 이하의 주거지로 구성된 소규모의 취락들이 확인된다. 피막골에는 35동의 주거지로 구성된 단위취락과 4동 이하의 소규모 주거군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위취락 구성과 규모를 통해 볼 때, 지역적 차원에서 천군동을 중심으로 상리, 하리, 피막골의 취락이 계층적 관계를 이루며 상호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취락 구조는 곡간지의 지형적·지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각 취락군의 지형



〈그림 9〉 경주 천군동 곡간지의 취락 분포밀도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표 1). 천군동 취락군의 경우, 타 취락군에 비해 구릉지, 산록경사지, 산악지 등 산지에 연결된 지형에 입지한 주거지 수가 적고, 곡간지, 선상지, 홍적대지 등과 같은 평탄지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이것은 천군동 취락군이 주거공간의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취락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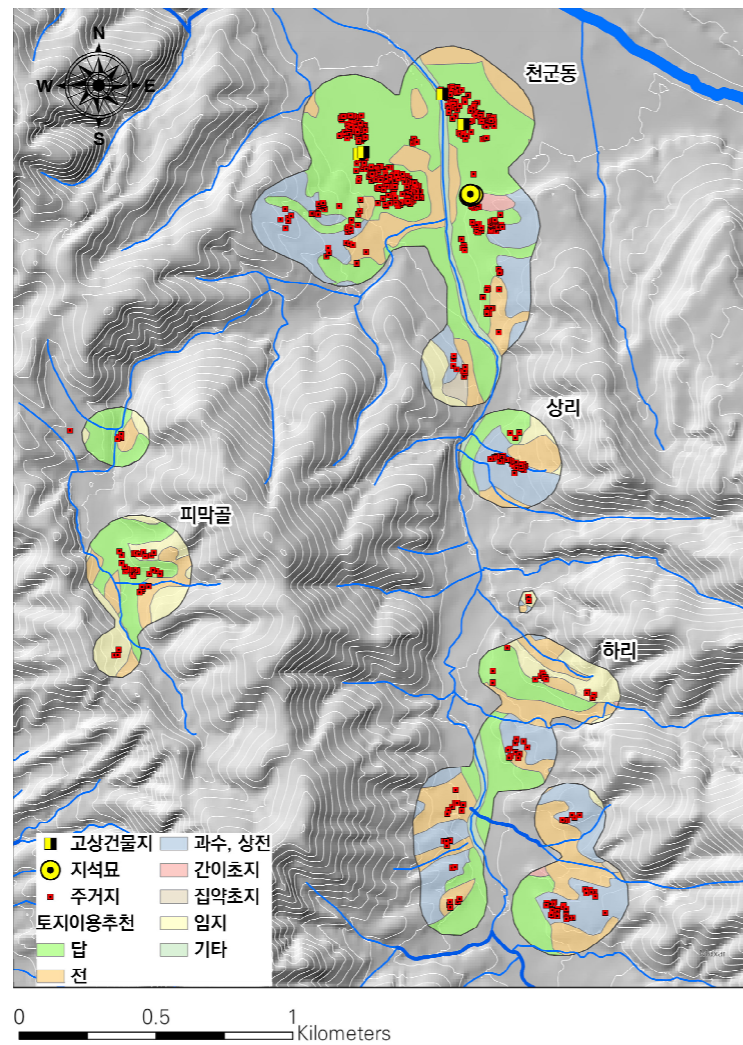
다음으로, 취락군별로 각 구역 내의 토지이용 추천 현황을 살펴보자. 천군동의 경우, 전답 추천 비율이 군집 전체 면적의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수/상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5.7%가 농지로 가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리, 하리, 피막골에서도 높은 가용농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면적은 천군동과 비교되지

〈표 1〉 경주 천군동 곡간지 주거지의 지형 입지

취락군	곡간지	구릉지	산록경사지	산악지	선상지	홍적대지	기타	합계
천군동	354	13	22	5	8	27	4	433
상리	27							27
피막골	26		5	12				43
하리	14	43		22				79
합계	421	56	27	39	8	27	4	582

않는다. 이것은 천군동 취락군이 대규모 노동력과 가용농지를 기반으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제력은 사회복합도 진전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확대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Drennan and Peterson 2011: 65-66). 천군동 취락군은 이러한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곡간지 전체의 취락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확보하였고, 이것은 취락 체계를

구분		천군동	상리	하리	피막골
답	면적(m <sup>2</sup> )	460221	25601	142577	95344
	비율(%)	61.3	25.1	26.0	50.2
전	면적(m <sup>2</sup> )	125027	24509	164736	40194
	비율(%)	16.6	24.0	30.0	21.2
과수/상전	면적(m <sup>2</sup> )	133737	45318	150215	0.0
	비율(%)	17.8	44.4	27.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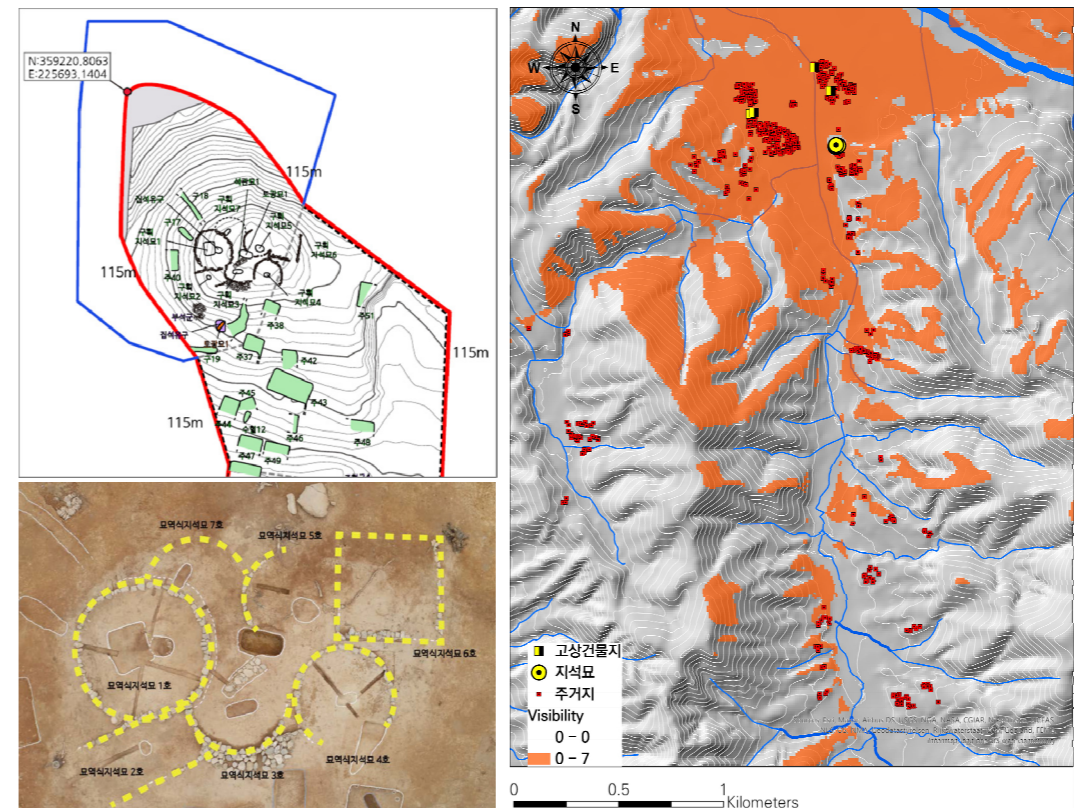
〈그림 10〉 경주 천군동 곡간지 취락의 토지이용추천

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천군동 취락군이 취락 체계 전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지리적 이점도 작용하고 있었다. 천군동 곡간지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산지로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지만, 천군동을 거쳐 북천을 통해 경주선상지와 연계할 수 있는 개방성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군동은 외부와의 물리적 연계를 제한하거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였던 셈이다. 또한 이곳은 대내외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 집중·분산되는 사회경제 네트워크의 결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천군동의 연결성과 매개성은 네트워크 조직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천군동 취락군의 지형지리적 입지 조건은 집주(集住)와 대규모 취락의 형성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 취락의 규모는 천군동 곡간지 전체를 압도하는 물리적 경관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복적인 시각적 체험은 정치경제 권력을 상징하고, 취락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경관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천군동 취락군은 곡간지 전체를 매개하는 결절지인 동시에, 취락공동체를 사회적·이념



〈그림 11〉 경주 천군동 묘역지석묘(좌)의 가시권(우)

적으로 통제하는 상징 경관으로 기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 구조는 계층적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였으며, 여기에 작용한 ‘힙(power)’은 곡간지에 분포한 취락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통로로서 기능한 것은 하천망이었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천군동 취락군이 위치한 지점은 상리, 하리, 피막골에서 흘러 내려온 하천이 집적되는 곳으로, 각 취락군 간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천군동 곡간지의 취락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동시 이 지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을 통해 각 취락들과 연결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천군동 취락군은 하천망을 통해 사회 네트워크 조직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위상은 곡간지에서 유일하게 조영된 매장의례 시설인 묘역지석묘군을 매개로 극대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천군동 묘역지석묘는 모두 7기로 구성된 군집으로, 해발고도 117.4m의 독립된 구릉상에 축조되었다(그림 11). 이것은 공간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군동 곡간지의 하천망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곡간지 전체의 사회구성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지석묘를 조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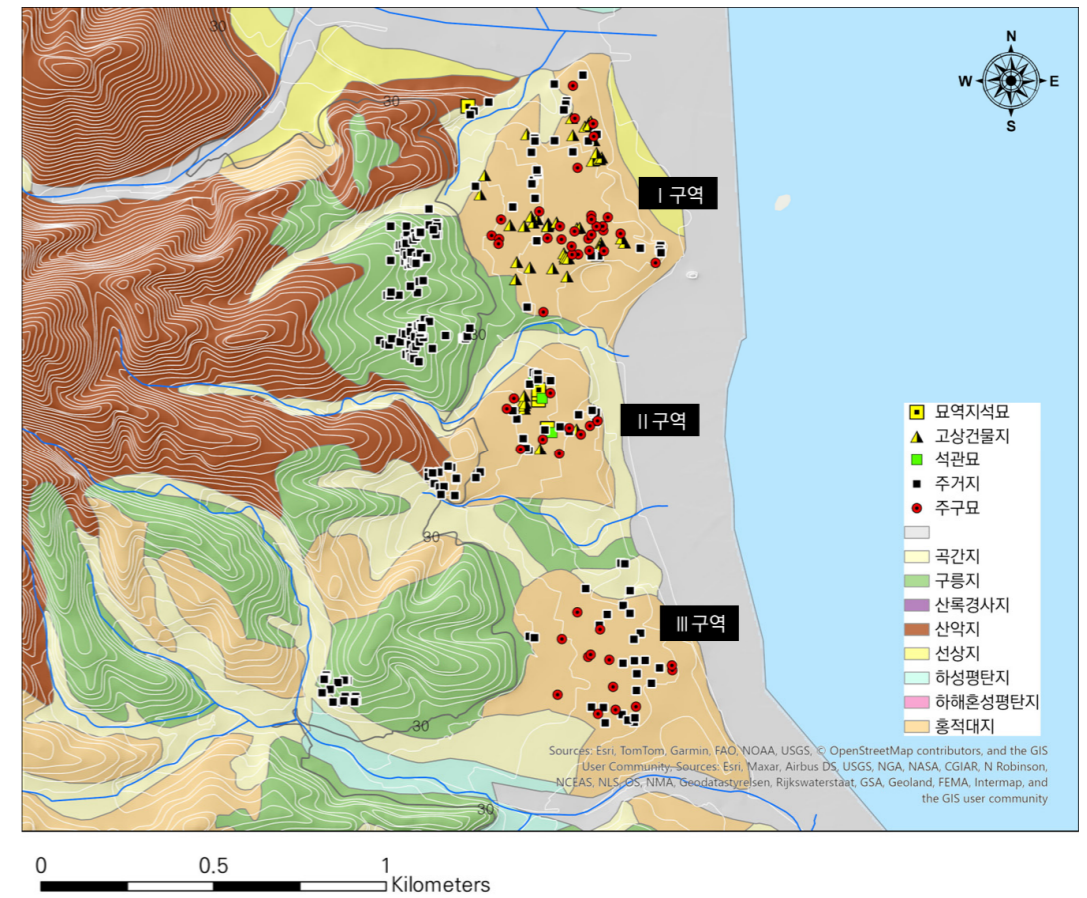
지석묘는 공동체적 경험과 역사적 서사, 개인과 집단의 기억이 퇴적된 특정한 장소이며(이성주외 2022: 146), 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정체성을 상징하고 정치권력을 재창출하는 의미화된 장소이다(강동석 2023: 38). 천군동 묘역지석묘군은 이처럼 복합적 의미를 지닌 장소였고, 네트워크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그것을 배치하여 사회적 기능과 역할, 상징성을 극대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묘역지석묘군의 다의성은 시각적 체험을 통해 보다 강조되었을 것이다. 가시성은 인간의 움직임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연속된 시각 체험은 이동 경로를 통제하면서 사회적 맥락이 작용하는 장소를 형성하게 된다(Ingond 2000). <그림 11>은 천군동 묘역지석묘군의 가시권을 분석한 것이다. 지석묘의 가시권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리, 하리, 피막골에서 하천망을 따라 이동한 사회구성원들은 취락공동체의 정체성과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묘역지석묘에 대해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분묘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시각 체험의 유도는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공간상에 구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강동석 2025: 24). 천군동 묘역지석묘군을 조영하였던 세력은 이것을 이념 통제 기제로 이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창출하는 매개체로 삼았을 것이다.

정리하면, 천군동 유적이 자리한 곡간지형은 하천의 발달과 토양의 퇴적으로 인해 주거 입지와 농경지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크고 작은 취락군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천군동 취락군은 지형·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을 배경으로 대규모 취락을 이루고 있었으며, 곡간지 전체의 경관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편 천군동, 상리, 하리, 피막골 취락군은 통로 역할을 하는 하천망을 통해 계층적 사회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천군동 취락군

은 연결성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결절지에 위치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여기에 조성된 묘역지석묘군은 취락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관계를 재창출하며 이념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상정된다. 이와 같이, 천군동 취락군을 중심으로 한 계층적 취락 체계의 형성은 곡간지의 지형지리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천망이 단위취락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능하며 선형의 경관 구조를 형성하였고, 핵심 경관을 구성하는 천군동 취락의 주거군과 묘역이 공동체 전체의 결속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소로서 취락 경관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적·이념적 매트릭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해안지형 : 울산 강동 산하동 유적

해안지형은 지리학에서 취락의 입지와 구조를 구분하는 지형 중 하나로(오홍석 1994; 홍경희 1999),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 유형을 대표하는 지형이기도 하다(이수홍 2014: 22). 특히, 영남지방의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검단리유형의 취락은 울산, 경주, 포항의 해안가에



<그림 12> 울산 강동 산하동의 취락 분포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안지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울산 강동의 산하동에서 확인된 유적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안지형에 입지한 취락의 경관 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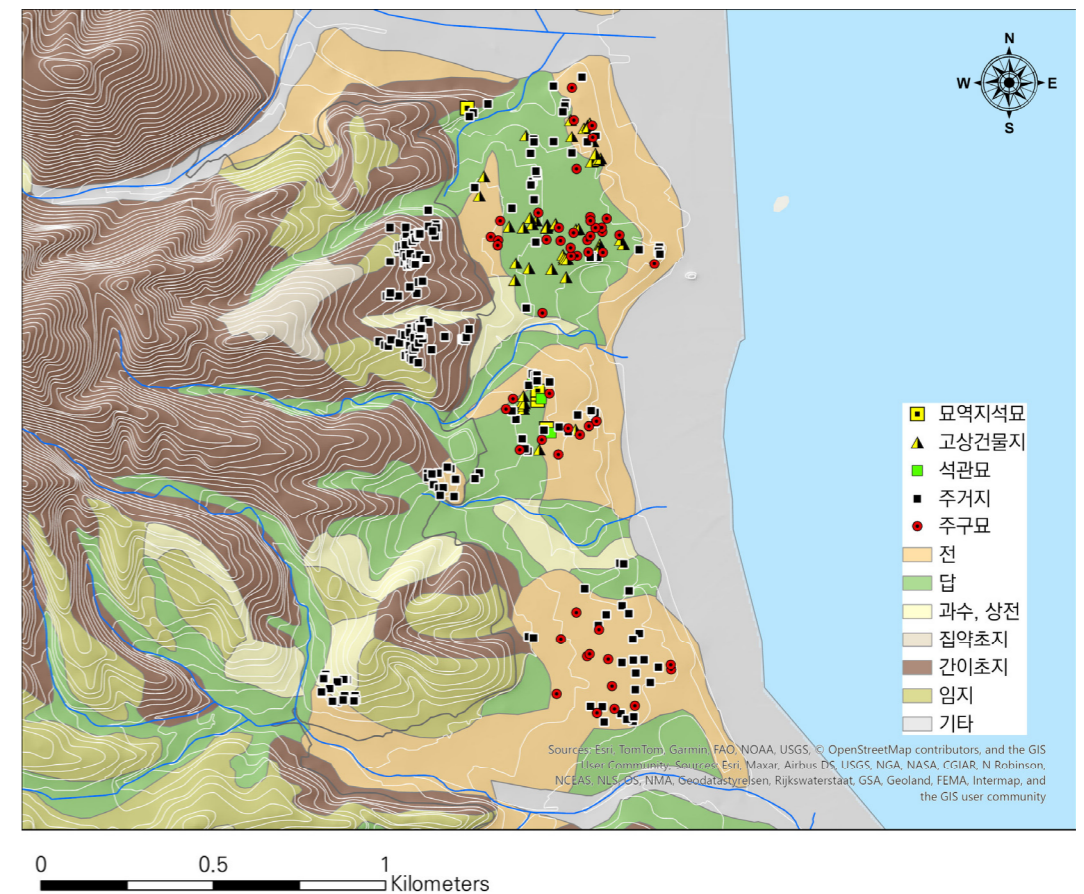
해안지형은 크게 사빈해안과 암석해안으로 구분되는데(홍경희 1999: 159-162), 산하동 유적을 포함한 검단리유형 취락 대부분은 암석해안지형에 해당한다. 산하동의 지형은 일반적인 암석해안과 유사하게 배후산지가 해안에 근접하고 해안선의 출입이 많으며, 침강(沈降海岸)에 평지가 조성된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곳의 지형은 소하천을 기준으로 각각 산지-구릉지-홍적대지-해안으로 이어지는 지형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데(그림 12), 이것은 단위취락의 입지와 구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산하동의 해안지형은 크게 Ⅰ·Ⅱ·Ⅲ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구역에서는 주거지, 고상건물지, 수혈, 구상유구, 주구묘, 석관묘, 묘역지석묘 등 많은 생활유구와 분묘가 확인되었다. 이들 유구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후반~후기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각 구역에 입지한 취락은 공통적으로 산지, 구릉과 같은 고지에 높은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홍적대지에는 분묘, 고상건물지, 수혈 등이 위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홍적대지에서도 고지와 마찬가지로 울산식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밀집도 낮고, 고지에서는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지의 홍적대지는 각 취락공동체가 매장의례행위를 위해 특별히 배려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함께, Ⅰ·Ⅱ구역에서 분묘와 인접하여 확인된 고상건물지도 고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장의례와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저장시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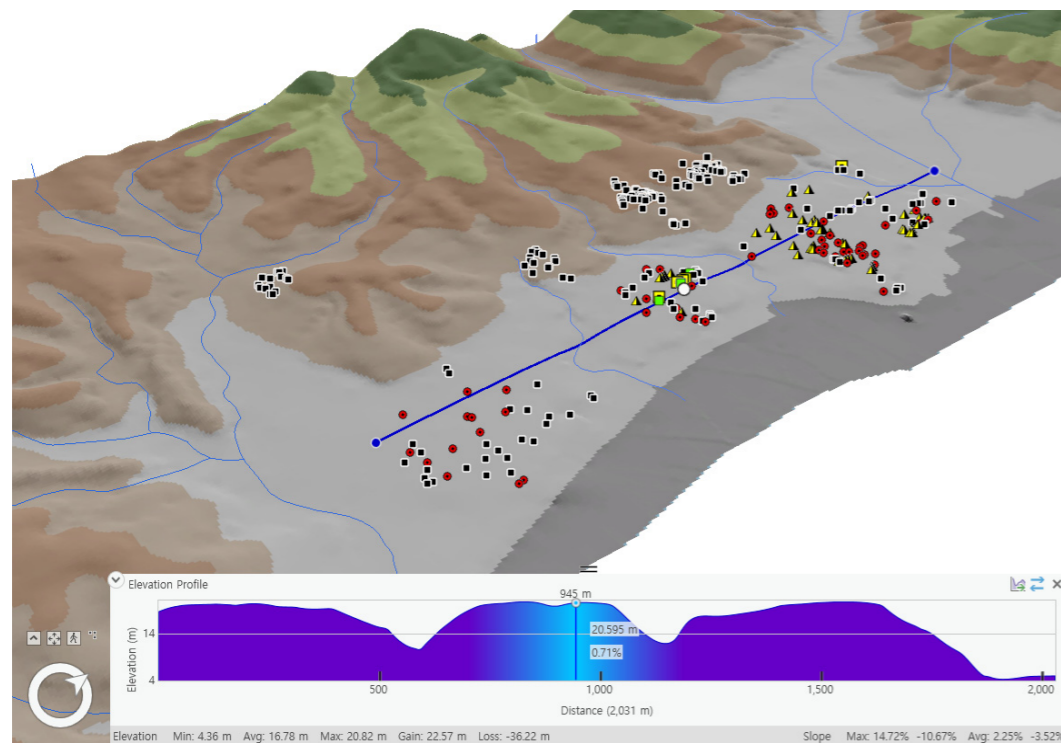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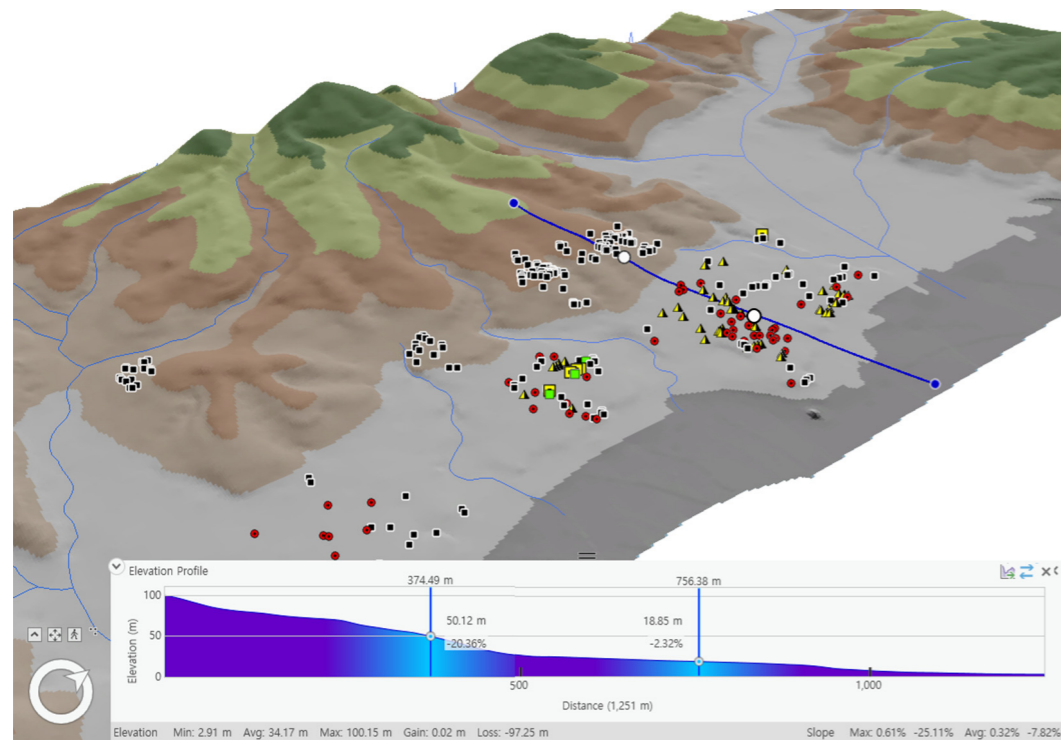
주거지 출토 토기를 살펴보면, 복합문보다는 단독문으로서 압날계의 단사선문과 공열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산하동 유적이 후기전반에 본격적으로 조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하동의 주구묘도 이수홍의 주구묘 분류안 ⅠB식에 해당하며 후기전반부터 편년된다는 점에서(이수홍 2012: 92), 산하동 취락은 처음부터 주거공간과 매장공간이 분리된 경관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편, Ⅰ·Ⅱ구역의 주거지에서 후기후반으로 편년되는 날알문토기가 출토되었고, Ⅱ구역의 홍적대지에서는 묘역지석묘가 확인되었다.2) 이것은 후기후반에도 매장의례시설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후기전반부터 저지에 위치한 홍적대지는 매장의례행위를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핵심 주거공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 또는 구릉에 집중적으로 조영된 기능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관 구형은 각 취락공동체 단위별로 주거공간-매장의례공간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발굴조사기관에서는 청동기시대 석렬유구로 보고하였으나, 장방형 또는 방형 석렬의 연결 양상은 전형적인 묘역지석묘의 구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묘역지석묘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능공간의 분리 운영은 토지이용과 관련이 있었다고 본다. <그림 13>은 토양도의 토지이용추천과 유구 분포를 중첩한 것인데, 모든 매장의례시설과 고상건물지는 전답 경영에 적합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검단리유형 분포권에서는 대규모 전답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거동 옥현, 야음동, 입암리 등에서 경작지가 발견되었다. 이것과 함께, 산하동에서 해양자원의 적극적인 획득 활동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경은 생업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이용추천을 볼 때, 산하동에서 농경이 이루어졌다면 가용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홍적대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홍적대지에는 분묘와 고상건물지가 집중 배치되어 있다. 이는 매장의례시설을 생업경제활동영역에 의도적으로 조영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산하동에서 경작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평리·평거동 유적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농경지 주변에 매장의례시설을 배치하여 취락단위별로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고, 생산과 저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림 13> 울산 강동 산하동 유적 유구 분포와 토지이용 추천



〈그림 14〉 울산 강동 산하동 유적의 지형 단면

농경지의 조성 and 경영은 노동력 동원과 통제를 수반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리더는 반복적인 매장의례행위를 통해 노동력 통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결속을 증진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전략을 구사한다(강동석 2024: 146). 산하동의 각 구역에서 보이는 매장·생산 공간의 조영은 이러한 노동력의 통제와 정치권력의 확대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구역의 이루어진 매장의례행위와 분묘 경관에 대한 반복적인 체험은 취락공동체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경제적 부를 확보하기 위한 결속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홍적대지는 매장·생산공간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을 연계하는 통로의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4>의 지형단면도에서 1 구역 주거공간과 생산·의례공간의 높낮이는 약 32m 차이가 나며, 각 구릉에 위치한 취락을 직접 연계할 경우, 깊은 계곡과 높은 경사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홍적대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평한 대지가 연속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해 생산·의례공간을 통과하는 이동로는 각 취락공동체를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통로는 취락공동체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국지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자원과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매개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울산 산하동의 해안지형은 주거와 매장·생산공간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하천을 기준으로 산지/구릉-홍적대지-해안으로 이어지는 지형은 각각의 취락공동체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었으며, 기능공간의 배치에도 영향을 주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산지나 구릉은 주로 주거공간으로 이용되었고, 가용농지의 확보에 유리한 낮은 곳의 홍적대지는 생산과 매장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각 취락공동체 단위의 경관은 홍적대지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으며, 분묘는 각 공동체의 중심점이 되어 각종 기능공간을 사회적·이념적으로 통합하는 특별한 장소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 IV. 지형 입지별 취락 경관의 특징 - 맺음말을 대신하여

본 발표에서는 지형 조건이 취락 경관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공동체성의 형성, 통합과 분리, 계층 관계 등을 창출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취락 입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선상지, 층적지, 곡간지, 해안에 입지하는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유적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문화경관론과 경관생태학에 기초한 복합 연구에서 제시된 PCM(패치-통로-매트릭스) 모델을 이용하여 취락의 경관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선상지형을 대표하는 유적은 대구 월배선상지의 유적군을 들 수 있다. 월배선상지는 3.1km<sup>2</sup> 규모의 대형 선상지로, 용수와 농경지 확보에 유리한 선측부, 선단부의 지형 조건이 취락 경관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선측부를 중심으로 주거군이 형성되

었지만, 후기에 인구의 증가와 농경의 본격화로 주거공간이 확장되면서 선단부를 따라 주거+매장공간(패치)이 선형으로 연속 배치되는 경관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단위취락을 연결하는 통로로 작용하며 자원·정보의 흐름과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였다. 월배선상지에서 이와 같은 취락 경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은 선정, 선축, 선단에 세워진 입석이었다. 입석은 취락공동체의 영역 표시자인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활동 기반을 구성하는 매트릭스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층적지형은 남강유역의 대평리와 평거동 유적을 통해 살펴보았다. 층적지는 하천 퇴적에 의해 형성된 범람원으로, 홍수의 위험이 적은 자연제방을 따라 취락과 밭경작지가 자리하고, 배후습지에는 논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 대평리·평거동의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은 이러한 층적지의 입지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체적인 취락 경관은 하천-밭-주거+분묘-논-산지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매장·생산공간으로 구성된 단위취락은 일종의 패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관 패치를 연계한 것은 자연제방이었다. 자연제방은 단위취락을 대내외적으로 연결하는 이동로 역할을 하였으며, 선형의 경관 구조를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층적지의 취락 경관에서 두드러진 것은 대형 묘역지석묘와 석관묘로 구성된 분묘였다. 분묘는 취락의 중앙 또는 선단에 위치하여 기능공간을 구분·통합하는 지배적 경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한편, 공동체성과 결속을 강화하는 경관으로서 패치와 통로를 구조화하는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었다.

곡간지형이 취락의 경관 형성에 미친 영향은 천군동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천군동에는 길이 3.2km의 곡간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곳에 청동기시대 전기~후기의 단위취락군이 입지해 있다. 이것은 천군동, 상리, 하리, 피막골 취락군으로 구분되는 경관 패치를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천군동 취락군은 주거공간과 가용농지 확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일종의 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절지에 위치하여 자원과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천군동 취락군은 이를 기반으로 곡간지 내 취락 체계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적 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자원과 정보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하천망이었다. 곡간지의 하천망이 하나로 통합되는 지점에 천군동 취락군이 입지하고 있었으며, 곡간지에서는 유일하게 묘역지석묘군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곡간지 전체를 물리적·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지점에 형성된 대규모 취락과 매장의례시설은 천군동 유적의 경관을 시각적으로 지배하는 요소로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사회적 중심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해안지형은 검단리유형을 대표하는 울산 강동 산하동 유적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곳의 해안지형은 소하천을 경계로 하여 산지-구릉-홍적대지-바다로 이어지는 지형에 단위취락(패치)이 입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 단위취락의 경관은 높은 산지 또는 구릉에 주거군이 밀집해 있

고, 저지의 홍적대지에는 주구묘, 석관묘, 묘역지석묘 등의 매장의례시설과 고상건물지가 입지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특별히 배려된 전용공간에 의도적으로 매장·저장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홍적대지에 전답에 적합한 토양이 집중 분포하는 것을 통해 볼 때, 분묘를 매개로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결속을 강화하여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매장·생산·저장시설이 자리한 홍적대지는 단위취락들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위취락별로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사회경제적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안지형의 취락 경관 구조에서 분묘군은 단위취락 공동체의 정신적 중심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로서 산하동 전체의 경관을 통제하는 매트릭스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각 지형 조건은 취락의 입지와 경관 구조를 형성하는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취락 경관에서 패치, 통로, 매트릭스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환경 적응과 사회 네트워크 형성, 정치권력의 구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취락은 경관 내에서 뚜렷한 경계를 가진 패치를 구성하고 있었고, 선단, 자연제방, 하천, 홍적대지는 물리적·사회적 통로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석기념물과 분묘군은 취락 전체의 경관을 지배하며 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매트릭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강동석, 2023, 「남강 유역 청동기시대 분묘의 경관-진주 대평리·평거동·초장동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청동기학보』 32,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24, 「가야 고지(故地) 청동기시대 사회의 복합화 유형 검토-GIS를 이용한 취락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사람』 88, 수선사학회.
- \_\_\_\_\_, 2025,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의 현상학적 접근-분묘의 시각적 체험을 중심으로-」, 『사람』 93, 수선사학회.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_\_\_\_\_, 2020, 「대구 월배지역 입석의 기능과 출현 배경」, 『영남학』 73, 영남문화연구원.
- 김도현·이재희, 2004,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에 대한 검토-생업과 관련하여-」, 『영남고고학』 35, 영남고고학회.
- 김인경·안형기, 2023, 「고지형 분석을 이용한 보성강 중류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 특징」, 『영남고고학』 96, 한국청동기학회.
- 도영아, 2007, 「경주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생업에 대한 검토」,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 박영구·허의행, 2022, 「북한강유역 미사리유형 취락의 입지환경 변화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31, 한국청동기학회.
- 박지훈·오규진, 2009, 「지리적 관점으로 본 충남 천안천 유역에 있어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유형과 입지요인」, 『한국지형학회지』 16, 한국지형학회.
- 배덕환, 2009, 「경남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의 입지형태에 따른 지역성 연구」, 『문물연구』 15, 동아시아문물연구소.
- 안재호, 2000,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 오홍석, 1994, 『취락지리학-농어촌의 지역성격과 재편성-』, 교학연구사.

유병록, 2019, 「영남지역 송국리문화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윤순옥·사이토료지·황상일·다나카유키야·오구치다카시, 2005, 「한국 선사지의 이론적 고찰과 분포특징」, 『대한지리학회지』 24, 부산고고학회.

윤천수, 2006, 「월배선상지의 청동기시대유적 분포양상 검토」, 『영남문화재연구』 19, 영남문화재연구원.

이성주·김태희·이수정, 2022, 「지석묘의 축조와 경관의 역사」, 『한국청동기학보』 31, 한국청동기학회.

이수홍, 2012, 「청동기시대 검단리유형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_\_\_\_\_, 2014, 「취락의 입지」,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취락-』, 서경문화사.

\_\_\_\_\_, 2019, 「대구 월배지역 송국리문화 유입 시점 검토」, 『고고광장』 24, 부산고고학회.

하진호, 2008,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황상일·윤순옥, 1999, 「대구분지의 선사 및 고대 인간생활에 미친 Holocene 자연환경변화의 영향」, 『한국고고학보』 41, 한국고고학회.

홍경희, 1999, 『촌락지리학』, 법문사.

Cushman, S., Jeffrey S. Evans and Kevin McGarigal, 2010, Landscape Ecology: Past, Present, and Future, *Spatial Complexity, Informatics, and Wildlife Conservaion*, Springer.

Drennan, R. D., C. E. Peterson, 2011, Challenges for Comparative Study of Early Complex Societies, In Michael E. Smith(ed), *The Comparative Archaeology of Complex Socie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mpf, M., 2020, Modeling multivariate landscape affordances and functional ecosystem connectivity in landscape archeology, *Archa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Sciences* 12: 159.

Knitter, Daniel, Brozio, Jan Piet, Hamer, Wolfgang Berengar, Duttmann, Rainer; Müller, Johannes, Nakoinz, Oliver, 2019, Transformations and Site Locations from a Landscape Archaeological Perspective: The Case of Neolithic Wagrien, Schleswig-Holstein, Germany, *Land* 8, 68.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London.

Wu, Jianguo, Richard Hobbs, 2010, Landscape ecology: the state-of-the-science, *Key Topics in Landscape Ec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71-287.

Wu, Jianguo, 2010, Landscape of culture and culture of landscape: does landscape ecology need culture?, *Landscape Ecology* 25, pp.1147-1150.

\_\_\_\_\_, 2011, Integrating Nature and Culture in Landscape Ecology, *Landscape Ecology in Asian Cultures*, Springer, pp.301-321.

\_\_\_\_\_, 2019, Landscape Ecology, *Encyclopedia of Ecology*, pp.527-531.

Sauer, C., 1925, The Morphology of Landscape,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in Geography* 2(2), pp.19-53.

Sikk, K., Geoffrey Caruso, 2024, Framing settlement systems as spatial adaptive systems, *Ecological Modelling* 490, 110652.

## 제5발표

# 취락 입지와 사회구조(네트워크)

-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

윤재빈(울산문화유산연구원)

## I. 머리말

취락의 입지는 자연환경 또는 생업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대체로 생활용수, 경작지의 확보, 지형과 방어 환경, 연료의 습득과 교통의 편리성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김도현·이재현 2004:12).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는 경사지(구릉)와 평지(충적지)로 구분되는데, 초기에는 강안 충적지상에 취락이 형성되며, 전기에는 충적지와 구릉지 모두 입지하고, 이러한 양상은 후기)까지 이어져 충적지와 구릉지에는 대규모 취락이 출현한다(이수홍 2025). 이렇게 입지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므로 입지와 사회구조의 관계성을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에 본고는 취락의 입지에 따라 구성되는 사회구조(네트워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울산지역은 검단리유형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동남해안지역의 청동기사회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울산지역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하천지대가 발달하지 못하여 구릉 중심의 취락조성이 이루어져 입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미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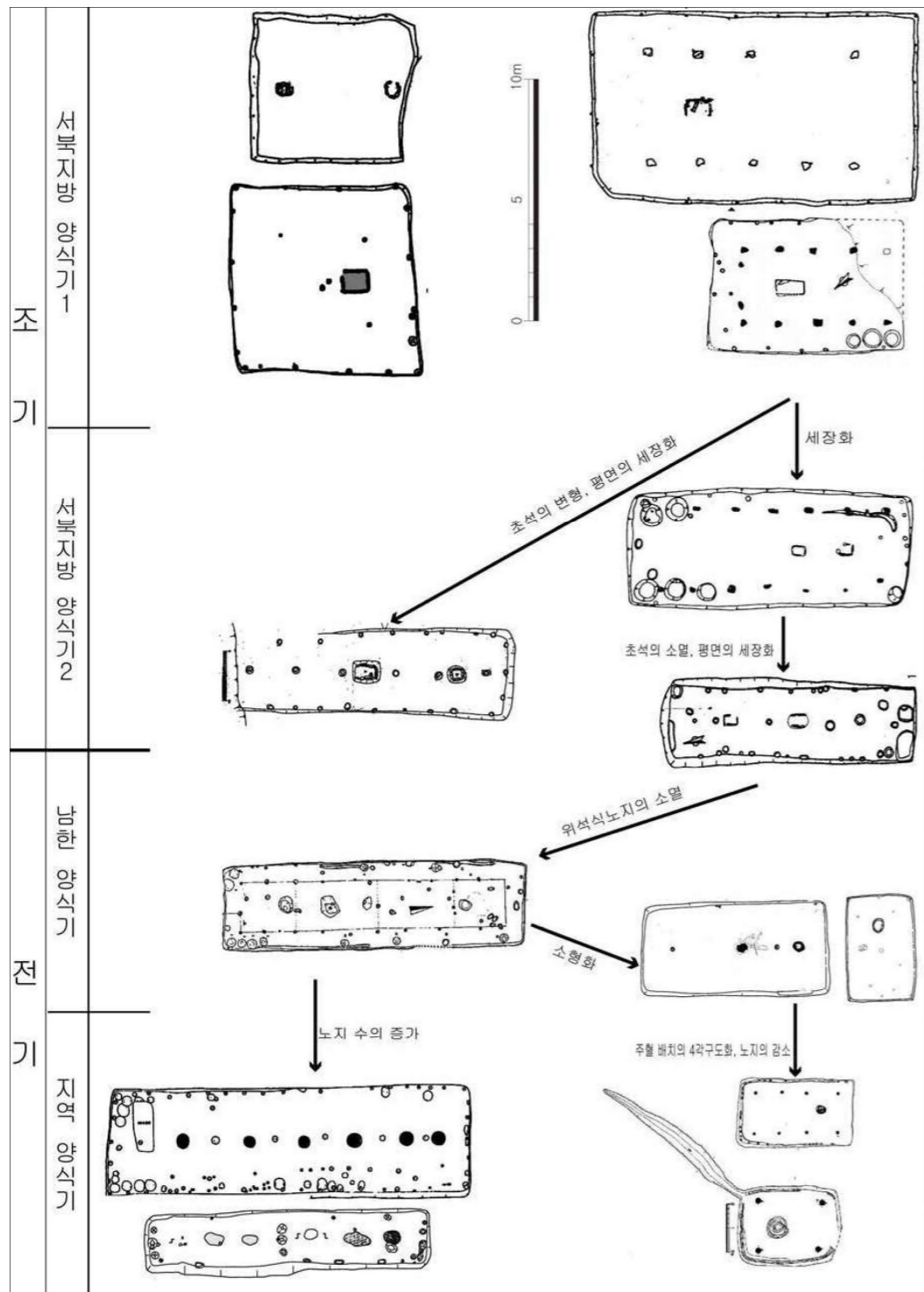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충적지상에 대규모 취락유적이 발굴조사되면서 이 지역의 취락 입지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으로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사회구조의 관계망을 구성하는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향은 먼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안을 제시하고, 주요 취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취락의 검토는 동일구릉에 조성된 단위 취락으로 여겨지는 경우 하나의 취락으로 설정하였다. 주요 취락의 입지를 분석하고 입지에 따른 취락 내 물질자료(주거지와 유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여 취락 간 관계망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강동석 2019:12).

## II. 취락의 입지

### 1. 편년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은 선행연구에 의해 이미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동진숙 2003;

1) 청동기시대 시대구분은 안재호(2006)의 3분기안(조기-전기-후기)에 따른다.



〈도면 1〉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주거지의 변화와 계통(울산문화재연구원 2024 인용)

황현진 2004; 김현식 2005 · 2023; 이수홍 2012; 안재호 2014). 연구자들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주거지와 토기문양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체로 위석식노지를 갖춘 (장)방형주거지에서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단계-대형 장방형주거지에서 (유사)가락동식토기가 출토되는 단계-세장방형의 복수노지를 갖춘 주거지에서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는 단계-검단리식주거지가 출현하고 복합문이 소멸하며, 공열문, 난알문 등 단독문만 확인되는 단계-공열문이 소

〈표 1〉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년

단계	주거지	토기문양
1	(장)방형주거지+위석식노지 대형 장방형주거지	돌대문 · 가락동식토기
2	세장방형주거지+복수노지 검단리식주거지	혼암리식토기
3	검단리식주거지	검단리식토기



〈도면 2〉 주요 취락 분포도(표 2~4 번호와 동일)

2) 검단리유형의 대표 주거지라는 점에 의의를 두어 이수홍(2025:17)의 제안을 따르고자 한다.

멸하고 날알문, 무문양만 잔존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이수홍 2012; 김현식 2023).

본고에서는 취락입지와 사회구조의 변화상을 거시적인 흐름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세분된 편년을 지양하고 주거지와 토기문양을 중심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위석식 노지를 갖춘 (장)방형주거지·대형 장방형주거지/돌대문토기·가락동식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이다. 2단계는 복수노지를 갖춘 세장방형주거지·검단리식주거지/흔암리식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단계이다<sup>3)</sup>. 3단계는 검단리식주거지/날알문·공열문·파수부심발(이상 검단리식토기)이 중심을 이루는 단계이다<표 1>.

## 2. 주요 취락 검토

주요 취락의 검토는 총 155개소 유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동일 구릉 혹은 거리나 위치상 동일 취락으로 판단되는 유적들은 단일취락(군)으로 검토하였다.

### 1) 태화강유역

태화강은 상북면 가지산 옥류동과 두서면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동으로 흐르는 길이 47.54km의 강이다. 태화강유역은 대부분 구릉지대를 형성하지만, 강의 양안과 하류는 충적지를 이루고 있다. 상류역에는 작괘천, 둔기천, 척과천, 하류역에는 경주 토함산과 동대산맥에서 발원하는 동천이 태화강으로 합류한다.

태화강유역의 검토대상 유적은 55개소이다. 이 중 충적지 등 평지에 입지하는 유적 11개소 외에는 모두 구릉상에 입지한다.

<표 2> 태화강유역 주요 취락(도면 2번호와 동일)

번호	취락	입지	주요유구	단계	보고서명
1	신화리	구릉	주거478/수혈19 구27주구1/환호1 합정2/석관1	2·3	한국문화재연구원, 2011, 언양 신화리유적
					한국문화재연구원, 2012, 언양 신화리유적(2)
					동아대학교박물관, 2011, 울산신화리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2010, 울산신화리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울주 신화리 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2, 울주 신화리유적 I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3, 울주 신화리유적 II
					울산문화재연구원, 2016, 울산신화리412-5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울산교동리유적 I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울산교동리456유적					

3) 망양리Ⅱ 1호 주거지와 외광리 24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를 갖춘 장방형주거지에서 흔암리식토기가 출토 되어 토기문양을 우선으로 2단계에 위치시켰다.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교동리192-37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언양교동리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4, 울주 교동리유적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18, 울주 교동리 103-23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울산 교동리 456-2번지 유적
2	길천리	평지	주거43/구10 환호1/굴립주7 지석묘5/집석6	2·3	동양문화연구원, 2013, 울산 길천유적
	거리	구릉	주거47/환호1 굴립주1	3	동서문화연구원, 2020, 울산 거리유적
3	남천	평지	주거7/주구1/구6 수전	2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5, 울주 서부리 남천유적
4	상천리	구릉	주거345/수혈28 구3/석관묘1	2·3	울산문화재연구원, 2019, 울산상천리941-4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21, 울산상천리유적 I
					울산문화재연구원, 2021, 울산조일리산60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조일리1071-2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24, 울산 조일리 1095-49유적 정밀발굴조사 결과보고서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조일리산27유적					
5	구수리	구릉	주거58	2·3	가람문화재연구원, 2022, 울주 구수리 산253번지 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4, 울주 구수리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울산구수리277유적					
6	반송리	구릉	주거19/수혈3/구2	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반송리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22, 울산반송리유적 II
					울산문화재연구원, 2015, 울산반송리산37-6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울산 반송리 38-1번지 유적(국비)
7	반천리	구릉	주거26/굴립주3 주구1	3	울산대학교박물관, 2004, 울산 천소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
					가람문화재연구원, 2023, 울주 반천리 365번지 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3, 울주 반천리 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2005, 국도24호선(울산-언양) 확포장구간내 울산 굴화리, 백천, 구수리유적
8	반연리	구릉	주거38	3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10, 울주 반연리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반연리가막못유적
9	입암리	평지	주거46/합정34 굴립주2 입석5/경작지	3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15, 울주 입암리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입암리유적
10	구영리	구릉	주거121	3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 구영리유적

	A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7, 울산 구영리 유적
	구영리B	평지	주거57	1~3	경남대학교박물관, 2004, 울산 구영리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7, 울산 구영리 유적
11	천상리	구릉	주거43/구2/ 환호1	3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울산 천상리취락유적
12	굴화리	평지	주거178/	1~3	삼한문화재연구원, 2025, 울산 굴화리 취락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12, 울주 굴화리 백천들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굴화리생기들유적
13	장검	구릉	주거59/주구18 집석3/야외노지7 수혈10/구16 토광묘1	2·3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10, 울주 장검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굴화리장검유적 I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굴화리장검유적 II 강산문화연구원, 2020, 울주 굴화리 300번지 유적
14	다운동 A	구릉	주거22/수혈4/구3	3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다운동 유적 II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22, 울산 다운동 913-1번지 유적 I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3, 울산 다운동 마구역 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5, 울산 다운동 바구역 유적
	다운동B (대골)	구릉	주거25/수혈1 분묘1/굴립주1	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다운동436-5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7, 울산 다운동 대골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8, 울산 다운동 대골 II 유적
	다운동C (새각단)	구릉	주거70/석관묘1 주구1/야외노지1 수혈2/구1/함정1	2·3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경주 석계리·냉천리유적, 울산 굴화리·다운동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울산다운동새각단유적 세종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다운2지구 유적 (나-Ⅳ·Ⅴ)
	다운동 D	구릉	주거220/석관2 주구묘7/함정4 수혈1/구1	3	세종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다운2지구 유적 (나-Ⅵ)
	다운동E	구릉	주거48/석관묘3 수혈3	2·3	세종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다운2지구 유적 (나-Ⅰ·Ⅱ·Ⅲ)
	다운동F	구릉	주거48	3	세종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다운2지구 유적 (가-Ⅳ)
	다운동 G	구릉	주거68/환구1 석관묘2/수혈6	2·3	세종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다운2지구 유적 (가-Ⅰ·Ⅱ·Ⅲ)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서사리278유적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 2001, 울산 척과유적
	다운동 H	구릉	주거9	3	세종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다운2지구 유적 (가-Ⅴ)
15	옥현	구릉	주거79/수혈4 구1/논	3	경남대학교박물관, 2015, 울산 무거동 옥현유적

### (1) 신화리취락

신화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 삼남면 신화리에서 교동리로 이어지는 단독 구릉상에 입지한다. 구릉은 여러 갈래의 능선과 곡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단독 구릉상에 478동의 주거지가 조성된 대규모 취락이다. 신화리유적의 구릉이 이어지는 교동리 일대의 유적도 동일 취락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한다. 신화리취락은 복수 노지의 (세)장방향주거지와 (장)방형의 검단리식주거지가 분포한다. 유물은 혼암리식토기와 검단리식토기, 이단병식석검, 이단경식석촉,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등이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2~3단계의 취락으로 판단된다.

### (2) 길천취락

길천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상북면 길천리 일대의 강안 평지에 입지한다. 주거지 43동, 묘역식지석묘, 환호 등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주거지는 마지구 8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주거지의 전형이 아니더라도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므로 3단계로 판단된다. 마지구 8호주거지는 일부 유실되었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복수 노지를 가진 세장방향 주거지로 추정되며 2단계에 해당한다.

### (3) 거리취락

거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상북면 거리 일대의 구릉 사면에 입지한다. 구릉은 크게 세 갈래의 능선과 곡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7동의 주거지와 환호, 굴립주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출토유물이 빈약하지만, 확인된 노지의 위치는 대부분 한 쪽 단벽에 치우쳐 확인되므로 검단리식주거지로 판단된다. 세 갈래의 능선 중 주거지가 밀집된 가운데 능선의 하위에는 1조의 환호가 주거군을 감싸듯이 확인되고, 주거군의 능선 상 위에는 망루로 추정되는 굴립주건물지 1기가 위치한다. 시기를 알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검단리식주거지와 검단리식토기편, 일단경식석촉편, 단주형석도 등이 출토되는 양상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3단계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 (4) 남천취락

남천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언양읍 서부리 일대의 하안단구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7동과 주구 1기가 확인되었다. 2호 주거지는 세장방형에 복수 노지가 설치되었으며, 4호 주거지는 장방형에 복수노지가 설치되었고,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1호·5호 주거지는 검단리식주거지이다. 3호 주거지는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일단경식석촉이 출토되었다. 2호·4호 주거지는 2단계, 이 외 주거지는 3단계로 판단된다.

### (5) 구수리취락

구수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언양읍 구수리의 구수마을 일대 구릉에 입지한다. 주거지 58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모두 검단리식으로 토기는 혼암리식도 일부 확인되지만, 중심 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 (6) 반송리취락

반송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 언양읍 반송리 일대의 해발 150m 정도 산정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사면에 입지한다. 대부분의 발굴조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져 취락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나, 이어지는 구릉사면에 전반에 유사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 17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으로 검단리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3단계로 판단된다.

## (7) 반천리취락

반천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 언양읍 반천리 일대의 해발 150m 정도 야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사면에 입지한다. 대부분의 발굴조사가 소규모로 이루어져 취락의 전모를 알 수는 없으나, 이어지는 구릉사면에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으로 검단리식토기만 출토된다. 3단계로 판단된다.

## (8) 반연리취락

반연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언양읍 반연리 일대의 구릉사면에 입지한다. 가막뫇을 중심으로 양쪽 사면에 서로 마주보며 주거지가 조성되었다. 주거지 38동으로 이루어진 취락으로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서 검단리식토기와 유구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3단계로 판단된다.

## (9) 입암리취락

입암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범서읍 입암리 일대의 하안단구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46동, 함정 34기, 입석 5기, 굴립주 2기 등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토기만 확인된다. 3단계 취락이다.

## (10) 구영리취락

구영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범서읍 구영리 일대의 구릉사면에 입지한다. 크게 2개소로 구분되는데 네 갈래의 능선과 곡간으로 이루어진 A취락과 구릉 말단부의 완경사면으로 이루어진 B취락이다. A취락은 주거지 121동이 확인되며, B취락은 주거지 57동이 확인된다. A취락은 대체로 검단리식주거지이며, 검단리식토기와 일단경식석축 등이 출토되었다. B취락은 A취락의 최남단에서 약 500m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미사리식주거지, 복수 노지를 갖춘 장방형주거지, 검단리식주거지 등이 확인된다. A취락은 3단계, B취락은 1~3단계로 판단된다.

## (11) 천상리취락

천상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범서읍 천상리 일대의 문수산에 동쪽으로 뻗어내린 돌출된 구릉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43동과 환호로 구성된 취락이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이며, 토기는 검단리식토기와 날알문+공열문이 확인된다. 3단계로 판단된다.

## (12) 굴화리취락

굴화리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인 범서읍 굴화리 일대의 충적지에 입지한다. 주거지 178동과 함께 주구, 수혈, 굴립주건물지 등이 확인된 대규모 취락이다. 취락은 충적대지상에 형성된 넓

은 들을 가로질러 태화강에 합류하는 굴화천을 중심으로 북쪽에 백천들유적, 굴화리 22-18유적과 남쪽의 굴화리취락유적을 포함하였다. 주거지는 미사리식, 둔산식, 관산리식, 검단리식 등 다양하게 확인된다. 미사리·둔산식주거지와 대형의 장방형주거지에서는 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 관산리식주거지에서 혼암리식토기, 검단리식주거지에서는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1~3단계의 장기 존속 취락이다.

## (13) 장검취락

장검취락은 굴화리 장검마을 일대의 문수산에서 북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정상부와 사면에 입지한다. 주거지 59동과 수혈, 주구 등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서 검단리식토기와 공열문+날알문의 복합문이 확인된다. 장검Ⅱ유적은 장방형의 복수노지를 갖춘 검단리식주거지에서 혼암리식토기가 확인되어 취락의 시기는 2~3단계로 판단된다.

## (14) 다운동취락

다운동취락은 다운동 일대에 분포하는 유적으로 크게 입화산 서사면과 남사면에 형성된 여러 갈래의 능선과, 척과천 하류의 서안에 자리하는 야산의 남사면에 입지하는 취락군이다. 능선의 분절을 기준으로 크게 8개소의 취락으로 세분 가능하다.

다운동A취락은 척과천이 태화강으로 합류하는 하류 서안의 구릉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22동과 수혈, 구 등으로 구성된 단순취락이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3단계의 취락으로 판단된다.

다운동B취락은 입화산 남사면 대골 말단부 구릉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25동, 분묘 1기, 수혈, 굴립주 1동 등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주거지는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3단계 취락으로 판단된다.

다운동C취락은 입화산 서사면의 여러갈래 능선 중 가장 남단의 구릉 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70동, 석관묘 1기, 주구 1기, 야외노지, 수혈, 함정 등의 유구로 구성된 취락이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이며, 혼암리식토기가 확인되지만, 검단리식토기가 주를 이루고, 유구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2·3단계 취락으로 판단된다.

다운동D취락은 척과천 동안에 형성된 나지막한 구릉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220동, 석관묘 2기, 주구묘 7기, 함정 4기, 수혈, 구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취락이다. 주거지는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3단계 취락으로 판단된다.

다운동E취락은 다운동D취락 북단에 연접하는 구릉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48동, 석관묘 3기, 수혈3기로 구성된 취락이다. 주거지는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주거군은 3단계로 판단되지만, 이단병식석검이 출토된 나-Ⅱ-3호 석관묘는 2단계로 판단된다.

다운동F취락은 시계천 북쪽에 입화산 북산정에서 뻗어내린 여러 능선 중 가운데 능선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48동으로 구성된 단순취락이다. 주거지는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토기가 주

를 이룬다. 3단계로 판단된다.

다운동G취락은 다운동F취락의 북쪽 옆 능선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68동, 석관묘 2기, 수혈6기와 능선 말단부 돌출구릉상에 환구 1기가 설치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이며, 혼암리식토기가 확인되지만 검단리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환구의 중앙에는 직경 134×112cm의 타원형 수혈이 굴착되어 있다. 2·3단계로 판단된다.

다운동H취락은 가장 북단의 능선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9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검단리식이며, 검단리식토기 주를 이룬다. 3단계로 판단된다.

(15) 상천리취락

상천리취락은 태화강 본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상천천유역의 나지막한 단독구릉상에 입지한다. 구릉은 상천리에서 조일리까지 이어진다. 주거지 334동이 확인된 대규모 취락에 해당한다. 주거지는 세장방향에 복수노지를 갖춘 주거지에서 장방향, 방형 등 검단리식주거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토기문양은 혼암리식토기와 공열+날알문, 검단리식토기 등이 확인되므로 시기는 2~3단계로 판단된다. 이 외 소형의 (장)방형주거지에서 전기적 요소가 다수 확인되는 특징이 있으며, 송국리식주거지도 2동 확인되었다.

2) 회야강유역

회야강은 경상남도 양산시의 천성산 무지개폭포에서 발원하여 웅촌면, 회야호를 거쳐 남창천과 합류되어 동해로 흘러드는 길이 46.69km의 강이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중류인 회야호 주변을 제외하고 상류역과 하류역에 주로 분포한다. 검토대상유적 19개소이다.

〈표 3〉 회야강유역 주요 취락(도면 2 번호와 동일)

번호	취락	입지	주요유구	단계	보고서명
16	곡천리	평지	주거240/수혈21구5	1~3	울산문화재연구원, 2024, 울산곡천리122-1유적
17	검단리	구릉	주거92/수혈2구14/환호1지석묘2	3	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울산 검단리 마을 유적
18	망양리	구릉	주거18	2·3	우리문화재연구원, 2019, 울주 망양리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9, 울산 두왕동·망양리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망양리·덕신리오산유적
19	오산	구릉	주거30/수혈1/구2	2·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망양리·덕신리오산유적
20	발리	구릉	주거28/환호1묘역식지석묘5토광묘7/매납1구3/논	3	동북아문화재연구원, 2023, 울주 발리 412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연구원, 2019, 울주 발리 499-10번지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21, 울산발리496-3유적 가교문화재연구원, 2013, 울주 발리 456-1유적 가교문화재연구원, 2013, 울주 온양농협 하나로마트신축부지 내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1, 울산발리유적
21	대안리	구릉	주거28/수혈3/구6	3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8, 울주 대안리 162번지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20, 울산대안리505-45유적 동서문화연구원, 2017, 울주 대안리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2002, 울주 대안리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울산대안리유적Ⅱ
22	외광리	구릉	주거100/수혈1	2·3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외광리귀지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7, 울주 외광리 취락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6, 울주 남창·합수유적

(1) 곡천리취락

곡천리취락은 회야강 상류역 웅촌면 곡천리 일대의 충적지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240동, 수혈, 구 등으로 이루어진 취락이다. 주거지는 둔산식, 관산리식, 검단리식, 토기문양은 돌대문, 가락동식, 혼암리식, 검단리식이 확인된다. 1~3단계에 해당하는 장기존속취락이다.

(2) 검단리취락

검단리취락은 회야강 상류역 웅촌면 검단리 일대의 단독구릉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92동, 지석묘 2기, 환호를 비롯하여 수혈, 구 등으로 이루어진 환호취락이다.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서 검단리식토기가 확인된다. 3단계 취락이다.

(3) 망양리취락

망양리취락은 회야강 하류역의 온산을 망양리 일대의 단독구릉상에 입지한다. 발굴조사된 4개소의 유적에서 주거지 20동이 확인되었다. 망양리Ⅱ 지구 1호 주거지는 위석식노지를 갖춘 장방향주거에서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 외에는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서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2~3단계로 판단된다.

(4) 오산취락

오산취락은 회야강 하류역의 온산을 덕신리 일대의 구릉에 입지한다. 주거지 28동, 수혈, 구 등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오산Ⅰ 지구 장방향주거지에서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 외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2~3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5) 발리취락

발리취락은 회야강 하류역 온양읍 발리 일대의 나지막한 단독구릉상에 입지한다. 발굴조사된 6개소의 유적에서 주거지 28동과 묘역식지석묘 5기, 토광묘 7기, 환호를 비롯하여 논,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이며, 토기는 출토량이 빈약하지만 무문양과 검단

리식토기이다. 묘역지석묘가 조성된 것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6) 대안리취락

대안리취락은 회야강 하류역 온양읍 대안리 일대의 나지막한 능선상에 입지한다. 발굴조사된 5개소의 유적에서 주거지 28동과 수혈, 구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이며, 출토유물은 빈약하지만, 공열단독문과 무문양 심발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7) 외광리취락

외광리취락은 온양읍 외광리 일대의 대운산 북동쪽 능선 말단부의 구릉상에 입지한다. 발굴조사된 3개소의 유적에서 주거지 100동과 수혈, 구 등이 확인되었다. 외광리유적 24호 주거지는 세장방형주거지에서 위석식과 상면식노지가 혼재되어 설치되었으며,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외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서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었다. 시기는 2~3단계로 판단된다.

3) 동천유역

동천유역은 태화강 상류역과 함께 울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밀집도를 보이는 지역이다. 동천서안은 비교적 동일 구릉상에 취락이 분포하는 반면 동천동안은 동대산맥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리는 여러갈래의 능선상에 취락이 형성되어 단독구릉상의 단위취락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능선의 분절과 소하천을 기준으로 동천서안 4개소의 취락군, 동안 5개소의 취락군으로 구분하였다. 동천동안은 약수천~매곡천 사이의 22개소 유적을 중산동취락, 매곡천~마동재의 남서쪽으로 형성된 곡부에서 발원하는 소하천 사이의 7개소 유적을 매곡동취락, 소하천의 남쪽으로 매곡천~호계천 사이 4개소 유적을 신천동취락, 호계천~창평천 사이 4개소 유적을 창평동취락, 창평천~명촌천 사이 4개소 유적을 송정동취락, 명촌천에서 연암천 사이 11개소 유적을 연암동취락, 연암천 이남의 7개소 유적을 효문동취락으로 설정하였다.

〈표 4〉 동천유역 주요 취락(도면 2 번호와 동일)

번호	취락	입지	주요유구	단계	보고서명
23	중산동	구릉	주거415/주구13 주구묘1/토광묘1 환구2/논 구31/수혈9	2·3	울산문화유산연구원, 2007, 울산중산동약수유적 I
					울산문화유산연구원, 2009, 울산중산동약수유적 II
					울산문화유산연구원, 2016, 울산중산동약수유적 III
					울산문화유산연구원, 2017, 울산중산동약수유적 IV
					가람문화유산연구원, 2018, 울산 중산매곡동 유적 I
					가람문화유산연구원, 2021, 울산 중산매곡동 유적 II
					삼도문화유산연구원, 2025, 울산 매곡동 470-1번지 유적
					울산연구원, 2025, 울산 산골못 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7, 울산 매곡동 508번지 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울산 신천동 유적

					천년문화재연구원, 2022, 울산 매곡동 482-6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매곡동신기유적 I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매곡동신기유적 II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매곡동신기유적 III
					울산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신천동(594-1번지일원) 주택 조성부지 내 유적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9, 울산 신천동 585-6 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7, 울산 신천동 공원부지 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4, 울산 신천동 냉천 유적
					가람문화재연구원, 2019, 울산 신천동 136-2번지 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12, 울산 신천동 202-1유적
24	매곡동	구릉	주거130/수혈21 구13	2·3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매곡동유적 I 지구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매곡동유적 II 지구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매곡동유적 III 지구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매곡동유적 IV 지구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울산매곡동유적 III-2·IV-2·V지구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울산매곡동유적 III-2·IV-2·V지구
					한국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매곡동 330-2번지 유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울산 호계·매곡동 복합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2015, 울산 신천동 53번지 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2021, 울산 매곡동 747-5번지 유적
25	신천동	구릉	주거134/주구18 구24	2·3	울산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신천동10-4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울산 창평동 유적
					한국문화재연구원, 2016, 울산 창평동 낭골 유적
26	창평동	구릉	주거39/환호1 수혈39/구17 야외노지1/토광묘1 집석1	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8, 울산 창평동 환호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창평동 810번지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6, 울산 화봉·송정동 유적
27	송정동	구릉	주거273/환호2 분묘2/합정2 수혈21/굴립주2 구51	2·3	누리고고학연구소, 2019, 울산 송정동유적 II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5, 양산 송정동 복합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5, 울산 송정리유적-B구역-
28	연암동	구릉	주거103/환호1 주구6/합정20 수혈3/구27 굴립주1	3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8, 울산 화봉동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연암·화봉리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연암·화봉리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연암·화봉리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연암·화봉리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연암·화봉리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연암·화봉리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연암·화봉리유적
					울산대학교박물관, 2001, 울산연암동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5, 울산 북구 연암동 유적

29	효문동	구릉	주거60/수혈4 구1	2·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1, 울산 연암동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 연암동환호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상연암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울산연암동산성유적
					중원문화유산연구원, 2021, 울산 연암동·효문동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태화동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효문동죽전곡유적Ⅲ
					울산연구원문화재센터, 2020, 울산 울동유적Ⅰ(1구역), 가람문화재연구원, 2020, 울산 울동유적Ⅰ(2구역)
30	천곡동	구릉	주거300/수혈39 구17/주구1	1~3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5, 울산 천곡동유적(가지구)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5, 울산 천곡동유적(나지구)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6, 울산 천곡동유적Ⅱ
					울산문화재연구원, 2007, 울산천곡동가재골유적Ⅰ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천곡동가재골유적Ⅱ
					울산문화재연구원, 2009, 울산천곡동가재골유적Ⅲ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천곡동가재골유적Ⅳ
					울산문화재연구원, 2006, 울산천곡동곰마을유적
					울산문화유산연구원, 2025, 울산천곡동곰마을유적Ⅱ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13, 울산 천곡동 600-5번지 일원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7, 울산천곡동산138-2유적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1, 울산 천곡동 502번지 유적
					동서문화연구원, 2011, 울산 천곡동 한신유플러스아파트부지내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달천유적 3차 발굴조사
					가람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 달천동 산6번지 유적
					31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5, 울산 상안동 410-36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한국문화재재단, 2019년,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X 울산 상안동 4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07, 울산 북구 상안동 358-47번지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23, 울산상안동351유적					
32	장현동	구릉	주거80/수혈4/ 구2	2·3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울산장현동유적
33	약사동	구릉	주거296/환구2 집석2/함정1 구11/분묘2 수혈1	2·3	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우정혁신도시부지 2구역 1차 C2-B구간 내 울산 약사동 유적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3, 울산 약사동 원약 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울산 약사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2012, 울산 약사동유적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13, 울산 서동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울산약사동북동유적V					

(1) 중산동취락

중산동취락은 동천 중류역 중산동, 매곡동, 신천동 일대의 동대산맥 서사면으로 뻗어내리는 여러갈래의 능선 정상부와 사면에 입지한다. 주거지 415동, 분묘 2기(주구묘·토광묘), 환구2기, 주구 13기, 수혈, 구, 논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장)방형의 검단리식으로, 혼암리식토기와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시기는 2~3단계로 판단된다.

(2) 매곡동취락

매곡동취락은 동천 중류역 매곡동 일대의 구릉 상에 입지한다. 매곡동유적Ⅲ지구, Ⅲ-2지구, 매곡동330-2번지유적은 단독구릉 전체가 발굴조사되어 하나의 단위취락으로 주목된다(이수홍 2025). 주거지 130동, 수혈 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대부분 (장)방형의 검단리식으로, 혼암리식토기와 검단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시기는 2~3단계로 판단된다.

(3) 신천동취락

신천동취락은 매곡동취락과 소하천을 분절되는 능선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134동과 주구 18기, 수혈, 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으로 혼암리식토기는 2점에 불과하고 대부분 공열(돌류)문, 날알문이 단독문으로 확인된다. 중심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4) 창평동취락

창평동취락은 동천 하류역 창평동과 호계동 일대의 여러갈래의 능선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33동, 환호 1기, 수혈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으로 공열문과 날알문이 단독문으로 확인된다. 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5) 송정동취락

송정동취락은 동천 하류역 송정동 일대의 여러 능선의 사면과 말단부 완경사면에 입지한다. 주거지 273동, 환호 2기, 분묘 2기, 함정, 수혈, 논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장)방형의 검단리식으로,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된 2동의 주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날알문, 공열(돌류)문과 날알문이 단독문으로 확인된다. 중심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6) 연암동취락

연암동취락은 동천 하류역 화봉동·연암동 일대의 여러 능선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102동, 환호, 주구 6기, 함정 20기, 수혈, 구, 논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검단리식이 대부분인데, 검단리식주거지 외부로 원형 내지 방형의 주구가 결합된 연암동식주거지가 다수 확인된다. 토기는 대부분 날알문 단독문의 (파수부)심발이 출토되므로 중심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환호는 주거역과는 구분되는 독립구릉상에 2조로 설치되었다.

(7) 효문동취락

효문동취락은 동천 하류역 연암동·효문동 일대의 여러 능선상에 입지한다. 주거지 60동, 수혈, 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대부분 검단리식으로 공열(돌류)문, 날알문이 단독으로 시문

된 (파수부)심밭이 주를 이룬다. 일단경식석축, 유구석부 등이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3단계로 판단된다.

#### (8) 천곡동취락

천곡동취락은 동천 중류역 천곡동·달천동 일대의 천마산에서 뺏어내린 능선상에 입지한다. 발굴조사된 15개소 유적에서 주거지 300동, 수혈, 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세장방향에 위 석식노지, 2열 초석의 기둥자리를 갖춘 용암식주거지와 대형(면적 100m<sup>2</sup> 이상)의 장방향에 상면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에서 가락동식토기, 복수노지의 검단리식주거지에서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 외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서 공열(돌류)문+날알문의 복합문과 각각의 단독문이 확인되므로 1~3단계의 장기 존속 취락으로 판단된다.

#### (9) 상안동취락

상안동취락은 동천 중류역 상안동 일대의 천마산에서 뺏어내린 능선상에 입지한다. 발굴조사된 5개소 유적에서 주거지 44동, 수혈, 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방형계 주거지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 외에는 대부분 검단리식주거지에서 공열문, 날알문, 공열+날알문, 무문양의 (파수부)심밭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시기는 1단계·3단계로 판단된다.

#### (10) 장현동취락

장현동취락은 동천 하류역 장현동 일대의 황방산에서 뺏어내린 능선 사면부에 입지한다. 주거지 80동, 수혈, 구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세장방향에 복수노지가 설치된 관산리식 1동 외 대부분 (장)방향의 검단리식이다. 세장방향주거지에서 이단병식석검 1점과, 검단리식주거지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돌류단사선문, 구순각목돌류단사선문 등의 복합문이 시문된 심밭과 공열문, 날알문 등의 단독문이 시문된 심밭·호, 무문양 심밭 등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2~3단계로 판단된다.

#### (11) 약사동취락

약사동취락은 동천 하류역 약사동 일대의 능선 사면부에 입지한다. 발굴조사된 6개소 유적에서 주거지 296동, 환구 2기, 집석, 수혈, 구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는 대부분 (장)방향의 검단리식으로 혼암리식토기가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돌류+날알문, 공열문, 날알문의 단독문으로 중심시기는 3단계로 판단된다.

### 3. 입지분석

#### 1) 평지취락

울산지역의 평지취락은 주로 태화강 상류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회야강 상류역에 1개소가 있다. 태화강 상류역의 평지취락은 발원지 부근으로 부터 길천취락-남천취락-구수리취락-입암리취락-굴화리취락으로 이어진다. 중류역의 태화들유적에서 주거지 3동과 구획구 등이



〈삼한문화유산연구원 2025; 울산문화재연구원 2024〉

〈사진 1〉 평지취락(좌:굴화리취락, 우:곡천리취락)

확인된 바 있으나, 주 분포는 상류역이라 할 수 있다.

회야강 상류역의 곡천리취락은 평지취락 중 가장 큰규모를 자랑한다. 1~3단계까지 이어지는 장기 존속 취락으로 240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취락 주변으로 인접하는 취락은 적지만, 환호가 조성된 검단리취락, 중대리, 고연리 일대에 취락이 분포한다. 취락의 구조는 주거지 위주의 단순취락으로 수혈 외 타 유구는 부재이다.

유사한 성격의 취락으로는 태화강유역의 굴화리취락이 있다. 곡천리취락과 마찬가지로 1~3단계까지 이어지는 장기 존속 취락으로 178동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취락의 지리적 요건은 북쪽으로 현재 척과천을 따라 경주 외동으로 가는 곡간 교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태화강안을 따라 동쪽의 동해연안과 서쪽의 연양읍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교통에 유리한 조건이다. 평지인 굴화리취락 주변으로는 구릉상에 대규모 취락인 구영리취락과 중간규모의 장검취락, 천상리취락 등이 분포하고 있다. 취락의 구조는 주거지 위주의 단순취락이지만 18기의 주구와 8동의 적석주거지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입암리취락과 길천취락은 주거지가 40동 내외로 규모는 곡천리나 굴화리에 비해 작지만, 주거 외 특수한 유구들이 확인된다. 입암리취락은 주거지 46동에 입석과 함정유구가 다수 확인되며, 길천취락은 주거지 43동에 환호와 묘역식지석묘가 취락 내에 조성되었다. 이들 취락은 3단계에 해당하며, 특히 입암리취락은 날알문과 무문양 파수부심밭이 주를 이루고있어 공열문이 소멸된 검단리유형의 가장 마지막 단계 유적으로 지목된 바 있다(안재호 2014).

이 외 평지에서 확인되는 청동기시대 취락은 주거지 10동 이하의 소규모로 확인된다.

#### 2) 구릉취락

울산지역은 전반적으로 하천의 규모가 작고 유량이 적어 자연제방, 하안단구 등 하천지형의 발달이 미약하였으며,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만환경으로 인해 대다수의 취락이 구릉에



〈울산연구원 외 2024; 세종문화재연구원 2023〉

〈사진 2〉 구룡취락(좌:신화리취락, 우:다운동취락)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배덕환 2009). 태화강유역의 신화리유적과 같이 단독 구룡상에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청동기시대 취락이 밀집한 다운동일대나 북구일대와 같이 산정에서 뻗어내리는 여러 능선들의 구룡 평탄부나, 사면부, 사면말단부의 완경사면에 군집을 이루어 조성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발굴조사 범위의 한계로 인해 신화리·상천리유적과 같이 단일 취락군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옥현취락, 야음동취락 등은 구룡 정상부와 사면부에는 주거역을, 곡간 및 저지대에는 경작지를 조성하여 주거역과 생산역을 구분하기도 한다(배덕환 2005).

태화강유역은 양안의 구룡을 중심으로 울산지역 최대규모의 신화리취락을 비롯하여 구수리취락-반송리취락-반천리취락-반연리취락-구영리취락-천상리취락-장검취락-다운동취락 옥현취락 등 크고 작은 취락들이 연결하여 밀집하고 있으며, 중류역은 남안의 신정동·야음동·선암동 취락을 제외하면 밀집도가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

회야강유역은 상류역과 하류역으로 양분되어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상류역에는 환호취락인 검단리취락이 위치하며, 주변으로 고연리, 대대리, 중대리, 곡천리 일대 구룡에 소규모 취락이 산포한다. 하류역에는 망양리취락-덕신리취락-발리취락-대안리취락-외광리취락 등 주로 온양읍 남창리 일대 저구룡성 완사면부에 취락이 입지한다.

동천유역은 태화강유역과 마찬가지로 양안의 구룡 상에 취락이 입지하고 있다. 동천서안은 중류역의 천곡동취락, 상안동취락이 천마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상에 입지하며, 하류역에는 황방산 남동사면의 여러갈래 능선상에 장현동취락과 약사동취락이 입지한다.

동천동안은 중류~하류역까지 동대산맥 서사면의 여러 갈래 능선과 능선말단부의 완경사면에 중산동취락-매곡동취락-신천동취락-창평동취락-송정동취락-연암동취락-효문동취락이 연결하여 입지하며, 매우 높은 유구밀집도를 보인다.

### Ⅲ. 취락의 입지와 사회관계망 분석

여기서는 취락의 성격과 특징을 중심으로 입지에 따른 취락 간 사회관계망을 단계별로 살펴보고자한다.

1단계의 취락은 수는 적지만 태화강·회야강·동천유역에서 모두 확인된다. 회야강 상류역의 곡천리취락, 태화강 상류역의 구영리B취락, 굴화리취락, 동천 중류역의 천곡동취락이 대표적이다. 이 중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와 돌대문토기는 곡천리·구영리B·굴화리취락에서만 확인되며, 천곡동취락은 대형의 장방형 평면에 상면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천곡동 나 1)와 세장방형 평면에 추정 위석식노지와 2열 초석이 설치된 주거지(달천 3차 1)에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만 확인된다.

입지별 관계망은 주거형태, 노지, 토기를 기준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평지취락인 곡천리와 굴화리는 가장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장방형에 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형태와 돌대문+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조합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두 취락은 구룡취락인 구영리B와도 상당부분 유사성을 보이지만 주거의 평면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룡취락인 구영리B와 천곡동은 주거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오히려 평지취락인 굴화리취락 35호 주거지와 천곡동(나) 1호 주거지는 대형(면적100m<sup>2</sup>이상) 장방형 주거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조합에서 더 유사하다. 또한 굴화리 75호 주거지와 천곡동(나) 1호 주거지, 달천 3차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검의 병부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

1단계에는 입지에 상관없이 태화강-회야강-동천유역의 취락 간 상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취락은 중앙의 굴화리취락으로부터 반경 13km이내에 위치한다.

2단계의 평지취락은 태화강유역의 남천취락, 굴화리취락, 사연리 늪네유적, 회야강유역의 곡천리취락이 있다. 구룡취락은 태화강유역의 신화리취락, 상천리취락, 보은리유적, 구영리B취락, 장검취락 선암동유적, 회야강유역의 망양리취락, 오산취락, 외광리취락, 동천유역의 장현동취락, 상안동취락, 천곡동취락, 중산동취락, 매곡동취락, 송정동취락 등이 있다.

주거형식은 위석식노지를 갖춘 (세)장방형주거지, 관산리식주거지, 검단리식주거지로 구분되며, 혼암리식토기가 출토된다. 취락 내 주거 배치 양상은 2~3동의 주거지가 일렬, 병렬, 혹은 ‘ㄱ’자 상으로 배치되는 구조를 보이는 입지 별로 특징적인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취락 내에서 1동 씩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배치 군집 등에서 사회 관계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회야강 하류역의 망양리·외광리취락, 동천유역에 상안동취락에서 각 1동씩 확인된 2단계의 위석식노지 주거지는 동유역의 바로 직전 단계 곡천리취락과 천곡동취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3단계의 울산지역 청동기시대문화는 소위 ‘검단리유형’으로 명명된다. 이 시기의 취락 구조

는 검단리식주거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며, 중·소형의 주거지들이 군집을 이루어 면상으로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환호취락이 등장하며, 대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에 소취락들이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취락의 규모로 보아 단독 구릉상에 500기에 육박하는 주거지가 조성된 신화리취락은 울산지역 최대 규모의 취락이다<sup>4)</sup>. 신화리취락은 전기 후반부터 취락이 조성되어 후기까지 이어진 장기 존속 취락으로 그 위세는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진다.

신화리취락을 울산지역의 중핵취락으로 보았을 때(배덕환 2005) 반경 10km 내외에 태화강 상류역 주요 취락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서쪽으로는 길천취락이, 남쪽으로는 상천리취락과 방기리취락이, 동쪽으로는 굴화리취락과 구영리취락, 천상리취락이 위치하며, 남동쪽의 회야강 상류역 곡천취락과 검단리취락 또한 반경 내에 포함된다.

3단계의 평지취락은 태화강 상류역의 굴화리취락, 입암리취락, 회야강 상류역의 곡천리취락이 있다. 굴화리취락은 상술하였듯이 1단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존속 취락으로 주거지 80여동으로 이루어진 취락이다. 이보다 큰 규모의 구릉취락인 구영리취락이 태화강을 경계로 마주보며 입지한다. 이 일대의 태화강 이남 지역은 굴화리취락 주변으로 장검 일대 취락과 천상리 일대 취락 등 구릉취락이 공존하는데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평지의 굴화리취락이 중심취락으로 판단된다. 평지의 장기 존속 취락인 굴화리 취락을 중심으로 환호취락인 천상리취락과 장검취락이 위성취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곡천리취락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주변 구릉에 환호취락인 검단리취락을 비롯하여 대대리, 중대리, 고연리 일대에 소규모 취락들이 산포한다. 다운동취락은 능선의 분절로 구분 8개소 취락 중 D취락을 거점취락으로 볼 수 있으며, 연접하는 능선 상의 취락을 위성취락으로, G취락 환호(환구)취락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다운동 취락은 현재 언양 일대와 동천 상류역 취락을 잇는 관문 같은 역할의 취락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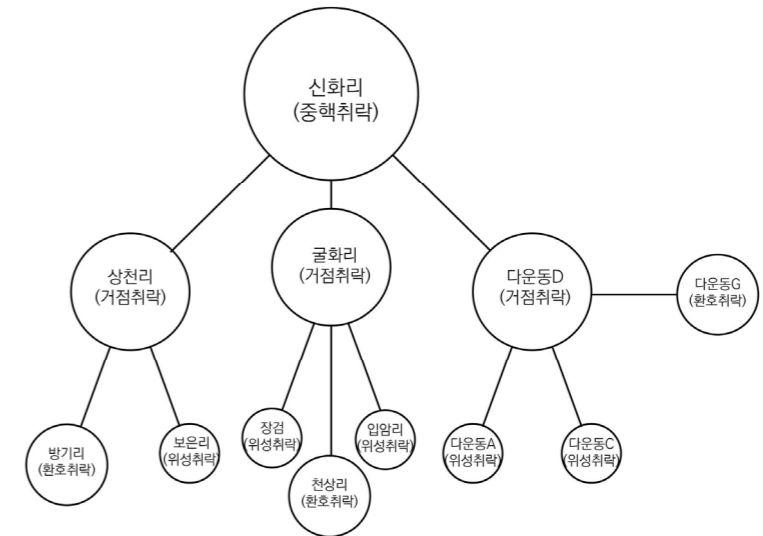
동천유역은 평지성취락은 없지만, 구릉취락 간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듯 하다. 필자는 동천 동안을 구릉의 분절과 소하천을 경계로 6개 취락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중 이 일대 중심취락으로 여겨지는 중산동취락(이수홍 2025)과 송정취락, 연암동취락에서는 환호가 확인된다. 중심 취락 주변으로 위성취락이 분포하고 그 중 환호(환구)취락이 포함되는 양상은 태화강 유역과 유사성을 보인다.

먼저 일대 중심취락으로 지목되는 중산동취락은 취락권 내에 환구 2기(신천동 202-1유적)가 확인되며, 주변으로 매곡동취락과 신천동취락이 위성취락으로 볼 수 있다. 송정동취락 역시 취락권 내에 환호 2기가 확인되며, 연암동취락도 유사한 양상이다. 창평동취락은 상대적으로 주변 취락권에 비해 주거 수 등 규모가 작은 편인데, 환호는 비교적 고지에 입지한다<sup>5)</sup>. 창평동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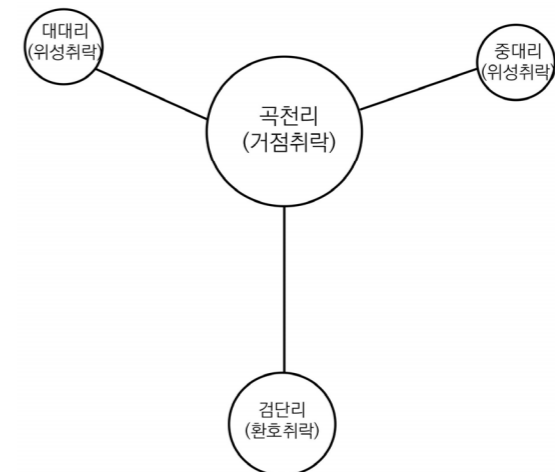
4) 최근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세 개 기관(중앙문화유산연구원, 울산연구원, 울산문화유산연구원)에서 총 9개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212동의 주거지 확인되었다. 아직 미조사 구간이 남아 있어 취락의 규모는 더 커질 여지가 남아 있다(울산연구원 외 2024).

호는 인접 취락군들 뿐만 아니라 동천 서안의 천곡동취락 까지 공용하였던 제의적 성격(손준호 2018)의 환호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가시권 분석에서 천곡동·상안동취락은 물론 장현동·약사동취락의 일부도 포함되었다(손준호 2018).

3단계 취락의 입지와 사회관계망은 거점취락과 위성취락으로 구성되는 검단리 단계의 취락 구조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대부분 환호취락 자체를 거점취락으로 인식하지만, 필자는 거점취락-위성취락-환호취락이 하나의 세트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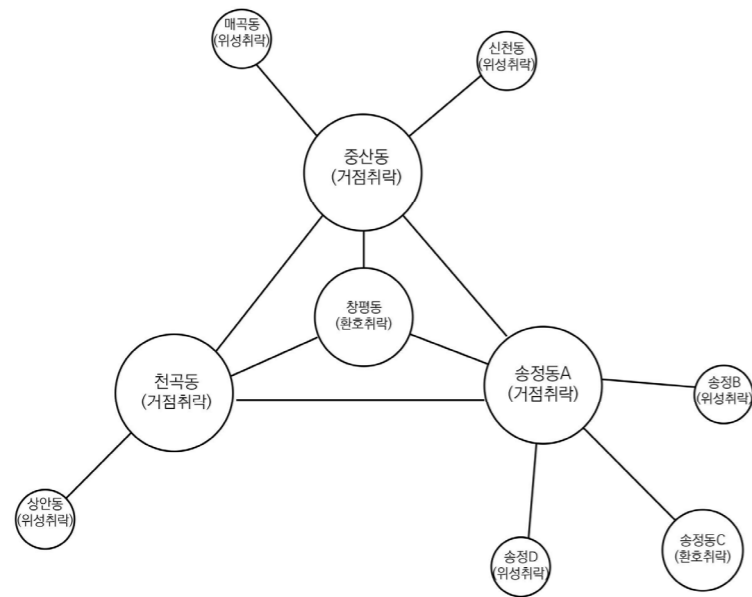


〈도면 3〉 태화강유역 3단계 취락 관계망



〈도면 4〉 회야강유역 3단계 관계망

5) 중산동·송정동·연암동취락 내 환호가 해발 30~40m 상에 위치하는데 반해 창평동취락의 환호는 79~88m상에 입지한다.



〈도면 5〉 동천유역 3단계 관계망

董眞淑, 2003, 「嶺南地方 青銅器時代文化的 變遷」,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裴德煥, 2005, 「南江·太和江流域의 青銅器時代 據點聚落」, 『문물연구』 09.  
 ———, 2009, 「慶南地域 青銅器時代 後期 聚落의 立地形態에 따른 地域性 研究」, 『문물연구』 15.  
 손준호, 2018, 「울산의 청동기시대 취락과 창평동 환호 유적」, 『先史와 古代』 58.  
 安在珪,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2014, 「검단리유적 재고」, 『한국청동기학보』 14.  
 李秀鳴,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25, 『발굴과 사색 청동기시대』, 울산문화유산연구원학술총서 6.  
 黃炫眞, 2004, 「嶺南地域의 無文土器時代 地域性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울산문화재연구원, 2024 「Ⅵ. 고찰」, 『울산곡천리 122-1 유적』.  
 울산연구원·울산문화재연구원·중앙문화재연구원, 2024,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1차) 통합 부분완료 약식보고서』.

#### IV. 맺음말

지금까지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사회구조 관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는 초기에는 충적지를 선호하지만, 전기에는 구릉지와 충적지 모두를 이용한다. 후기에는 전기의 기초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취락이 출현한다.

본고는 울산지역의 청동기시대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입지 양상과 상호관계망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1단계(초기-전기 전반)에는 평지와 구릉 구분없이 서로 상호관계망을 형성한다. 인접하는 동단계 취락과는 큰 공통점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10km 내외로 떨어진 취락과의 공통점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 2단계에는 사회관계망을 검토할 만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3단계에 본격적인 검단리유형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거점취락이 출현하고, 그 주변으로 위성취락들이 입지하게 된다. 취락군의 구성은 거점취락-위성취락-환호취락이 세트 관계를 보이게 된다.

#### 참고문헌

강동석, 2019, 「지식묘사회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격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105.  
 김도현·이재현, 2004, 「嶺南地域 青銅器時代 聚落의 立地에 대한 檢討」, 『嶺南考古學』 35.  
 김현식, 2023, 『청동기시대 문화변천』, 울산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4.

## 토론문 1

## ‘지형과 유적 입지 특성’에 관한 토론문

김종찬(제주대학교박물관)

허의행 교수님의 발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인된 약 5,530개소의 방대한 청동기시대 유적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거시적 차원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유적의 입지 분석에 GIS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전국 단위의 거시적 데이터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고고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유적의 고도, 경사도, 하천과의 거리 등 정량적 지표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했던 지형적 조건을 밝혀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단순하게 유적이 발견된 지형을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입지 분석을 당시 사람들의 생계경제, 사회 조직, 환경 적응 전략을 읽어내는 중요한 지표로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과거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는 데 지리적 환경 분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지형적 입지 선호도가 명확히 나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생활유적은 평균 고도 55.4m의 낮은 대지와 평균 경사도 2.89°의 완만한 지형에 주로 입지하여 농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보인다는 점. 특히 전체 유적의 60.4%가 충적평야에 집중된 것은 비옥한 토양과 물의 용이성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무덤유적은 구릉이나 사면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며, 넓은 조망이 확보되는 능선부나 구릉 말단을 선호함으로써 단순히 매장 기능을 넘어 집단의 위계와 공동체 조망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생산유적에서 논 경작지는 충적지형 내 습지를 적극 활용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수로와 저수지를 설치해 지형을 극복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음을 유추했습니다. 제의유적은 환호와 환구 유적이 구릉보다 능선과 사면부를 선호했으며, 복수의 하천이 합수하는 지점에 입지하여 수운 교통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호와 환구 개구부의 방향이 일출 일몰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은 종교적·의례적 의미가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지형 특성과 유적 입지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전북은 높은 지형 다양성(고도 CV=129.5%)을 보여 복합적 생계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반면, 서울과 대구는 낮은 지형 다양성(고도 CV=89.1%, 48.9%)으로 인해 특정 지형에

집중된 특화된 경제 활동이 발달했을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의 지형적 제약과 특성이 당시 사람들의 적응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역시 이 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발표하신 글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표집편향과 해석의 함정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청동기시대 유적 입지에 대한 방대한 GIS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거시적 경향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러한 분석에는 표집편향(sampling bias)이라는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확인된 유적은 대부분 대규모 개발 사업(택지 조성, 도로 건설 등)이 진행된 지역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유용한 지리적 이점(낮은 경사도, 평탄한 지형, 하천 인접성)을 가지는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적이 많이 확인되는 곳이 당시의 입지 선호 지역이다’라는 결론은 현재의 개발 양상에 의해 왜곡될 결과일 수 있다는 의문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정주의 고고학의 관점에서 보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유적의 입지선택은 생존과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의 기초 자료가 현재의 기능적 이점에 의해 선별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최적과 과거의 최적의 문제입니다. 논문은 청동기시대 유적이 낮은 고도와 완만한 경사를 선호했다고 분석하며, 이를 농경에 유리한 기능적 선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은 현대에도 도시개발, 농지조성 등에 가장 먼저 이용되는 곳입니다. 반면, 급경사나 외진 산악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어 발굴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만약 이러한 곳에서도 유적이 발견된다면, 당시 사람들이 단순히 농경 효율성 외에 다른 기능적 이점(방어, 특정 자원 채집 등)도 고려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태학적 입장에서도 ‘적응’의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함정을 들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 지형 다양성을 보여 복합적 생계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지표상으로는 타당하지만, 발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낮은 고도의 평야와 함께 인근의 구릉지나 산지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상으로는 다양성이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조사 행위의 범위에 따라 나타난 인공적인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계곡 주변을 선호하거나, 강원도가 산지와 사면을 중심으로 유적이 확인된다는 점은 해당 지역의 지형적 제약 속에서 다른 기능적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최적

입지’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른 지형과 지형에 따른 기후와 미기후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과된 다른 기능적 선택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유적의 입지는 단순히 물리적 속성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경험된 장소’였다고 할 수 있는 현상학적 관점도 필요합니다.

논문은 무덤이 높은 구릉에 위치하는 것을 조망성이나 위계의 표출과 연결하였습니다. 물론 현상학적 해석의 여지를 보여주지만, 이 역시 표집된 데이터 내에서의 해석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악 지형의 깊은 계곡이나 은폐된 장소에서도 제의와 관련한 유적이 발견된다면, ‘드러냄’이라는 기능 외에 ‘숨김’이나 ‘은폐’와 같은 다른 관념적 행위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하는 유적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그들이 남긴 흔적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존 상태가 좋은 유적, 즉 하천변 충적지나 구릉에 자리한 유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물이나 흙에 의해 보존되지 못한 다른 장소들, 예를 들어 밭, 숲, 산 정상 등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의 흔적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떤 입지를 선호했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는 마치 하나의 통일된 주체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생각해 볼 수 것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는 각 지역, 각 부족, 각 개인이 각기 다른 이유와 의도로 장소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의행 교수님의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유적 입지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발굴된 유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조사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수님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데이터 뒤에 숨겨진 개별 행위 주체의 다양한 선택과 의도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토론문 2

#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생계자원 이용의 이해」에 대한 토론문

김현준(신경주대학교)

본 발표문은 가용자원영역분석(Site catchment analysis, SCA)을 토대로 ‘청동기시대 취락 입지와 생계자원 이용의 이해’를 연구한 글이다. 특별히 대상지역과 시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어, 청동기시대의 일반적인 입지 선택의 요인을 자원분포의 상관성과 관련하여 검토한 글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입지는 시대적인 관점을 떠나서 보았을때도 거주민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역사시대 보다 선사시대 유적의 입지가 관심주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선사시대는 사회·문화·정치적인 모든 기반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당시인들이 어떠한 생계전략과 안목으로 삶의 거주지를 결정하였는지가 연구자들의 관심사항이었을 것이다.

특히, 본 글은 환경자료인 작물자원을 활용하여 취락의 입지와 식량자원의 재배나 이용이 특정 환경조건과 관계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토론자 역시 발표자가 제시한 분석방법에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입지를 선택하는 요인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에 대하여 글의 완성도나 관련 연구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면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1. 본 논고의 이론적인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발표자가 밝혔듯이, 가용자원영역분석(Site catchment analysis, SCA)이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듯이 가용자원영역분석(자원획득영역 분석)은 ‘특정 유적의 과거 거주민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부양하는데 요구되는 자연자원들을 구하는 지리적 영역’을 지칭한다. 따라서 취락이 구축된 이후의 주변 자원에 대한 이용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발표문에서는 취락 입지의 결정요인으로서 이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와 같은 논쟁으로 번질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발표문은 취락의 입지선택의 요인에 대해서 곡물자원과 취락 입지사이의 상관성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시기별 입지선택의 요인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북한강유역에 등장하는 청동기시대 조기라고 부르고 있는, 돌대문토기 단계 주거지인들의 입지 선택 요인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

3. 발표자는 곡물자료와 6가지의 환경자료를 근거로 하여 식물자원과 입지간 상관성을 추정하여 크게, 구릉과 충적대지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릉지대는 침식의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형이다. 글에서도 경사도에 따라 경작지의 생산력 감소, 농경지의 활용 여부를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적대지에서는 밭의 존재(물론 구릉에서도 수전의 존재가 확인되지만)와 더불어 곡물의 저장과 관련한 다양한 시설이 확인되고 있고, 곡물자원의 양도 풍부하게 확인된다(ex: 충주 조동리, 진주 대평리).

본문에서 주성분분석을 시도한 결과를 보았을 때, 출토량이 많은 쌀, 조·기장의 재배는 충적대지의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콩·팥속과 보리·밀은 비교적 다양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따라서 구릉지보다는 전반적으로 충적대지 입지를 활용한 결과가 더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듣고 싶다.

4. 필자는 발표문 말미에 밝혔듯이, 곡물자원과 관련된 입지선택의 요인이외에 동물자원을 포함하여 입지를 선택하는 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필요성 등, 여러 부수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식생활 자원의 취득 목적 외에, 취락의 입지를 선정하는 다른 요인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다.

## ‘취락의 입지와 유통 체계: 남강유역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토론문

고민정(경남연구원)

청동기시대 남강유역은 대하천변의 충적지에 입지한 지형·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다수의 주거지와 무덤, 의례유구, 수공업 생산유구, 논과 밭 경작지, 환호 등의 유구와 유물을 비롯한 풍부한 자료가 축적되어, 지역 단위의 취락 구조 뿐만 아니라 토기·석기·옥장신구의 수공업 생산과 교류를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취락의 구조 및 특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이루어졌지만, 청동기시대의 사회·경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황재훈 선생님의 ‘취락 입지와 유통 체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방향을 잘 보여주는 모범적 연구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취락의 입지와 유통체계: 남강유역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발표문은 청동기시대 물품의 생산과 교환, 소비 체계 복원 연구가 지역 간 상호작용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중기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의 표준화와 생산 전문화를 분석하며, 진주 대평리 취락이 남강 일대 생산공급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위치, 취락 경관이 사회정치적 위상을 뒷받침했음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남강유역은 농경 기술 양식의 공유, 묘역지석묘의 축조, 적색마연토기와 옥 장신구, 석검·석촉 등의 부장품을 통해 공동체 정체성을 표현하며, 물품 이동과 물질문화 전파가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기술 확산, 정보 교환, 인적·문화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교환경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동계수를 이용한 토기의 표준화 측정과 생산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청동기시대 중기 다수의 가구와 취락에서 표준화 정도가 다른 일상용 무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가 공존하였다는 사실은, 단위 지역이나 개별 취락에서 가내제작 수준에서 가내공작~공방공작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산체계가 병행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료, 제작 기법, 형태, 문양 등을 근거로 측정이 가능한 유물의 표준화(standardization)는 전업 또는 반전업 공인의 제작, 기술의 발전, 생산량 증대, 소비 단위와 유통 범위 확대 등 여러 경제적 지표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기종 간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동최대경 대비 기고 값을 이용하여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적색마연단경호 | a1식 6.90, | a2식 7.59, | b식 9.62, 중형무문발과 대형무문발은 각각 12.99, 12.78로 산출되어 일상용기와 특수 토기의 생산·유통 체계가 동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적색마연단경호의 생산 체계는 초보적 수준의 생산공방에서 (반)전업도공 그룹에 의해 제작되어 취락 외부까지 교환되는 공방공작 체계로 표준화의 수준을 논의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변동계수 결과를 통해, 일상토기 제작자와 적색마연토기 제작자를 구분, 적색마연토기는 대평리 취락 내에서 (반)전업도공 그룹이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적색마연토기 제작자가 일상토기도 함께 제작했을 가능성은 어떠한지. 대평리 유적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주거지에서도 다수 출토되고 조리용이나 식기로 사용된 흔적들도 확인됩니다. 또한 일상토기 중 심발형토기는 높이 20~30cm 정도로 크기가 규격화 혹은 표준화되는 점, 구연단 끝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천발 형태의 중간단계의 유물들도 여러 점이 함께 출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같은 기종의 토기를 다량 생산하는 기술 체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이정은(2022: 7-8)이 분석한 금강유역 외반구연호의 변동계수 값은 중형 24.58, 대형 23.12로 남강유역 일상토기의 변동계수 값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강유역의 일상토기가 금강유역의 외반구연호와 비교하여 표준화 수준과 일상토기의 제작 기술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발표자는 변동계수가 가장 낮고 수량이 가장 많은 적색마연단경호 | a1식의 경우 생활유구 대비 무덤 출토 비율(62.5%)이 높게 나타나며(특히, 산청 매촌리, 의령 동동리, 함안 오곡리 등), 이는 변동계수와 부장품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부장품을 지향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토기를 제작하기 위한 표준화된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생산 전문화를 위한 공방 내 전수·학습 제작 체계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유구에서 발견되는 적색마연토기 또한 일상용기와는 다른 특수한 용도(의례용, 위신제)로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부장용 적색마연토기와 동일한 생산 체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유구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는 산자의 위신제 혹은 의례용으로서의 가치, 무덤에서 출토된 죽은 자의 부장품으로서의 가치로 구분할 때, 그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토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이론적 검토(황재훈, 이정은 2022: 251-253) 내용을 참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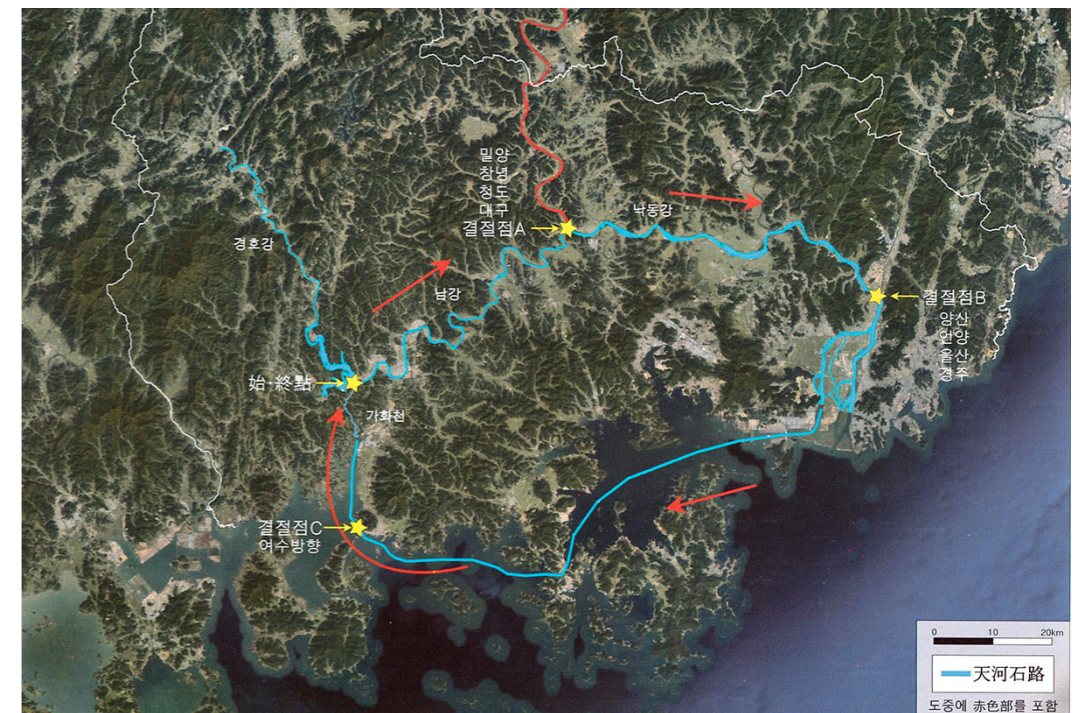
면, 한반도 청동기~초기철기시대의 토기생산은 B유형으로서, 반전업 도공그룹에 의해 가내공작 혹은 초보적 수준의 생산공방, 공동체 기반의 전문화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필리핀 칼링가(Kalinga) 사회의 달루파 지역 취락에서 반전업도공 그룹은 대부분 여성들이고 어머니가 딸에게 기술(수공업)을 전수하는 모계세습방식으로서 특정물품, 즉 토기생산에서 공동체 기반의 전문화된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평리 취락에서도 반전업도공이 여성이라고 가정한다면(물론 숙련된 도공) 혼인에 의해 다른 취락에서 대평리 출토품과 유사한 토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제한된 취락-대평리 취락에서만 토기를 생산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자도 대평리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고 40km 이상 떨어진 함안 봉성리 유적 등 먼거리에서 한두점 출토되는 횡침선문 적색마연토기에 대해 대평리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론한 바 있습니다. 태토분석이나 제작기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제한된 취락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생산지와 소비지 간 거리와 물품 수량의 상관관계와 유통체계 관련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적색마연토기의 감쇠곡선(fall-off curve)을 통해 생활유구 출토품은 대평리 취락에서 최대 약 30km까지 유통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해 단계적 교환이 반복되는 노선하향식 교환(down-the-line trade)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무덤유구 출토품은 거리와 수량의 감소가 완만하거나 거의 없고, 43km 떨어진 함안 봉성리유적까지도 균등하게 분포해 직접 교환(directional trade)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취락은 생산지인 대평리로부터 직접적인 공급·교환 행위를 통해 입수하였을 것이고, 대평리에서 멀리 떨어졌음에도 다량의 적색마연토기가 확인된 평거동과 매촌리 취락은 중위취락으로서 1차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소비한 후 주변 취락으로 전달하는 중심 장소였을 것으로 설명하였는데요, 평거동과 매촌리 취락을 남강 일대 유통의 위와 같은 역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평거동 취락의 경우에는 넓은 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주거지를 포함한 생활유구의 수는 대평리에 비해 적고 대규모의 밭 경작지와 논 경작지가 확인되어 경작집단의 특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수공업 생산에 대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대평리 취락에서 옥장신구와 적색마연토기를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청 매촌리 취락의 경우에는 인접하여 옥산리 유적, 묵곡리 유적이 위치하고, 경호강 상류에는 하촌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촌리 유적과 옥산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중기전반에 일대의 중심취락으로 논의되고 있으며(유병록 2019), 하촌리 유적에서도 토기소성유구가 확인되었고, 하촌리, 매촌리, 묵곡리 유적은 더욱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옥 제작 흔적이 다수 확인된 곳-특히 묵곡리유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적색마연토기도 옥산리 유적이 위치한 산청읍 일대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남강 유역 송국리유형 취락의 입지 특성과 공유된 물질문화 양상을 종합할 때, 자원 및 물자의 이동 역시 수로가 주요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적색마연토의 다량 유통과 약 30~40여 km에 이르는 넓은 분포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수운이 운송량과 속도, 안정성 등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 거리를 확장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임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토론자도 옥장신구에 대한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연구에서 청동기시대 중기에 산청 묵곡리와 진주 대평리 취락에서 옥장신구의 제작과 생산은 좀더 집중적이고 전문화되었으며, 개별유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단순히 공옥 관련 유물량과 형태적 유사성 등을 통해 인접 취락 뿐만 아니라 사천, 함안, 의령, 창원, 김해, 여수반도 등 원거리 유적에도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역측한 바 있습니다. 옥 장신구의 유통체계와 관련하여 최근 발간된 옥방1지구 발굴보고서 고찰편에서 ‘대평석(大坪石)’제창과 ‘천하석로(天河石路)’설정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최종규 2023: 52-55), ‘천하석로’는 남해안에서 천하석제 옥의 출토에 증가 정황에 따라 陸路, 河路, 海路를 통해 남해안을 완주하고는 되돌아서 낙동강-남강을 거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천만을 통해서 덕천강-가화천을 따라 대평으로 도착하는 루트



河海路를 통한 천하석로 모식도(최종규 2023: 243)

(꼬막장신구 출토예)를 상징하였습니다. 이 루트는 河路와 海路를 통해 밀양점, 김해점, 사천점을 각각 결절점 A,B,C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경주, 여수반도로의 유통망에 연결되고, 오지의 사람들은 결절점에 와서 구매 혹은 호혜로 입수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서 발표자가 말씀하셨던 산청 매촌리와 진주 평거동유적이 옥 장신구 유통의 결절점과 같은 역할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옥 장신구는 좀더 장거리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수반도 일대, 사천 이금동, 창원 진동리, 김해 울하리 등 남해안 일대의 대형 묘역지석묘에서 천하석제 옥의 분포 양상, 물론 옥 장신구는 운반이 불편한 토기류에 비해 훨씬 더 먼 곳까지 유통이 용이할 것이고 또한 함안식적색마연호(경부내경) 등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별개로 설명될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예를 들어 대평리 취락에서 생산된 적색마연토기, 마제석검, 옥장신구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이 ‘천하석로’와 관련하여 수로[河路], 해로, 육로를 이용한 유통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토론문 4

##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와 경관 구조’에 대한 토론문

천선행(조선대학교)

강동석 선생님은 이번 발표에서 자연지리적 조건을 반영한 취락 경관이 공동체의 정체성, 네트워크, 계층 관계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영남 지역의 청동기시대 취락을 선상지, 충적지, 곡간지, 해안지형으로 나누고, 경관생태학 및 문화경관론적 관점을 견지하며 PCM(패치-통로-매트릭스) 모델을 적용해 취락 경관의 사회적,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였습니다. 발표의 결론은 청동기시대 취락 경관이 지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성되었으며, 분묘나 거석 기념물이 취락 전체를 통합하는 '매트릭스'로 작용하고, 이 구조는 단순한 생계 전략을 넘어 사회·정치적 권력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토론자는 PCM 모델의 분석 방법이나 적용 적정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글을 읽으며 든 궁금증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주로 모델 적용에 따른 해석과 실제 고고학적 실상 사이의 간극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 1. 월배선상지 취락 경관

①월배선상지의 입석을 설명하면서 상인동 입석의 기능으로 경계 역할과 더불어 비보(裨補) 경관을 구성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비보란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는 의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려 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입석이 취락 외곽에 처음부터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배치되었고, 그 안에 취락이 조성된 것으로 보여 청동기시대 중기(발표문 후기)에 들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공간 구성을 의도하고 입석이나 취락이 조성된 것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월배선상지의 경관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점진적으로 구축된 결과로 보시나요? 아니면 초기부터 지형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물로 보시는 걸까요?

②현재 진천동 입석 조망권만 제시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상인동 입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취락과 동떨어져 있어 오히려 월배선상지 유적 내에서 더욱 특별한 위치를 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상인동 입석의 조망권을 따로 제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은 이 입석이 다른 입석과 다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2. 진주 대평리 옥방 취락 경관

①선생님 발표문에서 진주 대평리 옥방 취락의 무덤 III유형을 경제적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하신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발 주변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특징을 중요하게 보셨다고 이해되는데, 발 근처라는 점만으로 다른 유형의 무덤과 차별화하여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 근처에 있지 않으면 경제적 풍요 기원의 의미가 부여될 수 없는 것인가요? 오히려 무덤의 의미는 토지와 집단 간의 관계성, 즉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집단 소유의식 등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②선상지 취락에서는 전기와 중기(발표문에서는 후기) 취락의 경관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적지 취락은 시간 차 없이 통합적으로 보고 있는 듯한데요. 그 이유는 전기와 중기의 충적지 취락의 경관 변화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형의 안정성이나 농경 방식의 지속성 같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 3. 취락 경관의 다양성, 분묘 역할의 공통성

발표문에서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경관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으로 분묘가 권력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묘의 위계와 권력 통제 정도에 따라 무덤 경관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네 가지 유형의 취락 경관 내 무덤들에서 그러한 다양성이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형에 따른 분묘 경관의 차이가 없다면, 이는 분묘의 역할이 지형적 요소보다는 다른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 4. 경관 형성에 있어서 지형과 인간의 상호작용 경계

발표문에서는 선상지든, 충적지든, 곡간지형의 게이트웨이든 지형적 요소가 취락의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영남지역에 동일한 지형에 속하는 다른 유적들도 많을 텐데요. 동일 유형의 여타 유적들은 모두 동일한 경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중시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진주 대평리 옥방유적과 평거동유적은 공통점도 있는 반면, 무덤 III유형의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동일 지형 내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된다면, 취락 경관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형이 결정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밝힐 수 있을까하는 회의적 생각도 듭니다만- 어디까지가 지형에 좌우되는 경관 요소인지, 어떤 부분이 인간 상호작용 및 사회적 의미 구축유지를 위한 경관 요소인지 그 경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계에 대한 구분이 진전되어야 취락 경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 「취락 입지와 사회 구조(네트워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포항-경주-울산-부산을 연결하는 동남해안지역은 청동기시대 후기에는 ‘검단리문화’가 형성될 정도로 독자적인 문화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가장 많이 조사된 지역으로서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로서 기초강연, 5건의 발표 모두 ‘취락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언급한 후 각론의 세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발표자 역시 울산지역 취락의 입지를 통해 주거공간의 분포와 사회 구조, 취락 구조(네트워크)를 해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2009년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워크숍 『청동기시대 중심취락과 취락 네트워크』 중 고민정 선생님의 발표문인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후기 중심취락과 취락간 관계」와 지역적 대비가 가능한 중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방대한 취락 자료를 정리해 주신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 1. 취락 입지

울산지역은 하천 발달이 미약해 구릉취락이 다수를 점하지만, 곡천리·굴화리취락과 같은 장기존속 평지취락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평지와 구릉의 취락입지에 대한 분류만 진행하였을 뿐, 각 단계별 입지 이동, 평지취락과 구릉취락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감이 있다. 남강유역의 경우, 청동기시대 중기 전반의 평지입지에서 중기 후반이 되면 구릉으로의 입지이동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 병행하는 검단리문화권의 울산지역에서도 후기가 되면 구릉으로의 입지이동이 관찰되는 바, 그 원인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국청동기학회, 2009, 『청동기시대 중심취락과 취락 네트워크』, 한국청동기학회 취락분과 제2회 워크숍 발표요지

## 2. 취락군 설정

울산지역은 대부분 구릉에 취락이 입지하고 있다. 구릉이라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취락의 확대는 필연적이며, 분촌화가 진행되었다면 모촌과 자촌의 관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심과 위성취락으로의 관계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도면 2>의 주요 취락 분포도를 참고하면, 하천을 경계로 동·서 또는 남·북으로 취락이 열상배치되어 있다. 발표자는 근거리에 위치하는 유적들을 묶어 취락군으로 설정하였는데, 하천의 폭과 유량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기 남강유역의 경우 중심취락과 위성취락이 하천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하천 양안을 함께 취락군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표자가 설정한 33개소 취락군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 3. 취락의 관계망

1) <도면 3-5> 각 권역 취락의 관계망을 중핵취락-거점(중심)취락-위성취락으로 설명하였다. 취락 위계를 주거 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그 외 상징적인 시설은 없는지 묻고 싶다. 가령 다른 지역의 중심취락은 주거 수도 중요하지만, 환호, 고상건물, 분묘 등 상징적인 시설의 유무와 옥, 토기, 석기 등의 생산과 유통이 중요지표가 되며, 위성취락은 경작지 등의 생산지가 부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할 듯 하다.

2) <도면 4>의 회야강유역의 관계망에서 환호취락인 검단리유적이 위성취락과 같은 급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환호취락이 중심취락임을 감안한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태화강유역과 동천유역에 비해 회야강유역의 취락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느슨한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

3) 울산지역의 환호취락은 검단리·천상리유적 등 소수에 불과하며 발표자가 환호취락으로 분류한 창평동·연암동·명산리유적은 환구, 방기리유적은 환호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괴리가 있다. 토론자는 울산지역의 환구가 주변 복수취락의 공조로 인해 조성·유지·관리되는 중요시설로서 공동체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발표자가 생각하는 환호와 환구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 4. 취락간 상호관계

1) 맺음말의 1단계 취락 설명 중 ‘인접하는 동단계 취락과는 큰 공통점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10km 내외로 떨어진 취락과는 공통점이 더 강하게 부각된다. 저기에는 사회관계망을 검토할 만한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취락은 가시권을 통해 문화적 소속감을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저 곳에 살고 있다”는 상호이해를 증진

시킬 수 있어 근거리에 배치된 취락간 관련성이 높은 것<sup>2)</sup>이 일반적이므로 주장의 근거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추후의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GIS 또는 사회연결망 분석 등을 활용한다면, 단순한 입지에 따른 유사성 비교가 아닌 다중간 네트워크 분석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2) Habeom Kim · Christopher Bone · Gyung-Ah Lee, 2020, 'Landscapes shared by visibility : a case study on the settlements relationships of the Songgukri culture, Korea', "Archaeology and Anthropological Science"

---

한국청동기학회 2025년도 정기학술대회

##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

발행일 2025년 10월 17일

주최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내  
한국청동기학회 033 640 2594

인쇄 에디코 051 257 2321

---